

새 아침의 향기
의사 조남인 보살 가족

A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1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25호 2015년 1월 1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깨달음의 길에는 인욕이 으뜸이다.

통일대불이시여! 새아침 민족의 염원 '통일'을 발원하옵니다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 산하대지는 반만년의 시간동안 한 뿌리, 한 몸으로 살아왔다. 갈등과 반목을 화합과 소통으로 풀어내는 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한국불교 역시 민족통일을 위해 나서야할 때이다. 오늘도 각처의 통일대불이 자비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변혁의 새 아침을 열어가자. 사진 왼쪽부터 속초 신흥사, 대구 동화사, 파주 약천사 통일대불. 신성민 기자

조계종 前 종정 법전 대종사 원적

구랍 23일 법랍 73세. 세납 90세… 27일 영결식



임 종 게

山色水聲演實相
曼求東西西來意
若人問我西來意
巖前石女抱兒眠

산빛과 물소리가 그대로
실상을 펼친 것인데
부질없이 사방으로
서래의를 구하려 하는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서래의를 묻는다면
바위 앞에 석녀가 아이를
안고 재우고 있구나

조계종 11, 12대 종정이자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대종사가 구랍 23일 오전 대구 도림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73세. 세납 90세.

스님의 분향소는 방장으로 주석했던 해인사 보경당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해인사에서 구랍 27일 봉행됐으며, 다비는 영결식 후 해인사 연화대에서 이뤄졌다. 〈영결식 차주 상보〉

조계사와 해인사의 분향소에는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 온 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12월 24일 조계사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이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정관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조계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해인사 분향소에도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한 조계종 원로의원, 교구본사 주지와 사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3일 오후 해인사에 조화를 보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1925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법전 스님은 19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 스님을 계사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44년 장성 백양사 강원 대교과정을 마쳤으며, 1948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를 수지했다.

법전 스님의 초재는 해인사, 2재는 해인사 고불암에서 3재부터 5재는 대구 도림사에서 6재는 김천 수도암에서 7재는 해인사에서 봉행된다. 신성민 기자

대종사 행장 A3면

커버스토리

2015 한국불교 변혁의 새 길을 열자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인만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불교는 종단적 갈등부터 스님의 범계 행위까지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은 100인이 모이는 대중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만큼 변화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공의는 모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회적으로는 지난해 남북 갈등과 일본 우경화에 따른 관계 악화로 홍역을 앓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갈등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

한국불교 쇄신을 위해서는

한국불교 사부대중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내부적 변화가 없다면 한국불교계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저하되고 쇠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각 종단 조직과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부로부터 의식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정법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1945년생 해방둥이인 법산 스님은 "정화 이후 조계종이 얼마만큼 수행종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또 스님들 각자가 수행자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불교와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사부대중들은 말했다. 깨달음을 얻고 이를 통해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산 스님은 "유식학의 목적은 전식득지(轉識得智)입니다. 마음의 깨달음, 참회의 깨달음으로 마음의 업식인 탐진치 삼독을 밝음. 보시와 지혜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의 세계를 반조하고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일진 스님도 "자성과 쇄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 스스로 자성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자성과 쇄신은 되지 않는다"면서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정화하며 자성과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 一心의 리더십 필요

분단 70년은 한국 사회에는 큰 아픔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바람과 원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통일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다. 이러한 목표를 국민 의지로 확인하여 통일의 동력을 살려내고 국민의 원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통일의 첫 출발점이 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 교수는 "우리는 2015년을 국민의 통일 의지와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일심(一心)의 리더십을 덕목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통일이라는 국민의 공통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은 불교사상이지만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신라의 3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이은 세 번째의 통일이 될 남북한의 통일도 이러한 일심의 정신을 살린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불교, 한일 갈등 해결 나서야

현재 세계 패러다임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일본만은 한국의 독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등을 가지고 영토 분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베 정권 재집권하면서 우경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사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통해 상호교류와 우호 증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18~20일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세계평화선언과 더불어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 철책선을 도보 행진하는 행사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대회가 선언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제기된 주장이 2010년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나온 〈한중일 불교사〉 공동 집필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수차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기적 불교문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성숙된 정견을 표출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종걸 스님은 "동북아 3국을 통합하는 힘은 '불류(佛流)'에 있으며 '동북아 불류시대'를 위해 한중일 국이 매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류의 양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15년 신년특집호 - 48면 발행

A 특집 · 분단 70년 '2015 변혁의 새길을 열자' 5
특집 · 한국불교 쇄신의길 해방둥이 법산 스님 희망인터뷰 10
새연재 ·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11
새연재 · 현대불교입문 15

B 특집 · 공유사회와 불교 1 · 2
특집 · 절오빠 절언니 3
특집 · 새해, 새몸, 새마음 5 · 6
특집 · 불교와 양 12
새연재 ·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15
특집 · 양띠불자 19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謹賀新年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새해를 열겠습니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성문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임명

자승 스님 구랍 23일 임명… 국장급 인사도 일부 단행

조계종 총무원 신임 총무부장에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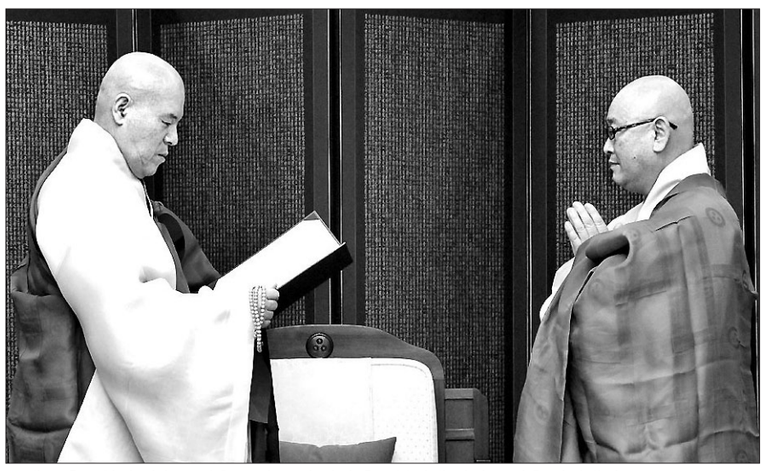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23일 오전 정만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을 임명했다. 당초 총무원 안팎에서는 총무부장을 비롯해 소폭의 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자승 스님은 공석인 총무부장을 인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자승 스님은 이날 "지현 스님은 33대 집행부에서 이미 총무부장을 역임했고, 10·27법난 위원장과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은 바 있어 종단의 핵심종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수계했다. 12~16대 중앙종회 의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청량사 주지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총도감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국장급에 대한 일부 인사를 단행해 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전 사서국장 도성 스님을, 총무원장 사서에 전 호법과장 인오 스님을 임명했다. 또 총무원 호법과장에는 탄국 스님을 임명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23일 신임 총무부장에 지현 스님을 임명했다.

선학원 회수 특위 활동 방향 논의

구랍 18일 첫 회의… 실무위한 소위 구성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200회 정기회에서 구성한 '재단법인 선학원 종단회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가 구랍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실무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장 주경 스님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과 법적·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법적 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종단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 스님은 "15대 중앙종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다. 특위 명칭부터 '회수'를 쓰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에 앞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수 스님도 "종단·종회와 제방 어른 스님들의 여론은 다르다. 너무 급진적으로 다루지 말고 협상과 타협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으며, 성무 스님도 "분종은 막아야 한다.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상처가 남는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원 스님(직할)은 "종단의 노력이 있었지만 선학원은 탈종과 자체 승려증도 발급하며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통의 창구는 열어둬야겠지만, 종단도 강단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간사에 제민스님을 선출하고, 주경 제민 정범 태효 원경 법원 도수스님의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16대 중앙종회 전·후반기 동안이며,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위원 중 주경, 법보, 정범, 정수, 성무, 제민, 법원 스님 등 10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생명평화 1000일 정진 회향은 또 다른 시작"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구랍 23일 1000일 정진 회향

"우리의 다짐을 많은 대중과 함께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사회로 확산해 나가는 것은 종단과 불자의 염원이며 우리가 밝힌 등불에 빛을 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본부)가 2012년 3월 28일 입재한 생명평화 정진이 구랍 22일 1000일을 맞았다. 조계종 결사본부는 구랍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평화 1000일정진 회향 및 생명평화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생명평화 정진의 후속 사업인 '사부대중 100일 대중공사'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 종단은 '붓다로살자'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오랜 공업을 녹이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성심성의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와 종단의 현실과 엄주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데 종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쉼없는 결사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진제 스님은 "우리가 1000일의 간절한 서원을 세움은 1000일 위한 것이 아니라 10000일을 향한 첫 걸음이자, 정법을 향한 끝없는 결사였으니 어찌 방일함을 용납하겠는가"라며 "첫 발심의 매듭을 다시금 살펴 끝없는 정진으로 일념을 이룬다면 반드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했다.

2012년 3월부터 정진했지만
사부대중 참여 한계 보여줘

정진단, 법당으로 상시 운영
후속사업으로 대중공사 진행
대중 참여·결과 반영 '물음표'

이어 도법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붓다로살자' 친필 휘호를 대웅전 불단에 봉정했으며,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붓다로살자' 결사도량 및 결사단체를 선포한 조계사, 국제선센터, 상주사, 금정사, 법륜사, 금선암, 포교사단, 불교레크리에이션협의회 등 총 8곳에 생명평화를 상징하는 연등을 이운했다.

법회가 끝난 뒤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을 생명평화법당으로 전환하는 현판식이 이어졌다. 결사본부는 생명평화법당을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의 기적 1000일 기도를 비롯해 '붓다로 살자' 실천 활동을 펼치는 열린 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조계종결사추진본부는 구랍 23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귀향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정진단을 상시 법당으로 전환하는 현판식 모습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종단의 결사운동을 통해 불자들이 대승 불교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미완의 성공이다.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것이 대중 참여의 저조이다. 정진단을 조계사 경내로 옮기고 세월호 참사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동참 인원이 늘어났지만, 이전에는 동참률이 높지 않았다 대부분 정진 동참자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출·재가 종무원, 일부 특정 사찰과 단체, 포교사 등에 그쳤다.

대중의 공감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붓다로 살자' 운동도 마찬가지다. 이미 100인 대중공사의 출범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교계 일각에서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전략이라는 비판부터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한계점까지 지적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미생(未生)'에 그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후속 사업을 통해 '완생(完生)'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구성원 "총장 선출 과정 재검토"

총장 선거 종단 개입 두고
구성원 고발·시위 이어져
"종단 사과 및 선거 재시행"
이사회, 교육부 질의 준비 중

동국대 총장 선출에 대한 종단 개입을 비판하는 동국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국대 학생들과 동문들은 종단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교수들과 직원들은 총장선출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구랍 22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5원장 스님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23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광백 동국대 제47대 총학생회장과 최창훈 제3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태현 식품공학과 재학생 등 동국대 학생들은 "총장 선거에 대한 외부인사의 개입은 비민주적 절차"라며 "이는 대학 명예와 위신, 건학이념을 송두리째 내던진 행위로 차기 총장이 조계종의 허수아비라면 학교 안으로 한발자국도 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총장후보자추천위 재구성과 민주적 절차를 포함한 총장선거의 재시행을 요구했다.



동국대 학생대표들이 구랍 23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단의 총장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학생은 시위에 이어 총무원 총무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동문들도 종단의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자세로 나섰다.

동국대 총동창회 원용선 회장 측인 정환민 사무총장, 이상호 부장, 송인모 상임이사 등 임원 70명은 구랍 23일 형법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5원장 스님들을 서울지방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립학교인 동국대는 학생들과 동문,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모든 불자들이 주인"이라며 "조계종단의 특정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교수협의회(회장 한만수)와 동국대 행정 교무위원, 동국대 직원노조도 구랍 22일과 23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종단의 사과 및 총장 선출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총장 선임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장후보추대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총장 후보들은 단지 총장이라는 직위를 원하는 개인이 아니라 대학 발전을 염원하는 구성원 전체 의지를 대변한다"며 "일부스님들이 김희옥 총장에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행위며, 한마디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 법인사무처는 "교육부 질의 내용이 23일 현재 이사장 결제가 진행중으로 확정되면 교육부에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사무처의 교육부 질의 내용은 △총장 후보 사퇴로 인한 단독후보 선출의 적법성 △종단 인사와의 회동 후 후보 사퇴 과정에서의 사립학교법 저촉 여부가 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乙未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원효종은 2014년 등록된 아래스님을 종도로 확정 공고합니다

정광(안상수) 창해(허종수) 태일(권춘광) 우석(손영채) 보원(성재호) 일륜(김두환) 무상(이홍길) 자안(전현탁) 능관(안봉근) 자언(김종화) 해인(이영우) 춘명(이종귀) 혜안(강금숙) 송하(김건봉) 무송(한상호) 옥천(오세균) 석불(김영구) 법선(한경수) 선운(김재연) 혜원(이동재) 무성(권오현) 유상(고점식) 천수(김환철) 호석(서성락) 법진(이영구) 법장(이종근) 혜명(정명숙) 금파(최재봉) 무공(이용운) 법진(김종권) 원일(양혁문) 대호(최병식) 상화(최복순) 수경(강성식) 법원(강승찬) 수현(양진혁) 원해(고승안) 지연(김홍자) 효산(지홍림) 혜명(이영수) 월함(최일갑) 도철(이 실) 보하(이순자) 보광(백종경) 자광(강윤수) 도원(박사암) 혜명(정미정) 경산(정홍배) 지안(이옥려) 서응(최종운) 무종(김명호) 도우(류재웅) 도명(김위권) 남주(주상태) 법정(전재연) 청공(박태규) 보광(이인식) 상도(김옥태) 혜성(남순이) 무진(윤공현) 보리(김은구) 혜명(김미경) 혜봉(권태현) 마명(최영화) 도현(최덕수) 무공(김태경) 송하(정원덕) 원덕(정해철) 지호(이영우) 보각(권영열) 현수(정희진) 지산(조대용) 명조(김민선) 성우(하재동) 보화(이순자) 자운(성창원) 선인(신태호) 도전(정금윤) 성암(임우섭) 연화(정연화) 자성(천향복) 경오(이영환) 성죽(이영배) 혜담(류석돈) 상법(양감철) 덕화(우금자) 금우(조남현) 원담(김경석) 지광(지경환) 혜진(김용택) 법연(이영우) 진덕(이동준) 재송(이수정) 무애(김외화) 명운(이종도) 보무(신대호) 향봉(양성백) 향적(안제홍) 법광(최숙희) 대산(김용만) 원도(이준호) 원각(차재모) 일광(임동석) 운봉(김경진) 무상(변동욱) 도영(김양배) 정념(강경희) 무진(박호현) 송정(최용준) 진혁(최광식) 석권(정옥순) 무해(손영길) 정운(김귀희) 청우(김형철) 범일(김양주) 옥운(김옥자) 동이(김두성) 진덕(이동준) 해성(김재환) 무공(박관용) 무운(최경진) 무진(김종권) 남산(최석주) 석해(정동수) 화심(황용택) 명선(김상배) 보광(손효기) 가섭(임거성) 송하(박원옥) 대원화(김호야) 무량화(최태자) 공덕화(채옥자) 광명심(김정희)

등록하지 않은 스님들은 대한불교 원효종에서 제적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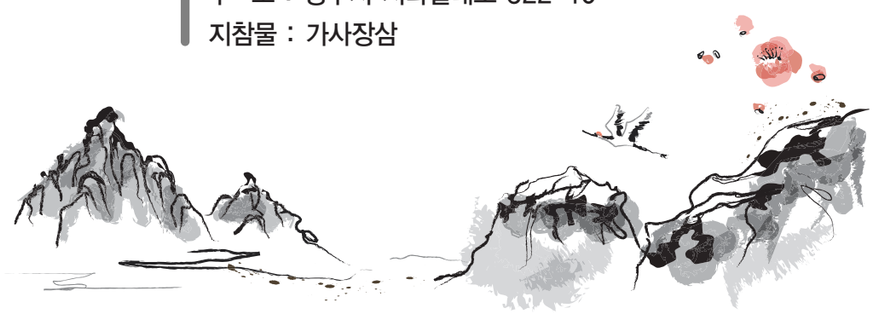
2014년 12월 20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우 석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탑동 344-2) 전화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대한불교 원효종은
다음과 같이 신년 하례 법회를 개최합니다.
종도스님들은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바랍니다.

날 자 : 2015년 1월 7일 (수요일) 10시 30분
장 소 :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
주 소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지참물 : 가사장삼



2014년 12월 20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대행 스님 '한마음' 가르침 동국대 교양과목으로 개설

'현대인의 삶과 마음공부' 1학기 일반교양과목으로 시행

이론 · 실천 분야로 나누어
과학 · 철학 · 심리학 · 문학 등
전문가 · 스님이 강의 진행
〈한마음요전〉 강의 교재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양과목이 동국대에서 올해 새 학기에 개설된다.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수(한마음과학원 연구위원)는 "한마음과학원에서는 불교를 현대화해 현대인의 삶에 널리 이익이 되게 하라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초 · 중등학생, 학부모, 아버지,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왔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마음과학원은 대학인성연구팀을 구성해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1학기부터 동국대 일반교양과목으로 '현대인의 삶과 마음공부'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인의 삶과 마음공부'는 16주 과정의 2학점 교양과목으로 이론과 실천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8주 동안에 △현대과학과 불교 △문학과 마음의 치유 △철학 · 심리학과 마음공부 △마음공부와 글로벌 예절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보는 마음공부 등을 주제로 현대학문과 불교의 관련성을 강의해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공부가 중요함을 이해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마음선원 혜찬 스님,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황수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진복선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 여러 분야의 전공자가 팀티칭에 참여한다.

9~16주 동안에는 전반부 강좌를 통해 얻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실습해 실제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 스님들이 직접 참여해 팀티칭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할 방침이다.

교재는 대행 스님이 구도를 하며 몸소 실천을 보였던 내용들을 발췌 · 정리한 〈한마음요전〉을 채택했다. 김 교수는 "한마음요전에는 현대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대학생들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매우 적합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대행 스님은 자신의 존재바탕이 불성임을 믿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며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 대학생들은 손상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해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불성에 맡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직관적으로 솟아올라 이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는 체험들을 하고 있다.

이번 강좌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지켜보기 △믿고 맡기기 △실천궁행하기 △참구하기 네 가지 단계로 모듈화해 실습할 계획이다.

김영래 교수는 "대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타율적으로 강요된 학교생활 속에 자라나며 본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회 통념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속수무책으로 지배당하는 신세가 된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습득하고 마음의 힘을 길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평생 수행 매진한 '절구통 수좌'

조계종 제11~12대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 행장

봉암사 결사 마지막 산증인
해방 전 고불총림 결사 참여
묵묵히 수행에만 전념한 스님
후학에게 큰 경책으로 다가와



법전 대종사의 법명은 법전(法傳), 법호는 도림(道林)이다. 1925년 음력 12월 8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에서 김해 김씨 시중공파(侍中公派) 원중 청신사와 경주최씨 호정 청신녀의 삼남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고 1938년 14세 때 장성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했다.

1941년 17세 때 영광 불갑사에서 은사 설제(雪醍)스님 · 계사 설호(雪浩)스님으로 수계득도했으며, 백양사 강원에서 수학한 후, 해방 전 만암(曼庵)스님의 고불총림 결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1948년 24세 때 문경 봉암사 결사를 통해 성철 스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참선공부의 길로 들어섰고, 성철스님은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도림(道林)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1956년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득력(得力)한 뒤, 1957년 33세의 나이에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후 제방 수행처의 정진대중들은 법전 스님에게 '절구통 수좌'라는 별호를 붙여 줬다. 1969년 45세 때 퇴락한 김천 수도암으로 거처를 옮겨 가람중수와 선원 복원을 통해 많은 납자들을 제접했으며, 또 2006년 팔공산에 도림사를 창건하여 대가람으로 일궜다.

'절구통 수좌'가 별호로 불릴 정도 철저한 수행을 했던 법전 스님에게 높은 수행력을 보여주는 일화도 적지 않다.

대승사 묘적암에서 정진 시절 법전 스님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방에 냉기만 가시는 정도 불을 넣고 이불도 베게도 없이 수행에만 열중했다. 하루는 아래 운필암의 비구니 스님들이 올라와 스님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5되짜리 커다란 차관에다가 가득 담아서 가져왔다.

한 사발을 맛있게 먹고난 뒤 나머지를 방 위쪽 구석의 삼각탁자 위에다가 뒀다. 겨울이기도 하고 방에 불을 적게 넣어 상할 걱정은 하지 않았다. 운필암 비구니 스님들이 내려하고 다시 법전 스님은 좌복 위에 앉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순두부를 넣은 차관이 눈에 들어와 먹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차관 속 순두부는 곰팡이가 새까맣게 나버렸다. 한겨울 냉기가 가득찬 방 안에서 보관된 순두부에 곰팡이가 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법전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했던 것이다.

법전 스님이 해인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7년 해인총림이 설치되면서 부터다. 1969년 유나(維那)소임을 맡아 초기 총림의 법도를 세웠으며, 1984년 해인총림 수좌(首座)로 천거된 이후 주지, 부방장을 거쳐 1996년부터 현재까지 방장(方丈)으로서 영일(寧日)이 없었다. 가람수호와 총림대중의 화합을 통해 수행가풍 진작에 진력한 선승(禪僧)으로써 108배와 화두참선을 삶의 지남(指南)으로 삼았다. 2002년 조계종 11대 종정, 2007년 12대 종정으로 추대돼, 10년간의 대임(大任)을 원만하게 회향했다.

2003년 〈백천간두에서 한걸음 더〉라는 법문집을 통해 간화선을 두루 선양했으며, 2009년 자서전 〈누구없는가〉를 출간해 스님의 진솔한 삶과 수행흔적을 세인들에게 보여줬다.

마지막까지 가야산 해인사의 방장으로, 선승으로서 삶을 살았던 법전 스님은 12월 23일 오전11시 25분, 대구 도림사 무심당에서 법랍 73년 세수 90세로 입적했다.

법전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 경상 서랍에는 '설사 바다가 마른다고 해도 그 바닥을 볼 수 있건만(海枯終見底)/ 사람들은 죽도록 그 마음바닥을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人死不知心)' 라는 게송을 남겨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전 대종사 연보

1925년 전라남도 함평군 출생
1938년 14세 장성 백양사 청류암 입산
1941년 17세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스님을 계사로, 설제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
1947년 23세 백양사 강원 대교과정을 마침. 백양사 고불총림 동참
1948년 24세 백양사에서 만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및 보살계 수지함
1948년~1950년 24~26세 경북 문경군 봉암사에서 시작한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여 은법사 성철 스님을 만나 하안거와 동안거 정진. 봉암사 결사 해체 후 경남 고성 문수암에서 하안거 중 6.25 전쟁을 맞음.
1951년~1954년 27~30세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성철스님을 시봉하면서 하안거와 동안거, 그리고 범어사에서 안거를 남. 성철 스님에게 '도림' 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55년 31세 대구 파계사 성전암을 수리하고 성철 스님을 모심. 문경 원적사와 상주 갑장사에서 안거.
1956년 32세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동안거에 들어 홀로 정진함.
1957년 33세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정진하면서 파계사 성전암의 스승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음
1958년 34세 태백산 홍제사에서 하안거와 동안거 정진
1969년 45세 해인총림 유나역임
1969년~1984년 45~60세 김천 수도암에 주석하면서 가람 중수와 선원을 복원함.
1981년 57세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장 역임
1982년 58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1986년~1993년 62~69세 해인사 주지를 역임
1993년~1996년 72세 해인총림 부방장 역임
1996년 72세 해인총림 7대 방장으로 취임
2000년 76세 10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역임
2002년~2007년 78~83세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종정 역임
2007년~2012년 83~88세 대한불교조계종 제12대 종정 역임
2009년 자서전 '누구없는가' 출간
2014년 12월23일 해인사 퇴설당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시적하시었다.

청암사 학인 스님들 '힙합 염불' 음원 출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지난해 7월 17일 개최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에서 신선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자신들의 '힙합 염불'을 음원으로 출시했다.

청암사승가대학 29기 학인스님 13명은 졸업을 앞두고 염불시연대회에서 선보인 '신반야심경'을 '아제아제바라아제' 라는 싱글 CD음반으로 출시키로 했다. 반야심경의 내용을 새롭게 구상한 이번 앨범의 Part 1에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Part 2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곡 '아제아제바라아제 #1 위로'는 구랍 22일 공개됐으며 '아제아제바라아제 #2 희망' 음원은 오는 1월 15일경 공개되며 정식 CD음반은 1월말 경 출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노인복지 거목 각현 스님 원적

구랍 25일 법납 46세, 세수 71세… 29일 영결식



불교노인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해 왔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사진〉이 구랍 25일 오전 5시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에서 입적했다. 법랍 46세, 세수 71세. 분향소는 안성 파라밀병원에 차려졌으며, 12월 29일 영결식을 가졌다.

각현 스님은 24살이 되던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8년 청계사 주지로 재직 당시 스님은 돌연 홍콩 유학길에 올랐다. 중국어 공부를 위해 홍콩 중문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를 마칠 때쯤 스님에게 남은 것은 중국어가 아니라 '복지' 였다. 홍콩 사찰 대부분이 복지시설과 함께 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교' 였다.

귀국한 각현 스님은 1984년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전문 지식을 쌓았다. 이후 성수 스님이 설립한 연꽃마을에 1990년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불교노인복지 불사를 진행한다.

연꽃마을 20주년이던 2010년 산하시설은 69개로 늘었으며 종사자 숫자도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양 · 한방병원인 파라밀요양병원을 비롯해 의료복지시설도 전국 6개 지역에 산재돼 있다.

각현 스님은 1986년 법주사 부주지, 조계종 9, 10, 11대 중앙종회 의원, 청주불교방송 사장, 법보신문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연꽃마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2008년 불교인권상, 제23회 불이상을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佛紀 2559年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	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성명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불국로 38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일 주 문



불광사 어린이 · 청소년 캠프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월 4~6일 화성 용주사에서 어린이 겨울 불교캠프를, 1월 9~11일 구미 도리사에서 청소년 동계 대회를 연다.



옥천 성당서 성탄 축하 법문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구랍 24일 가톨릭 옥천성당에서 열린 성탄 미사에서 축하법문을 했다.



제40기 불교호스피스 교육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1월 11일부터 6박 7일간 제40기 불교호스피스교육 '나의 아픔, 놓음과 치유' 를 실시한다. (052)255-8521



제6회 원효학술상 공모작 접수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2월 27일까지 제6회 원효학술상 공모작을 접수받는다. (02) 719-2606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신임 동문회장 선출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이홍파)는 구랍 11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동문회장에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용표 교수는 1978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미국 템플대 대학원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한국불교학회장, 한국종교교육학회장,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 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고창군복지시설 '복운문화축제 및 송년행사'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구랍 19일 '제7회 복운문화축제 및 송년행사' 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기념식, 발표회 및 전시회에 이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송년행사와 아동정서발달서비스 향상 음악회가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배움에 모든 열정을 쏟은 모든 분들이 발표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재양성 위한 교육 선진화가 목표"

취임 100일 맞은 위덕대 홍욱헌 총장



취업률 71%, 전국 4년제 대학중 12위

지표관리팀, 취업센터 운영 등 효과

올 신입생부터 교육공감학기제 도입

"좋은 대학이란 구성원인 학생들이 발전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취임 후 100일동안 교수들 3분의 2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제 2창학운동'을 구체화했으며, '지표관리팀' 을 구성해 지방대학의 취약점인 각종 평가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덕대의 학생취업률이 71%로 영남권 대학중 1위이며, 전국 4년제 189개 일반대학 가운데 1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구랍 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홍욱헌 위덕대 총장〈사진〉은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며 "지역사회가 우리 대학 졸업생을 경쟁적으로 모셔가는 대학, 그래서 학생들이 위덕대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겠다"고 결의에 찬 어조로 밝혔다.

홍 총장은 재임기간 실천 과제에 대해 "교육목표인 창의적 사고 능력, 협력적 인성 및 자존감 등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선진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 매 강의시간마다 최소한 하나의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육공감학기제' 를 도입할 것이며, '사제동행' 의 학생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총장은 이어 학부교육 선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부교육 선진화는 고등교육 시대에 해결할 최대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덕대는 총장 직속의 학부교육선진화 사업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과내용과 방법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실행을 인성기초교육원이 담당 합니다. 또한 융복합 교과교육 등 새 교육 체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교수 및 직원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홍 총장은 앞에서 발표한 졸은 취업률에 대해 "지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졸업생들이 질 높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 및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홍 총장은 "대학이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는 20% 정도의 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넓히는게 급선무라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홍 총장은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진각종단의 지원과 교직원들이 중심이 된 기부금 모금 등의 자구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홍총장은 "정부의 대학교육지원금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LINC)' 등을 위덕대가 수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전기금 확보를 위해 타대학이 대외협력처를 두는 것처럼 위덕대도 대외협력부총장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지 맞이 팥죽 보시로 훈훈한 겨울 보내

전국 지역 및 사찰 동지팥죽 나눔행사 펼쳐



부산 불교계는 동지를 맞아 팥죽으로 일반 시민에게 만발공양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민족의 명절인 작은 설 동지를 맞아 전국 각 지역과 사찰에서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펼쳤다.

부산 불교계는 동지를 맞아 팥죽으로 일반 시민에게 만발공양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2000여 회원 사찰들은 구랍 22일 동지를 맞아 '2014년 동지팥죽축제' 를 개최했다.

19일 진여원(원장 남보타월) 구포시장을 시작으로 22일 범어사(주지 수불)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삼광사(주지 무원) 영광도서 앞, 홍법사(주지 심산) 노포동역 등 부산시 전역을 걸쳐 10만 인분의 팥죽을 나누고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제공해 즐거움도 더했다.

그 외 원오사(주지 정관), 천불정사(주지 고담), 관음사(주지 지현)도 동지를 맞아 경로당, 금정경찰서 및 당리 지하철역 등에서 팥죽을 나눠 훈훈함을 남겼다.

대구 달서구 대(大)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구랍 22일 새벽 아침 200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비의 팥죽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지역 각 사찰에서도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펼쳤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구랍 22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동지팥죽 나눔행사' 를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심원과 전북불교발전협의회, 송광사 청년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동지 팥죽나눔행사는 2천명분의 동지 팥죽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착한벗들' (이사장 회일)은 구랍 20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새알심만들기 체험과 동지팥죽나누기행사를 개최했으며, 군산 은적사(주지 지월)도 동지를 맞아 월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역에서도 동지팥죽 나눔 행사가 이어졌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도 구랍 22일 경내 법왕루에서 동지팥죽 나누기 행사를 열고 2만명에게 팥죽을 전달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도 구랍 19일 제9회 동지날 행사를 열고 1600명에게 팥죽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의왕해병대 전우회 등이 동참했으며 명륜보육원과 분당경찰서 경비대대 등에 전달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구랍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행복바라미 동지 행사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군악대 공연과 중앙신도회 만다라 풍물단(회장 반야수)의 전통놀이 마당도 펼쳐졌다.

하성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강경독송회, 문화재청장 표창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구랍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2014문화재보호 우수협력자 포상식에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금강경독송회는 매주 주말 서울 창덕궁과 경주 국립박물관 일대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영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책자 보시를 비롯해 한국역사 설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10년간 73만권의 책을 발간해 세계 각국에 보급해 왔으며, 6000회 넘게 국내외에서 한국알리기 행사를 열어왔다. **노덕현 기자**

제2회 불교음악상 시상식 개최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2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이 구랍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불교음악상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었으며 올해 대상에는 오랜 세월 찬불가 작사 및 보급에 앞장서 온 덕신 스님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공로상에 이준형(지휘자, 한국불교음악인협회 부회장) · 연정연(성악가, 바라오페라단 부단장)씨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혜숙 기자**

호국불교조계종 구족계 산림



(사)호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유심)은 구랍 16일 총무원 부산 관음정사에서 '금강계단 구족계산림 및 법계고시' 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유심 스님을 비롯해 종도 및 관내 정재계 인사 등 사부대중 2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사 법계 비구니회장 혜명 스님, 종사 법계 교육원장 봉덕 스님 등 60여 종도가 품수했다.

유심 스님은 "전법계와 수계는 화합 윤리의 강령이 되는 윤리덕목을 받는 것"이라며 "탐진치를 버리고 진심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 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혜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석천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풍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만허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보성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성진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통일 준비, '一心 원력' 불사로 시작

2015 변혁의 새 길을 열자



지난해 11월 18일~20일까지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한중일 불교지도자들이 임진각 부근 철책선을 평화행진을 하고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 한일 갈등해소가 급선무이며, 불교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분단 70년, 한일협정 50년 맞아
북한 핵 확산 억제 등 한계 있어
北 도발 억제, 韓美日 동맹 중요

국민의 통일 염원 하나로 엮을
'一心' 통합 리더십이 필요한 때
통일 위한 내부적 체재 준비해야

통일의 조짐과 분단의 벽

올해 2015년 을미년은 남북분단(1945년) 70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한일관계 정상화(1965) 50년이 되는 해이다. 통일과 한일관계를 새롭게 생각게 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근자에 통일에 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 정세와 한반도 주변 상황이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에 이은 독일통일 전야와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작계5029)을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중국도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병아리小鷄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는 놀라운 것이다. 또한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금년 12월 18일(현지시각)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는데 그 상징적 의미는 대단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다. 주민통제의 주요 방법이던 배급제가 무너진 후 주민들은 암시장 등에서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전력난에다 원부자재 부족으로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20% 대로 추락하고 있으며 물가와 환율은 폭등했다. 김정은 등장 후 처형과 숙청이 일상화된 것은 폭력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류열풍으로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빅터 차(Victor Cha)와 같은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2015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수년간 북한은 더 많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김정은 정권 내부 변화가능성도 낙관하지 않는다.

먼저 북한 핵 문제는 지난 20년간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 2005년 6자 회담을 통한 2차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상황은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지배하의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채택하여 플루토늄과 우라늄 기반 무기에서부터 실전 사용에 이르기 까지 핵능력의 전 방위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도 크다고 보지 않는다. 김정은이 제거된다든지 당이나 군 내부의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정은은 비만이 심각하고 줄담배를 피우며 지독한 폭음으로 29세나 30세라고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불건강해 보인다고 한다. 그의 부친과 조부는 모두 심장마비로 사망한 병력이 있다. 김정은이 그의 전임자와 같이 십년 이상 통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 확대를 억지하거나 북한의 내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한국에 대한 도발의 경우 미국의 반응은 북한의 핵력 성장을 억제하는 임시적 해결책에 머물 것이며 그것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능력을 계속 성장시킬 것이다. 만일 북한이 눈에 띄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서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IS에 대한 전쟁 등에 집중하게 되어 북한 문제는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결국 북한 핵 프로그램은 방해 받지 않고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고 빅터 차 교수는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한 · 미 · 일 삼각동맹체제를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의 염원과 통합의 리더십

그러면 이러한 통일의 조짐과 분단의 벽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원력(願力)이 해답이라고 본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인과의 사슬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여 미래를 창조한다는 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願)이라고 부른다. 원은 욕망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사명이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에 가까운 것이다.

불교의 이상 세계는 원(願)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법장비구의 48대 원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며 약사여래의 정유리세계(淨瑠璃世界)는 약사여래의 12가지 원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 이런 원리에 비추어 보면 미래의 통일한국도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원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통일문제의 이해〉(2014)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다. 이러한 목표를 국민의지로 확인하여 통일의 동력을 살려내고 국민의 원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통일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통일이 어느 해에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2015년을 국민의 통일 의지와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다.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만 안주해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 남북한관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최우선 목표는 통일이어야 한다. 분단국가로서 출발한 대한민국에게 통일은 하나의 사명이며 존재이유(레종 데트르 raison d'etre)이다. 한국의 번영이 통일추구라는 목표와 연계되지 못하고 분단에만 안주한다면 살찐 돼지처럼 굶주린 늑대의 좋은 먹이 감이 되거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에너지를 내부 투쟁으로 소진시킨다.

통일이라는 국민의 공통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한국 역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강대한 외침에 굴하지 않고 민족 국가를 유지시켜 온 비결이 바로 국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었던 것이다.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은 불교사상이지만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신라가 삼국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었던 것도 고려가 거란과 몽고의 침입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난 것도 국력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남은 배로 130여척의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군사리더십도 일심리더십이었다. 장군은 명량해전에 투입되었을 때 바로 전장으로 가지 않고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물자와 병기와 민심을 하나로 모았다. 그는 부하장병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도 일벌백계로 군율을 시행하여 군심을 하나로 모았다. 장군은 문서결재의 수결도 일심(一心)이라고 썼다.

정치에서 일심 리더십을 적용한 임금은 세종대왕이었다. 대왕의 리더십 특징은 철저한 진실규명, 토론과 소통의 중시, 적재적소에 고른 인재 등용, 근원적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리더십으로 그는 신하와 백성의 힘을 하나로 모아 훈민정음의 창제, 6진의 개척, 측우기 등의 발명 등 문화, 국방, 과학기술 등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3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이은 세 번째의 통일이 될 남북한의 통일도 이러한 일심의 정신을 살린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역량 비교와 통일 준비

통일은 남북한 양 체제의 총체적 역량, 즉 유형무형의 총체적 국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체제가 상대방을 흡수 또는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에 달린 것이다. 남북한 두 체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아이디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미망((迷妄)이다. 북한 유일사상체제의 성격상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면 국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국력은 경제력, 국방력과 같은 유형요소(有形要素)와 국민의지와 정신력 등 무형요소(無形要素)를 곱하기(X)한 것이다. 유형적 요소가 아무리 커도 무형적 요소가 1보다 적으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유명한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평가 공식 pp=(C+E+M)X(S+W)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 pp는 인지된 국력을 의미하고 C는 인구와 국토 등 국가의 외형적 규모, E는 경제력, M은 군사력, S는 국가전략(Strategic Purpose), 그리고 W는 국가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지(Will)이다. 유형요소의 총계에 무형요소를 곱해서 국력을 계산한다.

이러한 국력공식으로 남북한의 국력을 평가해 보면 외형적 규모(C)는 한국의 인구가 북한에 비해 2배 정도라 한국이 우세하다. 경제력(E)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2014년 한국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한국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1,441조 1천억 원으로 북한의 33조 8440원의 42.6배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2870만원)이 북한(138만원)의 20.8배 수준이다. 무역거래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의 무역총액(1조 752억 달러)은 북한(73억 달러)의 146배 수준이다.

경제력에서 한국의 압도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역량(M) 면에서 북한 군사력은 남한은 물론 미국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이 노동혁명 대신 반제국주의 혁명전선을 형성하고 북한 군대를 이러한 혁명의 핵심전력으로 삼는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의 군사능력을 과시한다.

국가전략(S)에 있어서 한국은 개방적인 체제이고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에서는 한국의 압도적인 우세가 분명하지만 목표추구의 일관성과 국가지도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결코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이 바뀌고 정치세력 간의 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전략의 추구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 통합력이 강하여 최고지도자가 통제기구를 철저히 장악하여 권력엘리트의 분열과 주민동요를 차단해 왔다. 미국과 같은 강대 세력에 대하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로 대응하여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 이것은 지도자의 전략과 치밀한 작전지휘 그리고 강제력이던 자발적이던 주민의 일심단결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국가전략을 실행하고자 하는 국민의지(W) 면에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붕괴 조짐과 한국에 비교한 엄청난 열세, 그리고 독재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부패의 심화 등으로 이러한 국민의지는 급속히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대를 대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남북한의 국력비교는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한국의 취약점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에서는 특히 외교력의 강화가 필수적인바, 한일관계는 역사문제와 별도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200명 정도의 규모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준비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기구에서 통일준비가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일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 통일준비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국가의 인력과 예산과 역량을 통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중시키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한 체제를 갖추면서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북한 주민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통합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서산
규정국장: 영암, 지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법성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법산
감찰2국장: 수산
감찰3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수옥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현타
복지: 향인, 화광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상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권소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6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법달
차석부의장 지족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지홍

호법원 부원장 상묵

총무원 원장 도산
부원장 호명
총무부장 대각
교무부장 상진
재경부장 정묵
문사부장 성인
규정부장 지담
전법사부장 도정
사서실장 현광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조용문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정사서실장 박덕수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총장 정병조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전화(043)423-7100 / 전송(043)420-7399 / www.cheontae.org

을미년! 희망찬 한해를 열어갑시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시방삼세하나이라
온우주에충만하여 없는곳이없으므로
가까이곧내마음에 있는것을먼저알라

총 인성초

통리원장 회정
종의회의장 덕일
현정원장 회성
교육원장 경당

대한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www.jingak.or.k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전화 02)913-0751~4, 팩스 02)913-0755

종기 44년
불기 2559년

謹賀新年

총지종은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정통밀교종단이며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 생활의 불교화'를 통하여
이 땅의 불국정토를 구현합니다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등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사감원장 법상인
총무부장 인선
재무부장 우인
교정부장 원당
사회부장 지정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성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우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시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환수원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 유지재단
전당건설 위원회
통리원 임직원

법장원
밀교 연구소
(재) 사회복지재단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각 교구 신정회 일동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大宗師

원로원장 설봉 성인
원로위원 원정 성관. 원선 체의

승정원장 원산 평신
종정사서실 홍법

종회의장 해안
종회부의장 원경 도현

종회위원 송운. 원홍. 태상.
담원. 원묘. 체명.
체선. 건우. 진영

총무원장 배진호 총무부원장 원법 해주
교육원장 혜일
규정원장 혜광
문화원장 원효
포교원장 원담 해운

전국 비구니회장 선덕
전국비구니부회장 진월
총무국장 명진

경기종무원장 보청
부산종무원장 해운
경북종무원장 성군
충남종무원장 의성
경남종무원장 우담
전라종무원장 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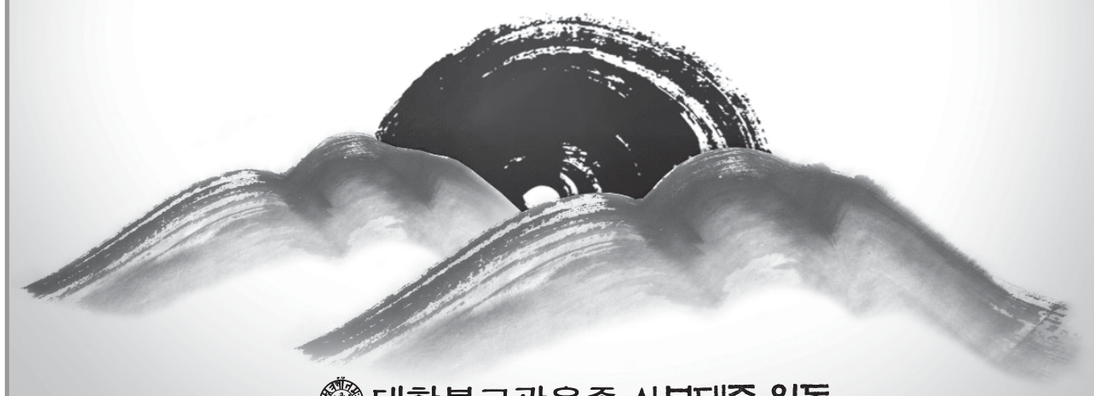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 화 :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50주년의 해

2015 을미년



미래를 열어 함께 가는 해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 63가길 31(숭인동) www.kwanum.kr T. 02-763-0054 F. 02-763-5851

작은 선행이라도 꼭 실천하는 한해 되길

새해에는 인성도야에 힘쓰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지혜로운 이는 고행을 행함이나 어리석은 이는 고생을 한다 했습니다.(智者苦行 愚者苦生)

고행은 다른 이를 배려하는 이타심의 발로이나 고생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심이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단장(斷腸)의 아픔으로 점철되었던 한 해가 가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화합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고 화합을 이룹니다.(智不責愚)

오늘날 지구상에는 화합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인류의 희망과 앞날이 여기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중의 화합을 승가의 으뜸가는 첫째 덕목으로 삼으셨으니, 화합에는 인욕이 제일도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인성도야에 힘씁시다. 우리는 내일보다 내생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잊고 삽니다. 삼독과 오욕에 가로막혀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은 일에 골몰하여 허송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시비를 떠난 중도의 인성도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성도야를 이루겠습니까. 나라는 헛된 망상을 뿌리 채 뽑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하고 이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해 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으로 온갖 분별망상이 다 재(灰)가 되어 참나를 깨닫고 나면, 만유가 나와 더불어 한 몸임을 깨닫게 되어 모든 시비와 갈등, 욕심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새해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깁시다.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계는 '악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행하지 말 것이며, 선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하라' (諸惡莫作 衆善奉行)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멀고 가까운 곳을 떠나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난과 비애를 들어주고 고통을 대신하여 앓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의 모든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동사섭을 행하도록 합시다.

한결같은 바램으로 올해에도 한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합시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와 불교계가 다같이 합심하여 '세계평화대회 및 세계고승무차선대법회' 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부터 형제자매였던 우리의 염원이 꽃을 피운다면 더 없이 좋은 시절인연이 성큼 도래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세계 속의 으뜸가는 일등선도국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온 인류에게 진리의 한 마디를 선사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 가지셔서 값진 을미년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眞金若不經爐冶면
爭得光華徹底鮮리요.

진금이 화로를 지나지 않으면
어찌 빛이 나고 철저히 고우리요.

원융회통의 새아침을 함께 열어가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을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온순한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이해심이 뛰어나고 화합을 잘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살아도 다툼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청양처럼 늘 조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동안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모두 세계가 놀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강렬한 빛만큼이나 어둠의 그늘도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경제 대국에 걸맞는 제도와 문화, 그리로 이를 엮어내는 우리의 마음들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남과 북은 대결과 갈등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지나오며 평화의 전환점을 기대했으나, 긴장 해소는 아직 큰 걸음을 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요? 민족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갈리어 서로를 겨누어 감시하고, 사회는 이념 계층, 종교, 지역, 세대가 편을 갈라 다투고 맞서는 나라를 꿈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여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는 강성한 국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신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비추어도 울림이 큰 가르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풀기 위해, 먼저 대화하고 타협하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방 70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편견과 배제를 떠나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흔연히 손을 맞잡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은 지금 한 민족인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족의 슬기로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를 헤쳐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민족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새해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공론의 장을 열어 놓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지만, 서로의 뜻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사부대중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삽시다. 고맙습니다.

사회 가장자리부터 나눔의 충만함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푸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운이 융창하고 나라가 부강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종단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보다 멀리 그리고 높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와 우리 종단도 과거 청산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높여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반성과 참회 없이는 내일의 희망을 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근본을 바로세우고 서로 노력하는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켜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나' 를 벗어버리고 '함께' 라는 더 큰 경계에 닿을 것입니다.

저마다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그 실체는 허공에 그려진 꽃처럼 언제고 사라지고 말 환상이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진실한 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눔의 충만함이 사회 가장 구석진 가장자리부터 채워져 나가길 기원 드리며, 을미년에 물살을 거슬러 헤쳐 오르는 연어와 같은 생동의 기운이 국민 여러분과 불자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성심이 중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을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량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니 만생의 기쁨이요 일체중생의 희망입니다.

을미년 새해는 온순한 양의 성품처럼 일체의 다툼이 사라지고 사고와 팔난이 소멸되어 온 인류가 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공경과 나눔으로 안으로 평온하고 밖으로 조화로운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남을 공경하면 내가 귀해지고, 내 것을 나누면 남이 나를 돕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큰 숲도 상생의 조화를 잃으면 황폐해 지는 법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진 곳에 대립과 갈등의 불길이 일어나니,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합시다.

나누고 베푸는 동사섭의 실천은 국가와 인종, 이념과 종교를 초월하는 인류 상생의 근본이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성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을미년 새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일체의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배를 탄 동업의 인연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희망의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불자들이 늘 복되고 건강하시어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고, 새해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국가와 민족이 평화롭고 안녕하길 서원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고통 속에 헤매는 이웃들이 하루 빨리 평화로운 삶을 되찾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보살의 마음으로 선근을 쌓는 복된 한해가 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듯이 올 한해는 희망차고 밝은 새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자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빠른 속도와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변화와 발전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협력과 상생에서 성취되리라 봅니다.

가시적 실적에만 비교함이 없이 위선이 아닌 진실과 진리에 순응하는, 마치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국불교를 일구고, 선입견과 독선의 자기중심 생각을 대승적 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탓을 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들은 비우고 한 배를 탄 동업의 인연으로써 어떻게 이 변화의 물결을 헤쳐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을 때입니다. 이제 불교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곧 결실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보살의 마음자리로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 기대해 보며,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일에 진력을 다해, 그 회향공덕으로 을미년 한해 안정적인 원만불사가 이루어지길 서원합니다.

아울러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항상 불자여러분과 함께하여 가정과 국가 그리고 모두가 번영하는 복지 구족한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행복의 웃음꽃 가득하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을미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의 가정마다 행복의 웃음꽃 가득하고, 무궁화동산에는 희망의 꽃 만발하여라.

지나간 세월의 부조화에 미련두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말며, 불자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참나, 이 무엇인고?' 하는 의단덩어리를 한 호흡 한 호흡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시대상은 난세지말(亂世之末)의 세정(世情)으로 법약마성(法弱魔盛) 하고, 시류(時流)는 무절제하여 급변의 소용돌이에서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불자들은 도심을 잃지 말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말과 같이 모두들 큰 희망의 등불을 향해서, 열반의 순간까지 묵묵히 나아가야 됩니다.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보배처럼 빛나듯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자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어느 한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사부대중은 지난해 못다 한 국가 발전과 도약의 기반을 을미신년(乙未新年)에는 새로운 각오와 자기희생으로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달성시키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여 정진합시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懶?恒常見大苦하니
精進處處得稱心하라
是故勤發勇猛意하면
智人以此成菩提하리라

흘러간 세월은
인연 속에 묻어 두고
내 앞을 흐르는
도도한 강물을 바라보라.
허망한 망상 벗어나 한 결 같은 정성으로
생명을 다하여 이 한 순간을 살아보라.

어디서나 부지런하면 만족을 얻게 되고
게으름은 언제나 고통만을 가져올 뿐
용맹한 마음 일으키어 부지런히 나아가라.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리라.

양의 화합과 융화력 본받아야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을미년 양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뿐만아니라 나라와 더 나아가 전세계가 경제위기, 종교갈등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 시대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모구가 해탈하는 한해가 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올해는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며 무리를 지어 살면서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입니다. 또한 무리를 지어 살기에 융화력과 사회성이 뛰어나며 공동체 내에서 잘 융합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론은 분열되어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힐난하고 있는 지금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양의 화합과 융화력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며 바른 지혜로서 이 사회를 잘해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원력으로 불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신뢰와 상승의 세상을 열자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대일광명이 을미년의 새날을 열고 있습니다.

법계의 중생들이 소담한 희망을 품고서 평화롭고 안락하게 또 한해를 살아가도록 마음이 맑은 사람들의 원력을 담아서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사바 세상에 심인진리의 심의를 열고 육자진언의 묘리로써 참회문을 베풀었으니 아상을 돌려서 공도를 앞세우고 자만에서 벗어나 은혜를 깨달으며 진각의 만다라 정토를 세워갑시다.

여야는 정리를 세워 화쟁하고 노사가 상생를 위해 화해하면 계층의 갈등이 공존의 계기로 상승하고 공영의 신뢰가 너와 나의 마음을 이어서 저마다 본분사를 다하는 나라가 열립니다.

부유가 행복을 누릴 특권일 수 없고 가난이 사회를 원망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빈부와 갑을이 서로 부조하여 예경하면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혜택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복지사회가 펼쳐집니다.

사욕을 다스려야 지도자가 되고 사심을 이겨야 인격이 형성됩니다. 공심의 심지가 굳게 자리 잡고 반목의 파열음이 화음으로 승화하는 새해의 서광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정진합시다.

羊이 무리이뤄 살듯 다툼·갈등 사라지고

양떼들이 푸른 들판을 함께 하듯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갑오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을미년 양의 해가 떠오릅니다. 새 희망의 태양으로 양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듯 우리들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 길 잃은 친구, 병든 자들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방편품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와 같은 모양, 성질, 주체, 힘, 작용, 원인, 조건, 결과, 보답 하는 것들은 하나의 연기 작용으로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연기법에 따라 상생하고 발전합니다.

기도는 불교의 무한한 가능성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다사다망했던 갑오년이 지나가고, 희망 가득한 을미년 새해의 태양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365' 일 이라는 한 묶음의 선물과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과 복을 보람 있게 쓰고 살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연습이 성공을 만들듯이 꾸준한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삶에 큰 힘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힘은 그냥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에 희망을 주는 불교돼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의지가 돼야 할 불교계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각종 범계문제로 국민적 망신을 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행자(修行者)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선학원이 지난 해 11월 3일 제2정화운동을 선언한 것도 수행자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수행자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수행자 정신을 높게 곧추 세워 한국불교가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참회없는 서원은 구업일 뿐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을미년 새해 찬탄으로 맞이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참으로 빠릅니다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도 막상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 내세울 것은 없고 모두것이 후회요 부끄러운 일들 뿐입니다. 참회가 없는 서원(각오)은 오히려 구업을 짓는 일입니다.

각자 서원이 있다면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 묻지 않고 순박했던 그 시절 그 마음이 수행자가 머물 자리입니다.

초발심자경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무명에 쌓인 중생들과 함께 우리 모두 그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지구상 구석구석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해의 행복과 번창과 평안을 기원해 봅니다.

서로 돕고 인정넘치는 세상으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을미년 새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습관들을 깨끗이 불식하고 더욱 돈독한 신심으로 원력을 다집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불국토 건설에 더욱 정진합시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남을 위해 베풀고 말이 앞서기보다는 실천을 통하여 믿음을 주고 함께 동거동락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영원한 삶을 살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있는 듯해도 없음이요, 없는 듯해도 있음이라. 간 듯해도 머무름이요, 머문 듯해도 감일지니.

이 소식을 아는 자는 걸림이 없을 터이며, 소식을 모르는 자는 진흙탕에서 헤맬 것이다.

살기 위해 죽는 자며 죽기 위해 사는 자여!

아무쪼록 부처님의 광명을 등불삼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지에 밝은 해는 오늘도 솟았건만 주인은 어디가고 객만 모여 아우성이네.

행복은 변화하니 집착 마시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무시(無始)무종(無終)으로 흐르는 한량없는 세월속에 훈습된 숙업과 업보에 끌려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 합니다.

간밤 중천에 뜬 달은 동녘 햇살에 빛을 잃었고 창공은 일색(一色)인데 달가고 해지네. 대소사 시시비비가 많았던 甲午年 영원하지 못할 많고 큰 것 찾는데에 소일(消日)을 하셨다면 그릇된 일들일랑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세. 명성은 높을수록 재물은 많을수록 근심걱정은 불어나는것.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허망한 탐욕으로 대립과 투쟁을 버리고 양보하며 부처님의 가름침에 의지하여 복되고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양과 매와 기러기의 모습처럼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양의 해는 매와 기러기 해라고 상징적 금수(禽獸)로 표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양처럼 불교가 따뜻하고 포근하며, 부드럽고 가깝게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종교보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위대한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않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없는, 삼독심을 여위면 마음, 마음의 심지(心地)가 불국토(佛國土)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관대함을 남에게도 베풀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以愛妻子之心으로 事親則曲盡基孝요.
以保富貴之心으로 奉君則無往不忠이요.
以責人之心으로 責己則寡過요.
以恕己之心으로 恕人則全交니라.

처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섬긴다면 효도가 지극하다 할 것이고, 부귀를 보존하려는 애착된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매사가 충성스러운 일이며, 남의 잘못을 말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자신에게 관대함을 남에게도 베풀 때 완전한 교제가 될 것이니, 부끄러운 말세에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나가자.

바른 정도로 묵묵히 정진을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을미년 새해는 온 세계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는 한 해가 됩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탐욕과 그로인한 대립과 반목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실천은 하루생활의 바른 수행에 있습니다. 먼저 심지를 두텁게 하여 바른 정도로 묵묵히 정진해 가야 합니다. 생각이 바르면 정도가 솟아납니다.

허물 들추지 말고 자신 돌보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不責人小過
不發人陰私
不念人舊惡

三者 可以養德하여
亦可以遠害하라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지 말고 남의 비밀을 폭로하지 말며 남의 지난 잘못을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덕을 기르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해를 멀리 해줄 것이니라. 선행 닦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도록 정진해야 한다.

매일 10번 염불로 성불합시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갑오년과 더불어 모든 어둠은 깨끗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으로 을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처처불상이요 극락정토입니다. 이같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매일 십염(나무아미타불 10번) 염불하며 일년 내내 좋은날 되시고 다같이 성불합시다.

내가 맑고 깨끗하면 중생이 또한 맑고 깨끗할 것이요, 내가 마음이 흐리면 무엇에 홀리게 될 것인즉 중생도 마음이 흐리면 무엇에 홀리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업을 닦으면 크게 깨달으며 국운이 융창해지고 만백성이 다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총화의 법화가 이제 이곳에서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鷄聲便是廣長設
山色豈非淸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擧似人

물소리 곧 부처님의 말씀이요.
산 빛깔 역시 부처님의 몸이 아니겠는가.
어젯밤 팔만사천 게송을 어느 날 어떻게 손을 들어 이 사실을 알리리요! 총화의 법화가 이곳에 펼쳐졌으니 한마음으로 수행정진하여라.
새해에는 모든 일이 원만구족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으로 동체대비 구현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을미년 새해는 몸으로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 진리의 참 뜻을 전하며, 마음으로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선악 시비 선후 본말의 인과 이치를 깨달아 우리의 복과 지혜를 키우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물질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을 살아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정화하고 민족을 위해 나아가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화합 상생하자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지나간 어두운 일들은 모두 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을 길로 힘차게 걸어갑시다.

十方同一會 各各學無爲
此是選佛處 心空及第歸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각기 하염없이 진리를 배우나니 이곳이 부처를 뽑는 도량이며 마음 비우고 급제하여 돌아가네.

행복을 중생에게 나누어 주길

(사)대불교조계종 종정 청해 스님



부처님 갑오년 가시는 길마다 중생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짐 고이접어 들고 가시옵소서.

을미년 오신는 길마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 들고 오시옵소서.

가시고 오시는 길 항상 그 자리에 있건만 중생들은 가고 오심을 그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비스러운 부처님, 행복하신 부처님, 즐거운신 부처님, 중생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옵서서. 부처님 가고 오시는 길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경험을 지혜로 잘 살리길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智者調身 弓工調角
水人調船 材匠調木
智者調身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다룰줄 아는 사람이다.

활만드는 사람은 활을 잘다루며 물가에 사는 사람은 배를 잘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잘다루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다룬다.

그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잘 되살려서 새해에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2015년 새로운 한 해동안 멋진 행운의 한해를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불국토 만드는 불제자 됩시다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을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고승대덕 사부대중께 고합니다. 불교의 진리는 생사해탈이 목적이며, 한마음 깨달음에 있다하니, 평등한 성품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커다란 거울에는 대소분별 없습니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것 참공부라 하시니 이 마음 칼날 세워 대한민국 불교통일 단결하여 이 땅에 부처님나라 불국토 운동을 전파하는 불제자가 됩니다. 가는길에 용맹한 사자처럼 곳곳마다 일어나서 다함께 호국불교 일으키는 포교대사 서원합니다.

나무불 대방광불화엄경. 나무법 묘법연화경. 나무승 아미타경

인내로 정진하면 무근수 꽃피리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이 아무리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정진하면 무봉탑(無縫塔)에 등불이 훤하고 무근수(無根樹)에 꽃이 피리라. 어떠함이 새해에 마땅히 할 일인가. 나무 닭 한소리에 꽃이 스스로 붉구나. 아집과 편견으로 얼룩진 지난 한해의 어두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화해와 용서로써 화목하여 풍요와 진실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 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편견과 아만, 정쟁을 멈추고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화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양보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청정불사가 원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흐르네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부처님의 바람을 한 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이 한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먹구름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며
망망한 바다에 큰 파도가 일듯이
부처님의 불법의 하늘과 바다. 임제종에 넘쳐 흐른다.

부처님 법에 따라산다면 모든 일이 무사형통할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짓지않는 한해가 됩시다. 신년 을미년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화합과 나눔이 시방세계에 널리 퍼지길

신령스런 산하대지, 국운 빛나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眞心法語 頓悟眞心

신령스런 새해가 밝아오니 육도가 모두 한꺼번에 사라지고 남산은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온대지가 하나의 가람이구나. 상락아정(常樂我淨)이로다.

본성이 곧 법신(法身)임을 깨달으며 본래생함이 없거늘 의탁할 곳은 있겠는가. 신령스럽게 밝아 어둡지 않고 항상 분명히 알면 어디서 온 곳도 없고 어디서 갈 곳도 없다. 산하대지(山河大地)가 일천광국(一千光國)이로다. 산하대지가 신령스러워 국운이 빛남이로다. 새해에는 청정심을 되찾아 자신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기운이 모두 융창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참회하십시오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마음에 죄의 인연 없애려 하면 성품 가운데 참으로 참회 하십시오. 배움에 항상 자상 관하면 즉시에 부처님과 한 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법상을 떠나서 마음 씻으면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마세요. 뒤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쉬리라. 이 게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 할 것입니다. 갑오년을 보내고 을미년이 밝아옵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바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참고 하면 일제 모든 것을 새로운 각오로서 대처하고 단결하여 나아가면 오는 앞날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자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중생은 부처가 아니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갑오년 묵은 해의 허물을 훌훌 털어버리고 을미년 새해 깨달아 고쳐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한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보는 불자가 되어서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을 알고 먼저 체가 되는 내 허물을 고치어 그 그림자도 자연히 바르게 되도록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삶의 텃밭에서 나의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고 전념하여 수행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새 생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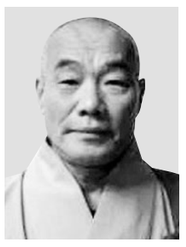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금년 을미년은 그 힘찬 기운으로 불자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어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펼치는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혹하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지혜로운 불자라면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중생들이 번뇌로 혼란에 빠지고 병에 들어 헤맬 때 부처님께서는 이를 치유하게 하는 약을 주셔도 중생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알고 유언으로 방편을 쓰고 중생들로 하여금 이 영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영약으로 새 생명을 얻고 바르게 정진해 갑시다.

공부합시다. 정진합시다.

(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덧 없는 불꽃이 온 세계를 살라버린다' 하시고 또 '중생들 고통의 불이 사면에서 함께 불타오르고 있다' 하시니 수도인은 마땅히 스스로 깨우쳐 머리에 붙은 불을 끌지어다. 요즘 일어나는 사회 부조리 현상들은 오계 실천 운동으로 정화합시다. 우리 국민이 부처님을 잊어가고 염불을 잊어가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노래가락이 없어지고 흥이 없어졌습니다. 백년의 꿈을 깨고 오늘 나를 깨달아야합니다. 공부합시다. 참선합시다. 염불합시다. 정진합시다.

스스로 높다고 뽐내지 말라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霜松潔操하고 水月虛襟이니라.
서리내린 소나무와 같은 맑은 지조와
물에 비친 달과 같은 텅빈 마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 날 수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구를 새기다 보면 어느 듯 봄 눈 녹듯이 사라져 갑니다.

自不屈 自不高. 바로 선가귀감과 있는 문장입니다. 스스로 높다고 뽐내지 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대 성인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작은 실천 쌓여 큰 일 이루길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水水靑水 靑靑水靑
靑山流水 刮目來
世上永遠 老不老

물은 물이되 푸른 물이요. 푸르고 푸른데 물이 푸름이로다
앞 뒤 흐르는 물 눈을 부릅뜨고 보니 세상은 영원하고 늙으면서 아니 늙네. 산속 조그만 개울물이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듯이 을미년에는 새해 결심한 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일을 이루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참회의 새 마음으로 새 해를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갑오년을 보내고 을미년 새해를 맞습니다. 본래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가 없으나 세간사에 있어서는 지난날을 돌이켜 참회하고 새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새해 새날아침 참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마음속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바른 정진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됨을 바로 알고 세상 모든 존재와 또 나 자신과 화합해 가도록 합시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찾아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속에 반야종지를 심자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의 의지를 세우고 위없는 불도를 구하는 불보살이 되길 기원합시다. 우리 불자들은 글에만 집착하지 말고 곧 바로 본 뜻을 알아서 낱낱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근본 종지에 부합한다면 스승 없는 지혜가 자연히 나타나고 천진한 진리가 또렷하여 뛰어난 끈기를 지닌 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방일한 생각, 탐욕에 집착치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공부에 정진합시다.

마음이 소멸되면 참 진여 이뤄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光明寂照遍河沙
凡聖含靈共我家
一念不生全體現
六根　動被雲遮

고요히 방석 위에 앉아 좌선에 몰두 하니 지혜의 빛이 온누리 기득하니 범부와 성현은 차별이 없어져 평등한 세상이 열려 지드라. 한 생각 분별하고 차별심이 사라지면 부처의 도리가 나타날 지니, 번뇌와 망상하는 마음만 소멸되면, 참 진여를 이루어 성불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나를 버리고 열반 증득을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若知我空 無毁我者이요
有我說法 我未斷故니라

중생이 분노를 일으킴은 탐욕이 크기 때문이며 탐욕이 일어남은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이니라.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나' 라고 하는 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름에 있느니라. 중생이 생사를 해탈하지 못함 또한 나를 좋아하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내가 없음을 안다면 나를 훼손할 일도 없느니라.

내가 있어 법을 설하는 것도 아직 나를 끊지 않았음이니, 새해에는 모두 나를 버려, 자성청정으로 보리열반을 증득하시라.

어려운 이웃 살피는 참된 회향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을미년 새해 새날아침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함께 합니다. 떠오르는 밝은 태양처럼 우리 불자님들은 환골탈태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 한번 잘 쓰면 부귀영화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의 세계요 불국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잘 사용하여 어떤 마구니라도 물리칠 수 있도록 참다운 법을 굴려서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2015년에는 남의 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참된 회향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진치 훌훌 버려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衆善奉行是好日
行作惡業常凶日
悉願成就多福年

착한 일을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흉한 날이 될 것이다.

바라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해가 되소서. 신구의 삼업 버리고 또 버리니 청정한 마음이네. 신년에도 탐진치 어두운 마음 헐헐 버려라. 밝은 한해도 맑은 바람, 고요한 이 마음 이 모든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놓아버림으로 청정심 되찾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삼천대천세계의 유정과 무정의 중생들이 다함께 눈물을 흘렸던 묵은 해의 고통을 쉽게 잊니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울음을 거둘 때입니다. 사바세계를 고해라 했습니다. 그 첫째 덕목으로 부처님께서 '보시를 행하라(행어보시)' 고 했습니다. 보시란 '놓아버림(방하)' 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건강한 삶이 영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성과 계합하면 고통서 벗어나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을미년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은 온순하고 순박합니다. 이렇듯 을미년에 넓게는 지구촌에서 가깝게는 가정, 개인에 이르기 까지 갈등과 반목이 없는 평안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서 실체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고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성만이 진정한 본체(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과 불성이 계합한다면 이 사바세계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변함없이 정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살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은 부처가 아니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마음 비워서 자유스러운 삶을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밝은 새해 태양빛 같이 본래 청정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밧줄도 없는데 스스로 묶고 온갖 고통을 다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 끄달리기 때문이죠. 물에 비친달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이 청정한 불성을 우리들도 찾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항상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생활 할 때만이 피안의 불국토에 이를 것입니다.

아집과 집착을 버립시다

한국불교원융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을미년 새해 불자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생과 원융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집과 집착에 물든 나는 가짜 나 이며, 생멸이 있으니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내 속에 있는 불성만이 영원한 나, 자유로운 나이다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의 불성을 찾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한 무더기의 뼈에 절을 하셨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생에 내 부모 아닌이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은 모습은 다르나 모두 다 한 가족이었으니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옳으니 그르니 싸우지 맙시다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스님



옳으니 그르니 싸우지 맙시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피하지 말며 끝까지 옳다거나 그르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함도 안되나니, 그 자리에서 한 마디를 일러 보거라.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지우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누나
한 마음으로 염불하여 억겁의 업장이 소멸되니
제불보살 찬탄하고 육도중생 춤을 추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 찾자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을미년의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묶은 해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도 모두 던져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한해를 시작합시다.

삼천대천세계의 유정과 무정의 중생들이 다함께 눈물을 흘렸던 묶은 해의 고통을 쉽게 잊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울음을 거둘 때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기원을 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보시를 행하라(行於希施)' 고 했습니다. 보시란 '놓아버림(放下)' 입니다. 새해에는 보시를 통해 본래청정한 우리의 마음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대로 수행… 청정승가 구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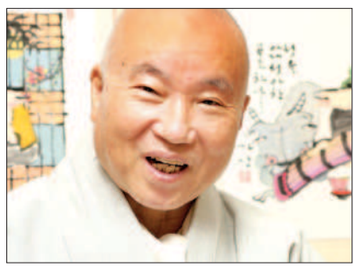
한국불교 그 쇄신 방향은?

한국불교에서의 희망은 무엇일까?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일이다. 즉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불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단순한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쇄신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주〉

해방둥이 법산 스님 희망 인터뷰

"스스로의 허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그동안 한국 불교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자주 독립을 구가하고 있지만 정화의 방법과 수단이 정당했는지, 또한 정화 이후 조계종이 얼마만큼 수행종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또 스님들 각자가 성직자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로 올해 고희를 맞는 법산 스님〈사진〉으로부터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스님은 대만 불교의 예를 들며 한국의 승려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대만 불교도 우리와 같이 해방을 맞아 불교를 지켜왔지만 내홍 없이 청정승가를 회복해 사회적으로 귀의 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계종 역시 비구·비구니계를 받아 성직자로서 직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스승으로,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어 스님은 끊이지 않는 범계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승려의 신분으로 골프, 도박, 음주 등 범계 행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승려들이 종단의 일선에서 힘을 발하고 있으니 범계 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러니 누가 불교에 귀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범계 행위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스님은 현 집행부가 진행해오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안으로부터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 동안 자성과 쇄신 결사는 수행자 스스로의 자성이 아니고 사회적 자성을 일깨우는 일에만 힘을 쏟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사회의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청정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로부터 불교가 그리고 스님이 존경 받기 위해서는 스님들 개개인이 수행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법산 스님은 강조한다.

대만, 청정승가 회복 운동 모델
교육과 포교사업 개선 시급

또한 한국불교의 쇄신을 위해서는 교육과 포교 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한다. "현재, 한 해 출가자가 200여 명 되는데 평균 연령이 40대로, 20대는 10% 정도에요. 출가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학력 수준도 사회적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이들도 많아요. 나이 들어 출가한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의 업식을 바꾸기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런 현실에서 출가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 시키고 각자의 재능을 어떤 방향으로 발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
'부처님 가르침 따르기'가 쇄신의 근본

"조계종 등 불교계는 각 종단 조직과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부로부터 의식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정법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한국불교계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저하되고 쇠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가 만들어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의 오류와 지도력의 한계, 장악력의 실패 등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다"고도 평가했다. 현재 한국불교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복 중심의 불교 신행 형태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단 각 조직이 서로 유기적 짜임새를 이루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승려의 무소유 정신과 희생정신의 함양을 통해 출가정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운문승가대 강사 일진 스님
"승가교육 바로 서야 한국불교 미래 있어"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을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말하고 현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면모들은 과거를 올바르게 살지 못한 기득권 스님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운문사 주지소임을 내려놓고 운문승가대 강사로 돌아온 일진 스님은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스님은 선배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후배들도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운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득권 스님들이 현실과 타협해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배들 또한 이를 답습한다고 생각해요. 선배들이 피나게 수행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후배들도 감동을 받고 따라가지요. 그간 불교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비구니 스님들도 전국비구니회 내홍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종단의 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승가교육이 제대로 서야 우리 불교가 바로 설 수 있으며 스님 개개인의 삶이 청정해야 불교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한국불교 정체성 고찰이 필요하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문제는 외형이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불교를 보면 지난 10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그 발전은 제도적 측면에 국한된 것입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잘 살펴보면 조선 500년을 비롯해 한국불교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사상의 발전과 정체성 찾기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혁은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닌 내용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불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스님들의 범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 범계가 아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 운전, 도박, 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불교의 사회적 실천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과 재가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신성민 기자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
"인재양성·스님 자기계발이 쇄신의 길"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은 한국불교가 쇄신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재양성과 스님들의 자기계발, 그리고 각 지역과 사찰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 개발이다.

김 회장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재가불자들을 키워야 한다"며 "더 나아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불교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불교인재 양성을 이끌어내려면 스님들의 자기계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가신도를 키우려면 스님들도 시대에 맞는 자기 계발에 신경 써야 한다. 젊은 불자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 방법들을 스님들이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범계행위를 하는 스님들과 감투 쓴 일부 스님의 행태가 선량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힘들게 하고 한국불교의 쇄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은 "스님들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재가불자들과 교계 단체들을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사회적 실천 통해 쇄신 이뤄내야"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불교의 쇄신은 사회적 실천과 함께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율을 제대로 지키고 부처님법으로 돌아간다면 고해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쇄신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면 불교 역시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 활동을 일회성 행사로 전락시키지 않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스님들마저 상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노동, 빈곤 등에 관심을 가진 교역직 스님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실천위원회가 되었든 노동인권위원회가 되었든 상설전문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톨릭에서 사회적 실천을 담당하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를 이끄는 신부는 주교급"이라면서 "그 산하에 노동사목위원회와 빈곤사목위원회등이 전국 교구별로 다 있다. 우리로 치면 교구본사별로 이러한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현실에 맞는 포살계문 제정해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은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내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기존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고 도전하기에 갈등과 반목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갈등과 반목을 드러내고 해결하려는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중심이 없다는 것에 있다"며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 적법하게 다루지 않는 것, 계를 지키지 않는 스님들께 여전히 보시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묻고 답하고 해결하는 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 말로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불교의 쇄신을 위해서는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과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 맞는 포살계문을 제정하고 종단의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권을 인정하고 재가자 또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부대중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원로원장 혜공 종회의장 혜륜 총무원장 법수
재무원장 무착 포교원장 도안 총무부장 도일

범음범패교육원장 법수 승가종법사대학장 원해
비구니범음교육원장 법관 승가종총본산승가사주지 선견
월인문도회문장 법종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산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루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종도일동



(사)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 총무원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번지 ■ 전화 051)552-8554. 556-0278~9 / 팩스 051)556-8551

격랑의 근현대… 길잃은 한국불교

한국불교 70년 전개 ㊦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고 불교 또한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고 민족종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조국 광복과 독립국가의 탄생이라는 장미 빛 희망으로 가득 차있던 1945년 9월에 불교계는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조선불교 혁신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교단의 향후 방향성과 노선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결과 사찰령과 같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선언하고 중앙교단기구의 설립 및 교헌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때 제기된 교헌의 핵심 내용은 교도제 시행과 사찰 재산의 통일, 수행정신의 선양과 비구승단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의 불교

총독부를 대신한 미군정청은 근대국가의 기본원칙인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신교와 천주교만 공인 종교로 지정하는 기독교 중심의 편향적 공인교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1945년 11월 2일 군정 법령 제21호에서 아직 폐기되지 않은 구법령은 존속한다고 하여, 본사 주지의 인사권과 사찰의 재산 처분권을 조선 총독이 행사한 사찰령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당시 조선불교 중앙 총무원과 교무회는 미군정에 사찰령의 폐지를 계속 요구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1946년에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종교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한국이 기독교 문명권에 속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조치였다. 석가탄신일이 1975년에야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특혜임에 분명하였다.

미군정은 개신교, 천주교 인사들을 대거 군정청에 임용하였고 일제가 남긴 귀속재산, 즉 적산으로 분류된 일본불교 각 종파의 사찰과 소속 재산도 한국불교 사찰에 그대로 양도되지 않았다. 미군정은 사찰령의 존속과 사찰재산 임시보호법의 시행을 일본불교 재산의 귀속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하였고 사찰령에 의해 사찰 재산 처분권을 행사하였는데, 한국에 있던 일본불교 사찰과 그 재산이 교회로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1932년 장충단 공원의 부지 일부를 양도받아 건립된 박문사의 경우 해방 후 불교계 혜화전문학교의 기숙사로 쓰이다가 1947년 과도입법의원회의 결정에 의해 장충단 지역의 관유지로 귀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평성을 잃은 종교정책이 시행된 결과 해방 직후까지 세력이 미약했던 기독교는 미군정 하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승만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기독교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욱이 '기독교 이념에 기초한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특히 개신교와 선교사들에게 파격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결사와 정화, 변화의 움직임

이러한 상황임에도 본사 주지 등 불교계 주도세력은 대처승 중심의 교단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파인 혁신세력의 일소를 위해 이승만 정권 초기에는 정부에 우호적으로 협력하였다. 불교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사찰령 구제의 철폐, 적산사찰 귀속 문제 등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고 기독교 편향정책에 대한 불만도 자제하였다. 해방 이후 교단 내부에서는 식민지 잔재의 척결과 불교 개혁을 주장한 혁신세력과 본사 주지 등 보수적 기득권 세력이 서로 대립하였는데, 재정투명화, 사회평등 등의 구호를 내세운 혁신세력이 좌익으로 치부되면서 교단 개혁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친기독교 정책과 반공주의는 불교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쳤고,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친일불교 청산과 자주적 종단 건설의 꿈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편 해방 이후의 혼란한 정치 · 사회적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일어난 자생적 움직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비구 수행승들이 주도한 결사운동을 들 수 있다. 청담(1902~1971)스님과 성철(1912~1993)스님 등이 1947년에 일으킨 봉암사 결사가 대표적인데, 이는 교법과 계율에 근거한 선수행 실천을 목표로 하였고 자주, 자생, 자립을 모토로 하였다. 비록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지만 수행 및 계율 전통의 회복과 승려 노동을 포함한 교단의 자립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봉암사 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백양사 만암(1876~1956)스님이 1947년에 결성한 고불총림도 독자적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만암스님은 당시 불교계가 분열되어 있고 선의 종맥 계승의식이 부재함을 지적하면서 식민지 불교체제에 안주하여 정화에 미흡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계율 수지와 출가 전통 회복을 통한 교단 재정비를 추진하였는데, 대처승이 교단을 주도하고 있던 현실을 인정해 비구=정법, 대처=호법으로 구분한 통합종단의 형태를 추구하였다. 또한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청정수행비구들이 운영하고 향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정화를 이루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고불총림 청규에는 승려 자격, 일상생활 및 수행, 의무와 상벌, 재산관리 등이 규정되었다. 고불총림은 처음에 백양사를 중심으로 22개 사찰에서 시작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는데, 이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동력을 잃게 되었다.

1949년 6월에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1950년 3월에 그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자경농의 농지 소유를 원칙으로 한 유상매수와 유상분배가 이루어졌다.





1954년 서울신문의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정화 희망 기사(사진 왼쪽)와 1960년 11월 19일 제2회 전국승려대회 이후 진행된 비구스님의 시위대열(사진 오른쪽).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촉발된 정화운동은 민족불교 복원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가져왔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불교는 근현대의 틈바구니에서 갈길을 잃고 방황했다. 사진=〈한국불교 100년(민족사 간행)〉

광복 기쁨도 잠시 美군정 집권
친기독교 정책에 불교는 '찬밥'
봉암사 · 고불총림 결사 등
변화 위한 자생적 움직임 전개
이승만 담화에 촉발된 정화 운동
비구 · 대처 양분돼 지난한 갈등
결국 통합종단 출범하며 마무리
권력 개입에 불교는 민족종교로서
사회적 지위 잃고 부정 이미지 각인

당시 종단의 교정이었던 만암 스님은 수행승들의 생활고와 수행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54년 4월 비구승들에게 전통사찰 18개를 내준다는 방침을 정하였지만 대처 주지들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이즈음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지지 담화가 발표되었다. 즉 1954년 5월 사찰 내에서 대처승을 축출하라는 대통령 유시가 내려졌고 이후 1962년 4월까지 8년에 걸쳐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이승만은 "일본인 중의 생활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나라 불도에 위반되게 행한 자는 이후부터 친일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으니, 가정을 가지고 사는 중들은 다 사찰에서 나가서 살 것이며 우리 불도를 숭상하는 중들만을 정부에서 도로 내주는 전답을 개척하여 지지해 가게 할 것이니 이를 시행하기를 지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정화운동이 시작되자 불교계는 종권과 사찰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처와 비구 사이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큰 내홍을 겪게 되었다. 1954년 8월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에서 비구승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장을 올리자는 안건을 채택하였고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에서 비구승이 교단운영을 주도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사찰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대처측의 반발이 극심하였지만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였다. 대신 비구승들을 수행승, 자신들을 교화승으로 이원화하여 비구승에게 일부 수행사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즉 표면적으로는 정화에 찬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승려자격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승려대회를 통해 종권이 비구 측에 넘어가게 되자 이들은 교단과 사찰을 빼앗겼다고 하여 법적 소송을 벌여나갔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난 불교정화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비구승 중심의 수행 및 계율 전통 회복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표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 우위 정책에 입각하여 정치적 반대파가 된 불교계 실세 대처 주지들을 제거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개입되었다.

통합종단의 출발, 그러나…

1960년에는 4.19 민주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였고 이에 대처 측은 비구승 측을 관제 불교단체로 규정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사찰령 구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당시 대처 측의 사찰 재진입과 함께 법정에서의 운영권 승소 사례가 빈번해졌고, 이에 대한 비구 승려의 할복기도와 법원 난입 사건 등이 터지면서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하기도 하였다.

1961년에는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은 비구측과 대처 측 어느 쪽도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찰령에 의해 의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단일한 종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불교를 재건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비구와 대처 양측이 참여하여 분교 해소와 단합 및 자율을 내세운 불교재건위원회 재건비상종회를 열게 되었다. 그 결과 1962년 4월에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성립되었다. 대처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통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통합종단의 근거를 공인하였고 결국 승려 자격에 대한 양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1962년 5월에는 사찰령을 계승한 불교재산관리법이 통과되고 그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재산 관리 뿐 아니라 불교 단체 등록 및 운영을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당시 조계종단은 종권 및 사찰관리권, 종단의 정체성을 정부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에 적극 찬성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가에서 불교를 관리, 통제하는 사찰령 체제의 연장선이었고 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에는 대처 측이 별도로 태고종을 설립하여 통합종단에서 탈퇴하였고, 양측의 대립과 분쟁은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불교정화는 식민지 불교체제에서 형성된 대처승과 본사 주지의 전횡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대개 대처승들이 본사 주지를 맡고 교단을 주도하면서 불교가 세속화되고 교단 상층부의 부패와 타락이 발생하였으며 반대로 비구 수행승들은 배척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해방 이후 불교는 사회와 민족에 기여하는 대중불교, 민족불교로 거듭나야 했지만 식민지 잔재의 지속과 수행 및 계율 전통의 위축이라는 현실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정화는 시대의 필연적인 과제였지만, 교단의 주체적 자정 능력 부재와 정치권력에 의한 행정권, 사법권의 개입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동시에 떠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체 승려의 10%도 안 되는 비구승들이 처음으로 사찰 및 교단 운영을 전담하게 되면서 수많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불교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는 이들이 대체인력으로 갑자기 승려가 되는 등 인적 수준의 급격한 저하가 일어났다. 수행 비구가 조계종을 주도하면서 선종 전통의 우위성은 확고해졌지만, 교학, 의례, 문화 등 다양한 불교전통이 단절되고 축소되는 부작용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정화과정에서 일어난 분규와 폭력은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사찰을 운영하던 대처승들이 밀려나면서 학교, 사업체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찰 재산을 빼돌렸고 서적, 문화재 등을 반출하여 경제적, 문화적 손실 또한 매우 컸다.

이처럼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불교는 격랑의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파동과 부침을 거듭하였다. 비구와 대처의 대립, 승려의 본분과 현실 권력의 긴장관계, 전통과 근대의 이중주는 갈등과 모순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도 주체적, 자율적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타율적 조정과 교단 내의 분쟁으로 점철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전통종교, 민족종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위를 상실하였고 위상 또한 크게 추락하였다. 정화의 이면에는 권력과 재부를 둘러싼 다툼과 폭력, 인적 수준의 저하 등이 도사리고 있었고 비폭력과 청정함을 내세워야 할 불교는 상당 기간 그 반대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묵은 한해를 보내고 을미년 새해를 맞으면서

갑오년 한해를 보내고 을미년 새해를 맞으면서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실존에 대해 현지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음 안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불과를 증한 붓다님들은 여여히 계십니다.

대적정삼매에 들지 못하면 불신(佛身 : 보신과 법신)을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공성(空性)의 증득만으로는 성불(成佛)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성의 증득과 더불어 절대계(물리학상으로 11차원)에 자기 보신(報身)을 얻어야 불과를 증했다고 할 수 있다는 〈법화경 비유품〉 말씀도 그렇고, 또 〈화엄경〉의 전체 주제가 보신부처님을 법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붓다 중의 붓다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10만송 반야경〉과 〈2만 5천송 반야경〉에서는 '모든 털구멍으로부터 무수한 눈부신 광선(백천억 색깔의 무량광 빛)을 방사하여 갠지스강 모래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비추어내고 있는' 더 없이 찬란한 신체로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지(全知)하시고 만능자재(萬能自在)하신 부처님은 상적광세계에 32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분명히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교주 불세존 석가모니부처님의 우주적 구원력을 믿으시고 염불정법으로 귀의하여 윤회를 벗어나고 삼계탈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불이 정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화신(천백억화신)에 대해서는 〈붓다의 메시지 Ⅰ · Ⅱ〉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사 자재만현 합장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2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민첩하여 하나를 들으면 만을 알고 장래 일을 미리 예측하며 순간순간의 행동이나 판단에 막힘이 없다. 〈출요경〉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김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담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월. 보일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보상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은 사회부장 자운 포교부장 무진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륜 교무국장 보선 사회국장 정혜 의전국장 정목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보성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무각 포교부장 서희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대원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광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광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학장 대원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53-5858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석진 지공
원로의장 학산 혜천
재단이사장 총무원장 경원

원 로 : 무찰. 봉암. 혜운. 원각. 동봉. 덕봉. 혜성. 원각. 해월. 대륜

재단이사회
재단부이사장 일명
재단상임이사 혜광
이 사 혜운 경담 법도화 자비행
감 사 혜천

종회의장 법선
종회부의장 고봉
종회의원 도혜 도정 석경 지연 일명 청호 무착 혜등 혜일 보은

호계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해
포교원장 현암
감사원장 석성
총무부원장 용운
총무부장 승원
교무부장 경담
재무부장 일명
홍보부장 해동
총무국장 원공
재무국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 보해
경기남부 대각
경기북부 도허
경북교구 법경
경남교구 승원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경담
부산교구 령산
울산교구 도현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충남교구 호암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일붕선원 1층 / 전화 (02)991-8175,8904
전송 02)991-8176 www.ilbung.org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담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회 장 송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향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법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일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총무원장)
정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대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 031)675-0307, 676-3960 / 회장 핸드폰 010-8930-1578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암.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헌화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 원 장 법전
고시원장 혜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도인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대안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구달.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고운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석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수원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대안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법기 무여 고시원장 법전 법현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서울종무원장 교령 경기종무원장 무상 강원종무원장 탄해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성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원봉
총무국장 화련 사회국장 화선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내홍 끝 화합… 광주 불교계 첫 송년법회

광주불교聯 2014송년의 밤 행사

광주불교계 최초로 한 해를 회향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모았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와 빛고을나눔나무는 공동으로 구랍 1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4 광주불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광주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 50여개 불교신행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광주지역 불교언론인 모임, 불자 기업인, 지역 국회의원(박주선 의원, 박혜자 의원, 임내현 의원) 등을 비롯한 불교지도자 25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2014년을 회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년간 큰 혼란을 겪었던 광주불교가 이번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화합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큰 의미를 가졌다.

송년의 밤 행사는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각계 대표들의 축사, 광주불교연합회의 올 한해 활동상을 회고하는 영상물 상영에 이어 시상식과 내년 빛고을 관등회 행사 일정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고, 올해 우수불자에 대한 시상과 지난 11월 창립한 빛고을나눔나무 기부약정식과 만찬이 이어졌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올해의 '빛고을 불자대상'에 '차이나궁'을 선정하고 상패와 금메달을 수여했다. 빛고을 불자대상은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광주지역에서 가

문화공연 · 우수불자 시상식 등
빛고을나눔나무 기부약정식도
2015년 봉축일정 발표 '눈길'

장 열심히 포교활동을 진행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난 11월까지 각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며, 매년 1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을 받은 차이나궁은 올해 광주전남지역 불교행사와 군법당, 불교계 무료 식당 등에서 가족들이 참여해 자장면 2만 그릇을 무상으로 보시하며 봉사활동을 해왔다.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는 공동으로 구랍 1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4 광주불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혜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공모사업에 가장 우수한 행사를 펼친 동원사(주지 지장)에 우수상이 전달됐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2015년 봉축 일정을 발표했다. 기획단장을 맡은 시각스님은 "내년 행사의 주제는 '견우와 직녀의 생명이야기'이며, 5월 1일 문화전당앞에 20m 크기의 봉축탑을 점등한다"라고 말하며, "올해에는 전통등 전시회, 관등법요식, 대동한마당, 시민문화한마당, 봉축한마당 등 5개 마당으로 구성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혜 밝혀 보살도를 실천하길"

통도사, 구랍 22일 화엄산림 첫 법회 봉행

통도사(주지 원산)가 화엄 세계의 첫날을 맞았다. 통도사는 구랍 22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사부대중 30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설법전을 채웠다.

입재 법문에서 방장 원명 스님은 "화엄의 세계를 여는 첫날"이라며 "각자의 지혜를 밝혀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현보살의 지혜를 얻어 여러분들의 원력이 성취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원명 스님은 "법회에 참석해 법을 알면 마음이 달라지고 지혜롭게 된다"며 더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19년 동안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한다는 정귀순(52 · 부산 덕천동)씨는 "19년 전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들을 극복하고 싶어서 법회를 참석했었는데 법회를 통해 많은 지혜를 얻은 거 같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자신이 변하고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선택하며 삶이 부드러워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 인거 같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또한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를 위해 통도사 불교청년회, 염불공덕회, 포교사회 등 통도사 각 신행단체들도 참여, 질서 유지 및 안내 등으로 봉사해 순조롭게 법회가 진행됐다는 평이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에서 방장 원명 스님의 입재 법문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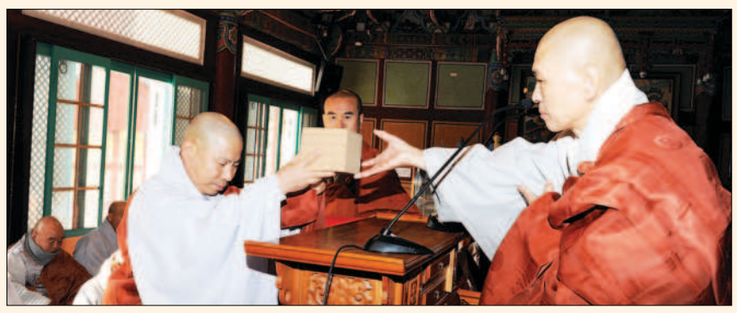
이날 봉사에 참여한 통도사 청년회 회장 김주수씨는 "봉사를 통해 감사함의 마음을 배우게 됐다"며 "화엄산림법회를 돕는다는 거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2015년 1월 19일 회향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중 화합 위해 원융산림 만들어 가겠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에 원일 스님 취임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사진 오른쪽)으로부터 백양사 직인을 전수받고 있는 원일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 주지에 원일 스님이 취임했다. 백양사는 구랍 21일 대웅전에서 백양사 문도스님과 이계호 국회의원, 박공식 신부,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주지 취임을 봉행했다.

행사는 명종에 이어 불교의례, 고불문, 내빈소개, 수행이력, 취임사, 축사, 청법가, 직인전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임 주지스님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백양사를 안정시켰다. 새로운 주지스님과 함께 백양사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일 스님은 취임 후 인터뷰를 통해 "방장스님을 비롯해 어른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들이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하겠다. 더불어 대중의 화합을 통해 원융산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안사업에 대해 △백양사의 새로운 문화공간인 수석박물관 활성화 △500나한전을 복원 △철야정진 법회를 활성화 △종립 정광학원 정상화 등을 밝혔다.

원일 스님은 1978 백양사 벽상 스님을 은사로 입산. 1980년 수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1985년 해인사 강원과 1994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해인사, 봉암사 등 선원에서 수행했다. 15대 중앙종회의원과 백양사 재무, 호법, 기획, 부주지를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정중학교, 학부모 위한 송년법회

12월 23일 학부모 · 교사 100여 명 참석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반야원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송년법회가 개최됐다. 12월 23일 금정중학교 반야원에서 열린 법회에는 현익채 前교장, 정진완 교장 및 금정중학교 금정반야불자회 학부모 및 학생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로 예불, 학부모들이 직접 올리는 육법 공양 및 경주 중흥사 불이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다.

금정반야불자회 회원이자 반야원 총무 서윤숙(60)씨는 "신행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의 인성이 자리 잡고 편안하게 불교를 접하는 아들을 볼 때 이 학교를 보내길



정말 잘했다"며 "아이를 보면서 학부모 불자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정중학교 학부모 불자회 금정반야불자회는 97년에 창립,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정기 법회 및 신행 수행을 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완주 송광사 청년회, 자비의 연탄 배달

송광사 청년회가 한겨울 추위를 연탄 한 장에 의지해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연탄을 전달했다.

완주 송광사 청년회는 구랍 23일 소양면 관내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자비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비의 연탄 배달에는 송광사 황전 스님, 도무 스님, 정현석 송광사 청년회장, 홍광문 전북불교발전협의회장 등 송광사 불자 20여명이 동참했다. 송광사 청년회 지도법사 도무 스님은 "청년회원들



이 연탄배달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하게 됐다" 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도 신흥사 '몰래 산타'로 소외이웃 돌봐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행사 추진… 200여 명 지원

완도 신흥사(주지 · 법일)가 '2014 완도 사랑의 몰래산타' 활동에 적극 동참해 완도지역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전달했다.

'차별없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완도 사랑의 몰래산타'가 올해 독거 어르신 50여명과 조손가정 · 다문화가정, 편모 · 편모가정 아이들 150여명을 지원했다.

완도지역 종교 · 시민사회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본부는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선물과 사랑을 전달했다.

신도와 부설단체 회원을 이끌고 참가한 법공 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교회, 절이라고 따로 경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내년엔 불교적인 색채를 융합시켜 보겠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몰래산타' 행사를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신흥사는 '완도 사랑의 몰래산타' 출범 초기부터 6년째인 올해까지 법일 스님이 공동대표로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신도회원 20여명과 함께 부설 장보고 아카데미가 적극 결합해 법공 총무스님 이하 운영위원과 가족들이 10여명이 '사랑의 몰래산타' 전체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해 차별과 소외를 넘어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이어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도 신흥사가 '사랑의 몰래 산타' 활동에 동참해 완도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고자
[전통문화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아카이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사진을 자료화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사진을 기증해 주실 단제 혹은 작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 수상작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상지 (02-2011-1770, psj002@buddhis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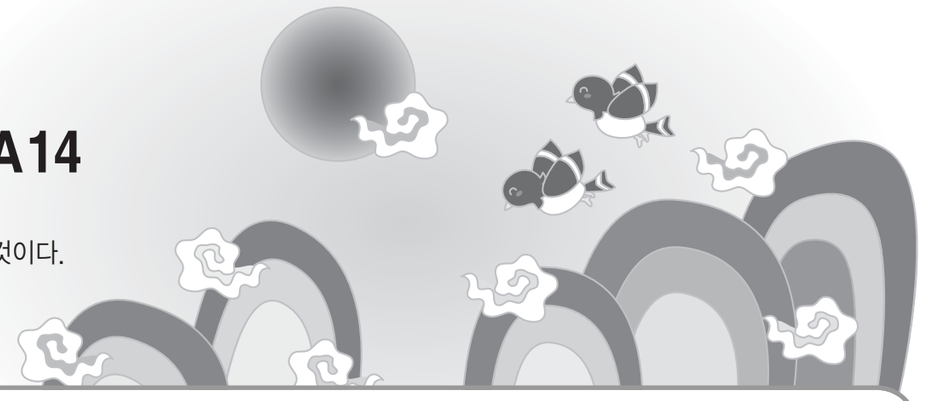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4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출요경〉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김혜승
부 종 정 이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법경

총무원장 지민 종 회 의 장 지경
종회부의장 해산
총무부원장 혜관
총 무 부 장 성우 교 무 부 장 정현
규 정 부 장 혜암 사 회 부 장 무간 재 무 부 장 송광

사 정 원 장 명산 사정부원장 정산
포 교 원 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문 화 원 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기 획 원 장 성각 기획부원장 성각
수 선 원 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교 육 원 장 남륜

서울경기교구원장 보 명 충 남 교 구 원 장 지 향
충 북 교 구 원 장 지 허 경남울산교구원장 해 산
전라남북교구원장 명 재 대구경북교구원장 어 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성우 성덕 무간 혜암 혜인

종도 일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전화 043)857-0108 / 팩스 043)847-0118

대 한 불 교 총 화 종

종 정 전남정
부 종 정 최만재. 이남은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육원장 김법만
포교원장 황혜광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이지수 복지원장 김지산 선거관리위원장 윤대암

총무부장 황혜륜 재무부장 라지월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교무부장 윤해원

유발승회장 이지수 유발승총무 전지명

신 년 사



화합과 단결로 모두 한마음 되자! 送舊迎新
힘들고 번잡했던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을미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합장기원하면서, 우리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굳게 뭉쳐 힘있는 나라를 정진하여 세상의 큰 빛이 되고 부끄럼 없는 불자로써 화합과 단결로 새날을 맞이 합시다.
총무원장 김혜각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g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大和 梵海 사서 경산
부종정 범용. 동광

총무원장 만혁

원로의장 대원
원로의원 대월. 관곤
대봉. 보명

총무부장 법성 교무부장 자관
재무부장 성문 사회부장 정오
감찰부장 도일 포교부장 용담
복지부장 지연 조직부장 원광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대광 포교원장 청운
염불원장 광수 복지원장 보경

부산교구종무원장 동광 대전교구종무원장 지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청산 충북교구종무원장 대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진묘 경기부천종무원장 성인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청산. 지명
종회의원 원각. 승준. 부용. 지선. 관공. 혜은. 혜경. 지명. 혜원. 진묘. 수혜. 자관. 정대
성문. 용담. 현문. 심공. 시원. 성인. 광덕. 해인. 진광명. 청련행. 법륜해. 한명화
광명화. 대각화. 대광
전국신도회장 신장호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호경
중 앙 종 회 의 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 원 장 지성 사 정 부 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포 교 부 장 법공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 앙 선 원 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 앙 법 사 단 장 무진 법 사 단 부 단 장 혜등 법 사 단 총 무 혜련
비 구 니 회 회 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 제 교 화 원 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불.법.승

(사)대한불교삼보조계종

단기 4348 을미년 대한민국
불교통일 불국토운동 전파정진

1세종정 멸공 대종사
부 종 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장 정공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법천 종 회 의 장 정수

부 원 장 법경 고시원장 해룡 교육원장 홍인 문화원장 도광
감찰원장 법도 포교원장 법륜 복지원장 지공 염불원장 청산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각원. 용현. 법융. 지훈. 법송. 지원. 도연.
도륜. 청광. 정륵. 수원. 해국 (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교무부장 도월 재무부장 법진
포교부장 혜수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교화부장 법보
총무국장 지일 문화국장 도엄 포교국장 도원 교육국장 도선
조사국장 도석 사회국장 도암 홍보국장 강천 염불국장 진각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 무 장 손은진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2층) ☎ 055)338-0089
전국무료전화 ☎ 080-333-9009

(사)임제불교조계종

종 정 적진 지암
부종정 석혜안. 석지은

원 로 원 장 석진도 원로위원 석지언. 석법성

비 구 니 회 장 적공. 자은 종 회 의 장 지훈

총 무 부 원 장 제현 포 교 원 장 행화 문 화 원 장 지공
복 지 원 장 보원 사 회 원 장 경오 조 직 원 장 묘화

서울종무원장 재현 경기종무원장 보국 경북종무원장 법인
인천종무원장 적심 전북종무원장 법공 경남종무원장 자공
부산종무원장 혜주 전남종무원장 혜관 충북종무원장 보진
광주종무원장 범산 충남종무원장 보공

전국신도회총회장 나용수(원만)
지 역 신 도 회 장 장순자(극락화) 문화사회복지원장 박봉근(해산)
지역신도부회장 김정순(묘연화) 건 설 사 회 원 장 김동만(성덕)
지 역 신 도 총 무 김도연(덕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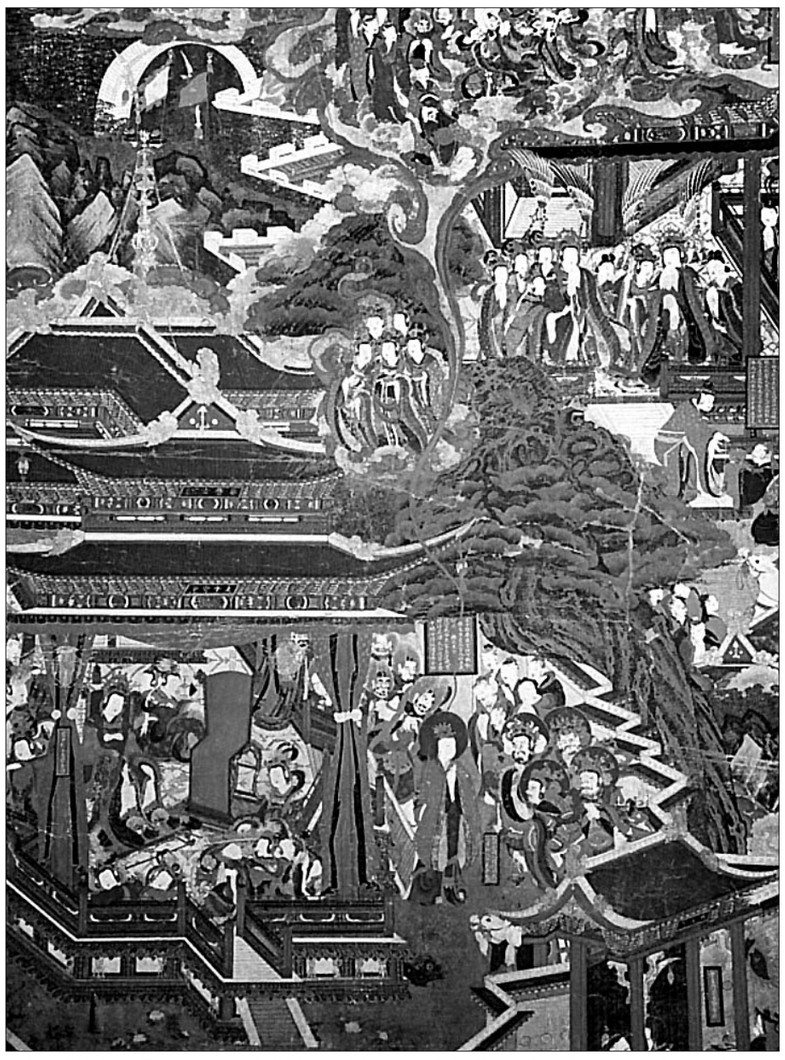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전화 061)644-7273, 010-3807-8428

'현대불교 입문'

1. 인간의 종교로서의 불교

불교의 시작은 인간 탐구에서부터

〈현대불교 입문〉은 마츠다니 후미오(增谷文雄)가 저술한 책으로 불교로부터 어떠한 삶의 지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조명하면서 인간 심층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한국에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1984년 번역해 소개했다. 본지는 〈현대불교 입문〉의 요지를 소개,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려 한다. 〈편집자 주〉



부처님 팔상성도 중 출가를 묘사한 '유성출가상'. 사진은 양산 통도사 영산전에 그려져 있는 도상이다.

불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

지나온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이름 높은 스님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하나는 어떻게 하여 불조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인가이며 두번째는 깨달음을 자기의 시대와 상황에 맞춰가며 구현하는가는 것이다.

두 가지의 훌륭한 노력이 영위될 때, 불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시 소생하며, 사람들의 생활 속에 훌륭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의 새로운 이해와 파악의 방법에 관해서 생각해 오던 바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낡은 체계(體系)를 새로운 언어로써 장식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때까지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것을 쓰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법(法)을 찾으며 또 기(機)를 묻는 것이다. 기를 묻는다는 것은 말을 달리하면 인간의 존재자체를 찾는다는 의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나 인간 문제를 탐구한 분이었다. 부처님 자신의 구도에 있어서나 또 성도(成道)후의 설법전도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러했다. 나는 그 분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탐구의 길' 에서부터 글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또한 옛 성현 들이 걷던 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그때 불교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불러 일으키면서 우리 생활의 지도원리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출발점도 인간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도는 생노병사를 걸머진 인간의 유한성(有限性)의 자각에서 비롯됐다. 왕자 싯다르타 시절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부유나 지위의 고귀도, 아무런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싯다르타는 그 해결을 얻기 위해서 출가 사문의 생활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결국 붓다 또한 인간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이 길에 들어간 분임에 틀림없음을 뜻하고 있다고 본다.

전도(傳道)를 시작할 무렵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의 초점은 '자신' 을 찾는 일이었다. 전도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로 입문한 많은 비구들을 거느리고 상두산에 올라 '치연(熾然)' 이라는 유명한 설법을 행하셨다. 유럽의 불교학자는 이것을 가끔 예수의 '산상 수훈(垂訓)' 과 비교하고 있다. 그 설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서 시작되고 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치연하게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모두 불타고 있다. 눈으로 보아서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모두 치연하게 불타

부처님, 인간존재의 유한성 자각
초기 설법 초점은 '자기 성찰'
더 높은 존재로 눈돌리게 해
근현대 사상 시류 '자기 탐구'
"불교야말로 현대흐름 부합"

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것일까?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서 치연하게 불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먼저 듣는 자인 인간의 존재를 지적하며 거기에서 출발해 그들을 인도해 더 높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대기설법' 이라고 불려지는 부처님의 교화설법의 구조는 언제나 이러한 것이었다. 어느 때는 듣는 이의 기를 살펴서, 거기에 맞도록 설법했다. 또 어느 때는 듣는 이의 능력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성찰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어느 것에 있어서건 부처님 교화의 출발점은 늘 인간 성찰에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사상적 상황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이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자기 음미(吟味)의 영위가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진리의 추구에 몸을 바치며 실재(實在)의 파악에 몰두해 왔던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생의 철학' 이 그 명성을 드높이며 '실존의 철학'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실용주의의 철학' 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철학적 문제의 전환이다. 문제는 이제 존재 일반에서 한바퀴 돌아 인간으로 전환했다. '진리의 용기' 가 버려지고 '자기의 탐구' 가 시작된 것이다.

문학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이 현저하게 보이는 듯 하다. 거기에서는 벌써 영웅이니 낭만이니 괴기니 하는 것은 즐겨 다루지 않는 화제가 돼 버렸다. 많은 뛰어난 문학자들이 피나는 씨름을 하고 있는 주제는 인간성이다.

특히 한계상황에 놓여진 인간성이나,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 의식 밑의 자기의 움직임 같은 것을 탐구하며 추구해, 적절한 표현에까지 가져 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문학의 중요한 노력이다.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 얼굴을 돌리고 싶거나 심히 불쾌한 것도 있다. 그러나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거기에까지 추구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듯 하다.

그러한 현대의 사상적 상황 속에 서서, 지금 새삼스레 불교를 뒤돌아보면 이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인간의 종교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많은 설법 속에는, 본래 마음 자리를 찾기 위한 설법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후의 경론 가운데도 훌륭한 인간탐구의 여러 가지 노력의 자취가 담겨있다. 그 가운데는, 세계의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심층심리의 추구라는 훌륭한 성과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고승들의 행적 속에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진지한 자기 탐구의 자취가 있다. 거기에 우리들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철저한 인간탐구의 종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 우리들은 불교 본래의 존재자체로서나, 또 현대의 사상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나, 불교에의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저자 **마츠다니 후미오**

1902년 출생. 동경대학 종교학과 졸업. 동경대학 강사, 동경 외국어대학 수료. 대정대학교수. 중요한 저서로는 동양사상의 형성, 불타(佛陀) , 불교백화(佛教百話),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 연구, 근본불교, 아함경전(4권)외 다수.

옮긴이 **정병조**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나와 동국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동국대 문과대학 윤리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1984년부터 3년간 인도 네루대 객원교수, 1992년 동국대 교무처장, 1997년 동국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을 지냈고 2007년부터는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1년 금강대 제4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대 봉**
부 총 재 **연 봉**

원로의장 진 성 원로부의장 무 학

원로위원 동 명. 현 공. 석 문

중앙종회의장 무 유
중앙종회의원 지 오. 지 연. 진 묘

사정원장	화 암	호법원장	대 정	교육원장	탄 오	포교원장	부 처
총무부장	법 하	기획실장	경 오	재무부장	도 연	교무부장	무 상
사회부장	법 성	문화부장	대 각	감찰부장	호 유	호법부장	대 산
포교부장	진 광	비구니회장	선 정	비구니부회장	법 진	교무국장	보 인
사 무 장	이소영	사무국장	김주영	재무국장	최선영		

사)한국불교 조계종 협의회 이사장 이종수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 무 원 장 대 봉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문경 백봉사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번지 ■ 대표전화 : 1577-1016, 054)571-1030 / 팩스 054)571-7498

謹賀新年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입종안내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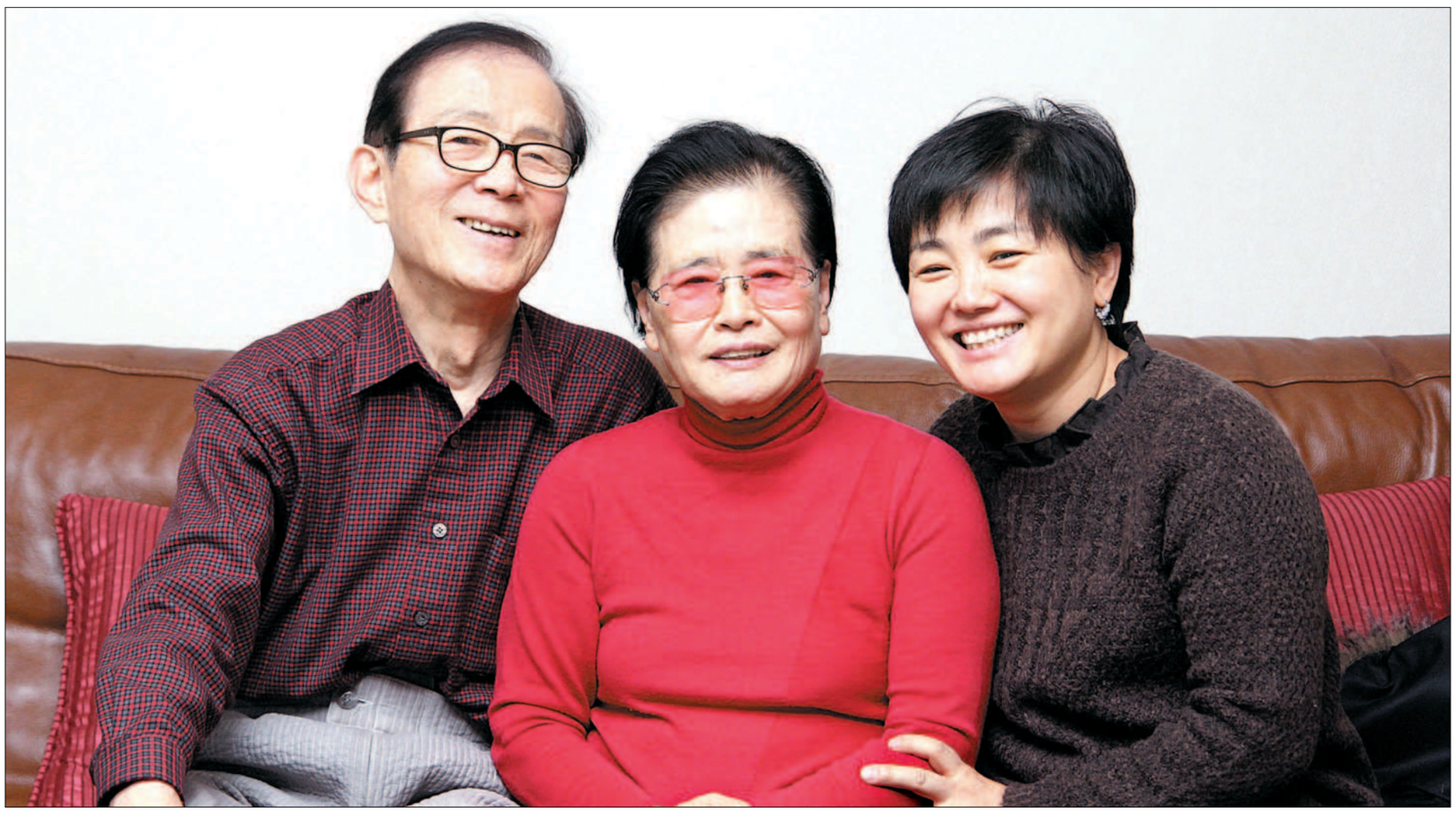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 반 명함판 사진 4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
- 승려증 발급 하실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사)한국불교 조계종 협의회 이사장 이종수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 무 원 장 대 봉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문경 백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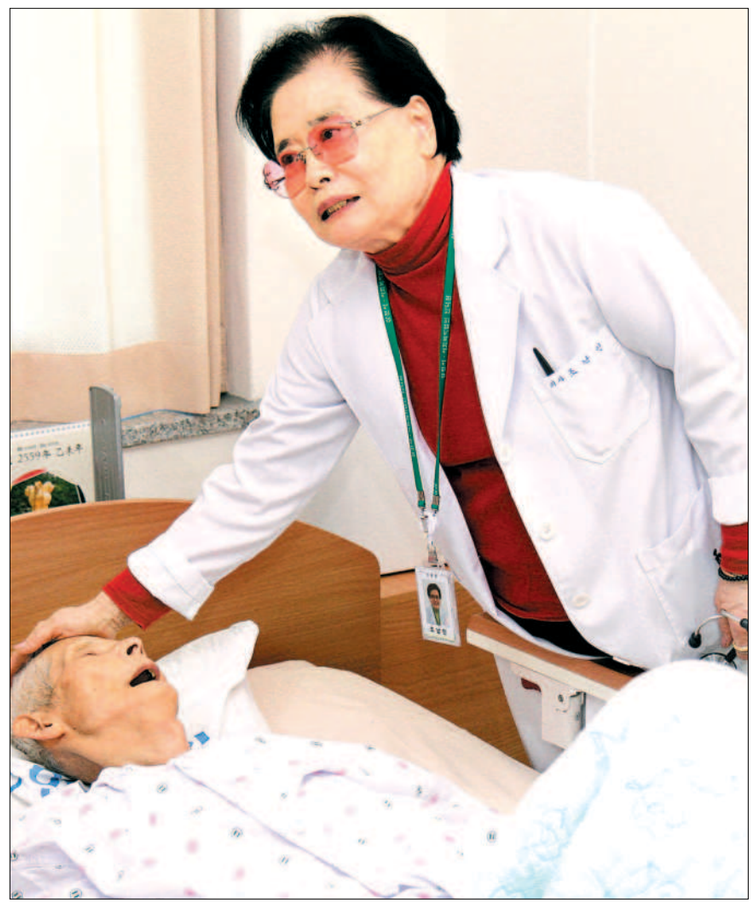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번지
대표전화 : 1577-1016, 054)571-1030
팩 스 : 054)571-7498

달력 동그라미 보며 기다리는 노인들

아픈 이웃 돌보는 의사 조남인 보살 가족



조남인 원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가족들은 어머니 대도행 보살부터 수십년 째 자비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조 원장이 노인요양원과 복지관의 의료진료 등 주중 대부분 봉사를 나가지만 가족들이 가사일을 나눠가며 돕고 있다. 또 각자의 분야에서 봉사와 전법을 함께 하고 있는 불자가족이다. 사진 왼쪽은 남편 정지현 거사. 오른쪽은 딸 정인조 원장



조남인 원장이 기초수급자인 한 어르신의 임종을 지키고 있다. 40년간 사찰에서 봉사한 이 어르신은 연고가 없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구랍 20일 토요일, 삼천사 인덕원 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의 방에서 난데없는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진료봉사에 앞서 의료진이 노래를 부르는 것,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들과 지켜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묻어난다.

특히 의료진을 이끄는 조남인 병원장(80 · 법명 능인성)에 대한 어르신들의 찬탄이 이어진다. 목수술을 하고, 말을 못하는 어르신부터, 기력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웃으며 다가가는 손길에 서로 웃음꽃이 피어난다.

"환자들이 너무 예뻐요. 할머니들도 저만 보면 좋다고 뽀뽀하고 난리에요. 사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조남인 병원장은 가정의학 전문의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다 의사인 딸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고 1997년부터 재능기부를 시작했다. 밝게 웃는 그 모습에서 자비보살의 모습이 비춰진다.

조 원장과 함께 하는 의료진은 총 6명. 정서옥 · 안옥분 · 이영자 · 이경자 · 송재희 씨로 30년 이상 근속한 수간호사들로 이뤄진 이른바 '드림팀' 이다. 이들의 활동은 벌써 16년째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부병원, 서울시의료원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수간호사 출신들로 은퇴 후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평소에 서로 여느 동네아주머니들처럼 수다를 떨다가도 진료시간에는 처방과 차트작성, 주사, 조제 등의 역할을 나눠 현역과 다름없이 전문적으로 일한다.

조 원장은 의료팀과 함께 토요일과 수요일에는 삼천사 인덕원 노인복지시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삼천사가 수탁 운영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돌봄노인요양원 등 매주 5곳의 복지관을 찾아 하루 100여 명의 환자를 돌본다. 조 원장을 비롯한 이들 봉사단은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는 등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검진 · 처방 · 주사 · 조제를 해주고 일일이 등을 쓰다듬어 안아주는 것은 사실 고령의 이들에겐 힘든 일이다. 요양원에서는 직접 변비에 걸려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쾌변을 보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용변 후에는 씻겨 드리기도 한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일도 진행한다.

여든의 나이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따듯한 관심, 말 한마디에요. 사실 이들이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건,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건 몸이 아픈 자신을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에 대한 마음 등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만히 가서 밝은 모습으로 손을 잡아주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치매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도 따듯한 마음은 압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항상 저희를 기다려요."

16년째 요양원 · 복지관서 의료봉사

여든 나이에도 환자들과 함께 노래

"진료는 몸치료가 아닌 마음치료"

어미니 대도행 보살 불심에 감동

치과의사 손녀딸까지 봉사 나서

성운 스님 "4대째 보살행에 감사"

조 원장을 비롯한 의료팀은 어르신들이 많을수록 일도 늘어난다. 인덕원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실의 벽 한쪽은 봉사 스케줄로 빽빽하다.

하지만 조남인 원장은 "병원을 운영할 때보다 봉사하는 지금이 더 좋다"며 "그동안 의사생활 중에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힘들어지지만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아 봉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기자가 찾은 이날에는 기초수급자인 한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남인 원장은 어르신의 손을 잡고 편안히 좋은 곳에 가실 것이라며 다독였다.

조 원장은 "요양원은 대부분이 중증환자들이고, 연고가 없는 분들도 많다"며 "생의 마지막 과정으로 있는 분들이 많기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차남 인덕원 노인요양원 원장은 "조남인 원장님은 집으로 말하면 용마루 같은 분"이라며 "조 원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어머니 대도행 보살의 감화로 불교에 입문

사실 조남인 원장이 어려서부터 불자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서초구의 자택에서 다시 만난 조남인 원장은 불법에 귀의해 살아가는 평범한 불자 가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들 사는 거야 다른 불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죠. 부처님 법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죠."

하지만 이들 가족은 유마거사라 칭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편 지원 정지현 거사와 능인성 조남인 원장, 딸 정인조 씨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불법을 닦고 또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남편 정지현 거사는 1950년대부터 불교를 공부해오며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법활동을 펼쳤다. 청담 스님이 조계사에서 강연한 모습에 발심해 현직에 있을 때는 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의 강연 등 유명한 강의라면 주변의 이들을 이끌고 발 벗고 찾아갔다. 딸인 정인조 씨도 병원 운영 틈틈이 캄보디아, 티베트 의료봉사를 비롯해 우리는선우 활동 등으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들 가족이 불교에 열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예전부터 불자이지만 마음뿐이었다고 정지현 거사는 고백한다. 온 가족이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독실한 불자였던 조 원장의 어머니인 대도행(大道行) 보살의 영향이다. 대도행 보살은 삼천사 성운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을 십시일반 후원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보시행을 펼쳐온 보살이다.

"어머님은 평소에도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없는 곳간에도 모두 털어 도왔던 분이셨어요. 특히 스님들이 학비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찾아오면 마을에 내려가 돈을 빌려서 보내드리곤 하셨죠."

정지현 거사는 "평소 장모님의 자비실천행을 보며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모님은 평소에 인과의 법칙, 그리고 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이 어려서 아팠는데 10살 전에

2015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法住寺

조실 천호 월서
문장 진응 월성
회주 미룡 월탄
주지 현조
관장 성천

교무국장 각주 재무국장 정덕 선학승가대학원장 청원
포교국장 도암 호법국장 각문 보은포교원 현지
연수국장 보관 포교차장 무경 교구신도회장 최윤철
원주 법안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번지 ☎ 043)543-3615 www.beopjusa.or.kr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조실 영허
회주 혜창
주지 흥선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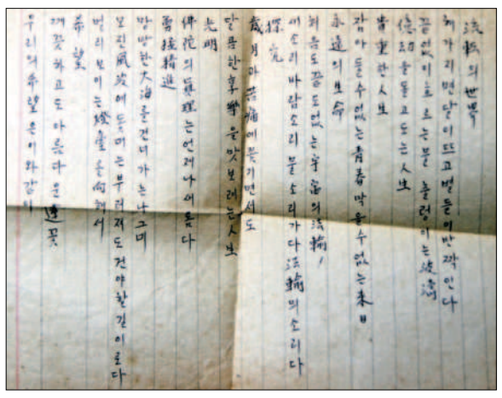
www.jikjisa.or.kr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종무소 : 054)429-1700 FAX : 054)436-3174

손잡을때 어머니 떠올라



삼천사에 자리한 대도행 보살의 사리탑. 성운 스님은 대도행 보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발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머니 대도행 보살이 남긴 편지에는 출재가와 남녀를 떠나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글이 담겨있다.



목수술을 해 말을 할 수 없는 어르신이 조원장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조남인 원장과 의료팀. 이들은 16년간 함께 손발을 맞춰 봉사해 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노인요양원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장모님의 추천으로 선업을 쌓기 위해 방생을 하며 불교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보시행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요. 결국 아이도 건강해졌죠. 나중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찾아가니 스님께서 아이 옆에 화엄신장이 지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조 원장이 봉사의 삶으로 나서게 된 계기도 어머니 대도행 보살의 입적이 계기였다. 어머니의 자비심이 넘치는 따듯한 삶의 모습을 보니 불교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열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비보시행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낳기도 했다. 조남인 원장은 어머니와의 일화를 털어놨다.

"제가 의사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을 어머니에게 맡겼는데 항상 어머니에게 가보면 없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이었죠. 젊었을 때는 '다른 집은 자식 잘되라고 훔쳐서까지 자식 앞으로 하는 세상인데, 우리 집은 반대' 라며 불만이 많았죠.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당시 조남인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대도행 보살은 딸이 낙태수술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다.

조남인 원장은 "수많은 태아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 업을 자신이 대신 풀어주길 바라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이 의료봉사에 나서게 된 것도 어머니의 49재에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법문이 결정적이었다. 대도행 보살과 생전에 인연이 있는 설정 스님은 조 원장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큰 스님께서 '도둑질 한 업과 착한 일을 한 업은 상쇄가 되지 않는다' 고 말하셨어요. 어머니께서 행하신 선업은 그 업대로 어머니에게 가서 좋은 곳으로 이미 가셨다고 하시면서 자식과의 업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머니를 용서하겠냐는 말을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용서할 것이 있나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지내는데……. 그때부터 저절로 봉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조 원장은 만학도의 마음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취득했다. 그길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던 딸에게 병원을 물려주고, 봉사의 길로 나섰다.

"처음에는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픈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남편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딸 정인조 씨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보이신 모습은 집안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모님이 계신데 밴쿠버 서광사에서 신도회장을 하실 정도로 독실하시다. 사실 할머님의 법은 그쪽으로 전해졌다"며 웃었다.

정인조 씨는 대도행 보살이 남긴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용맹정진' 이라 붙여진 편지에는 '불타의 진리는 언제나 새롭다. 망망한 대해는 모진 풍파에 돛대가 부러져도 건너야 할 길이다.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연꽃, 우리의 희망은 이와 같다. 남성도 여성도 분별치 말라. 부처님도 보살님도 여기서 생하신다' 고 적혀있었다.

성운 스님과의 인연으로 재능기부 나서

대도행 보살과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과의 인연은 봉사의 길을 발원한 조 원장에게 방향을 제시해줬다. 삼천사 성운 스님은 젊어서부터 대도행 보살을 어머니처럼 모시며 따랐다. 대도행 보살은 스님들을 시봉하는 한편, 혹여 다른 길로 새지 않을까 스님들이 여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질책도 많이 했다고 한다. 조 원장은 인덕원 노인요양원이 들어서기 전부터 삼천사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성운 스님은 "대도행 보살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고 불법을 따르려고 노력한 한 분"이라며 "자신이 출가해 수행하고 싶었는데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스님을 시봉해 큰 스님으로 만들고자 원을 세우셨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임종 때 활짝 웃는 모습으로 '큰 스님이 되셔서 널리 부처님 법을 전파해 달라' 는 마지막 남기신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스님은 "어머니에 못지않게 조남인 원장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여든의 노구에도 복지시설에도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주변 의사와 간호사들도 개종시켜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게 하는 등 전법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조남인 원장은 "평소 어머니는 스님들이 큰 스님이 되도록 주변에서 힘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미약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스님을 도우며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조남인 원장의 가족들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자비보시행의 서원을 세우고 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도 불심을 유지하며 생활한다고 한다. 봉사를 통해 금슬이 더욱 좋아진 부모님을 보며 딸도 존경스럽고 좋다는 말을 건넨다. 치과 인턴과정 중인 조남인 원장의 손녀딸도 요양원을 찾아 봉사를 한다. 뒤돌아 나오는 길, 연꽃향내가 그윽하게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눈 내리는 날에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연거푸 눈이 내려서 사방이 온통 은빛 설국이다. 강원도 산간마을처럼 폭설은 아니지만 모처럼 겨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일정을 취소하고 설경을 감상하며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마당에 켜켜이 쌓인 눈도 치우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 아무런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설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법회가 없는 날은 며칠이고 그냥 지낸다. 오늘 아침에는 간밤에 먹이를 찾아 나선 고양이의 발자국만 선명할 뿐 사람이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천지간에 가득한 순백의 설경을 즐기는 것도 시골 사는 사람의 복락이다.

원통법수선사의 어록에 보면 눈 내리는 날에 '세 종류의 납자' 가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가장 못난 수행자는 화롯가에 둘러 앉아 먹고 떠들면서 놀고, 중간쯤 되는 수행자는 먹을 갈아 붓을 들고 시를 지으며, 가장 못난 수행자는 승당 안에서 좌선을 한다고 했다. 눈 오는 날 모든 일을 작파하고 마냥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심정이니까 나는 가장 못한 수행자의 대열에 드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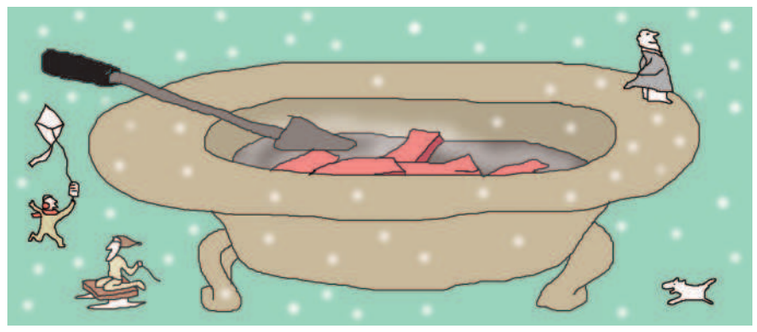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곳에 처음 오던 그 해 겨울에는 폭설이 자주 내렸던 기억이 난다. 그 겨울 동짓날 아침부터 눈과 한파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고 상수도까지 얼어서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폭설 예보가 있으면 동파에도 대비하고 마을 이장님의 트랙터도 예약해 놓는다. 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면 절 초입의 길은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산간지방도 아닌데 이곳에서는 눈을 가까이 보게 된다. 멀지 않은 청주 도심은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렸다는데 여기는 기온 차이 때문에 눈발이 날렸다.

지난 해 이맘때는 눈 치우는 일도 힘들어서 뒷길의 제설작업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꼬마들이 방문하여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을 타면서 노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날 눈썰매를 여러 개 구해 와서 아이들이 신나게 한 겨울을 즐기도록 배려했더니, 그해 겨울은 절 뒷길이 아이들의 눈썰매장으로 전용되었다. 올해도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눈썰매를 타러 올 것이다.

여기는 어린이 체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정착할 때 농촌 사찰의 장점을 살려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절에 왔을 때 재미있는 놀이가 있으면 절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텃밭에 모종을 심고 채소를 길러 먹는 즐거움을 알게 하였고, 여름에는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그 즈음 모 방송사의 '아빠, 어디가?' 코너가 인기여서 이 캠핑체험은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여기는 계곡이 없어서 여름이면 큰 수조를 만들어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을에는 농작물 수확하기 체험을 한다. 올 해 가을에는 다섯 가정에서 심은 고구마를 수확했는데 온 가족들이 팔을 걷고 밭이랑을 따라서 일하는 풍경이 참 정겨웠다.

겨울에는 연 날리기와 눈썰매다. 전통연을 친구들과 만들어보는 과정도 흥미있지만 뒷동산에 올라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재미를 더 즐거워한다. 모닥불 피워놓고 고구마 구워먹는 별미도 아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는지 해마다 문의가 쇄도한다. 특히나 남자 아이들은 패를 지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뛰어 다니는 것을 보면 동심에는 더위와 추위도 아랑곳 없나보다. 이번 가을에는 숲에 들어가서 도토리도 맘껏 주웠으며, 밤나무 아래서 알밤 줍는 일에도 정신을 쏟았다.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런 놀이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시골 사찰의 이점이다.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이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겸
원로위원 석보행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장 석도현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강원원장 석법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충남종무원장 석청화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부산 제 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 2 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교 육 원 051)893-3346
학장(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시 진구 당감 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8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숫타니파타〉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기 획 원 장 **설담 보현** 포 교 원 장 **수미 길상** 문 화 원 장 **정견**
사 서 실 장 **조능** 교 육 원 장 **조해** 호 법 원 장 **조구**

총무부장 **조반** 호법부장 **조관** 기획부장 **조초**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원로위원 **봉천**
총무원장 **혜봉**

비구니위원 **법광** 중앙연수원장 **도광** 중앙종회의원 **지엄**
교구종회의원 **혜각** 사 정 원 장 **봉정** 13교구 종무원장(동부) **용주**

문화부장 **무상** 문화국장 **선광** 사회부장 **명광** 비구니원장 **혜명**
비구니부원장 **선허** 21교구원장 **해광** 32교구 종무원장(서부) **보광**
규정부장 **원영** 포교부장 **정오** 재무부장 **영각** 감찰부장 **도경**
호법부장 **적광** 홍보부장 **도영** 감찰국장 **법성** 17교구서부종무원장 **주광**
호법국장 **월산** 포교단장 **도견** 교임단장 **혜광** 포교국장 **해운**
홍보국장 **해관** 규정국장 **해천** 포교국장 **해진**

입종을 환영합니다

【구비 서류】
- 사찰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반명함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1매 (사찰등록 하실분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분은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필히사본첨부
- 도첩은 본종단에서 수계를 받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입종후 승려증 (법사 포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간부 추대장 발급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대불교 조계종

종정 **청 해** 원로회 의장 **오 봉** 총무원장 **해 능**



종 회 의 장 **진 성** 종회부의장 **미 산**
사 정 원 장 **진 산** 비구니원장 **해 송**
비구니부원장 **보 현** 교 육 원 장 **탄 석**
포 교 원 장 **해 광** 의 전 원 장 **청 원**
기 획 실 장 **연 오** 홍 법 원 장 **혜 원**
중앙선원장 **혜 진** 사회복지원장 **고 경**

총 무 국 장 **향 천** 규 정 부 장 **수 광** 교 무 부 장 **천 호**
경남종무원장 **해 주** 서울서부종무원장 **무 상** 인천남부종무원장 **태 은**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옛농고길 8길 11호)
전 화 : 041)551-5537 팩스 : 041)621-5537
총본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 50번지 만경사

현 대 불 교 조 계 종

종 정 **덕현 벽운**
부 종 정 **성주 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교육원장 **해인**
종회의장 **성해** 포교원장 **법진**

총무원 임원, 각 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해. 성문. 법진. 해인. 연담. 법연. 법인. 천봉. 도선.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고암. 농해.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법인. 성수. 진광. 진각. 진국. 묵현. 현공. 진산. 이착. 우하. 성일.
현광. 도관. 종진. 삼관. 해성. 대산. 수암. 화림. 진오. 종진. 수월.
여의주. 보현행. 보리심. 수월화. 천수화.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은어송로 86-100 보광사 / 총무원장 주지 동화 : 전화 042)284-3929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향 운** (대한불교조승종 종정)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부위원장 **월 광**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이 사 **고 산**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법 전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동 암 (한국무교교단 총무원장)
남 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혜 남 (법화종 종정)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감 사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정 민 (한국신불교정토진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대 한 불 교 반 야 종

총 무 원 장 **지 법**

사부대중일동



■ 주소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1리 229-1 (동아사)
전화 010-3519-263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7 ~ 12/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2	인생수업	법륜	휴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담앤북스
6	빅 마인드	데니스 젠프 메젤	정신세계사
7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김영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한산암
10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나무를심는사람들

책속의 밑줄 긋기

"언어가 끊어진 자리' 에 이른 것이 중요한 건
언어가 끊어졌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중에서

Q:진정한 깨달음은? A:기존 생각 내려놓고 현실 다르게 이해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자명 지음
민족사 펴냄
2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보통 깨달음하면 수행력이 높은 특별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선사들은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편견을 부숴버린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처는 똥 막대기' 라는 운문 선사의 '간시궐' (乾屎闕)화두다. 이는 부처님을 신성시하고 깨달음을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어리석은 범부들의 알음알이(분별심)를 공격하는 말이다. 참선이 특별한 것처럼 오해한 불교와 선문답의 세계에 대한 왜곡과 역사적 오류를 지적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선문답의 특수성을 풀어헤치고,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비적인 측면만 강조된 문답만을 파헤쳤다.

선문답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선문답이 우리의 평범한 심리적 구조를 분석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깨달음을 특별한 것으로 오해한 선사들의 파격적 비판을 시도했다. 저자에 따르면 깨달음의 세계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일상적 경험과 관계 속에 깃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아닌 기존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현실을 다르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산 정상에 오르는 데서 등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점부터 새 길이 시작되는 것처럼, 깨달음은 다른 삶, 다른 생각을 여는 것을 이른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새로운 언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지혜를 가리킨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저자는 선문답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어떤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답은 자기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혜종고 스님이 화두에 '의정(疑情)' 을 일으키는 간화수행법을 발명한 후 '자문자답(自問自答)' 이 간화선의 중요한 수행법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 자기 안에서 길어 올리는 답을 통해 수행자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질문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저자는 '의정(疑情)' 이 논리적 충돌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저자는 이 충돌을 일으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침묵은 수행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침묵 한다고

선문답의 원리 철저히 분석

선문답서 중요한 것은 '질문'
대답은 자기안에서 나와야 돼
깨달음 오해한 선사들 비판 시도

마음속의 생각을 제대로 살필 수 없고,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알음알이를 부정하는 선지식들로 인해 진정한 깊은 진리는 말이나 글을 써서 전할 수 없다는 '불립문자' (不立文字)나 불교의 진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만 전해진다는 '교외별전' (敎外別傳)의 전통을 만들어왔다고 본다.

저자는 이런 전통을 잘못 받아들인 수행자들 중 출가 후 아무 생각 없이 30년을 살아온 수행자들도 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 수행자는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추상적 앎에 몰두하게 되었고, 자기 삶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으며, 급기야 수행자가 무식하고 어리석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학인의 생각이 너무 강고해 도저히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격외적 논리를 띤 질문을 제시한다. 그래서 격외적 논리로써 학인에게 실상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불교에서 침묵은 종교적 생활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이 침묵만을 덕행으로 간주한 건 아니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바르지 못한 사고를 전제한 질문에 대해서만 침묵했을 뿐, 단정적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본질을 왜곡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한 대답을 했다. 질문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질문자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대답으로 부처에게 언어는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었고, 침묵 또한 방편일 뿐이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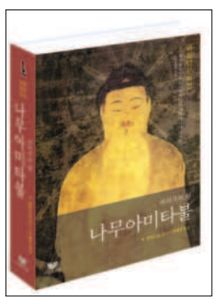
선문답의 세계에는 인간의 경험지를 뛰어넘는 '신성한 존재' 나 범속한 언어를 뛰어넘는 '신성한 언어' 라는 것이 없다.

선문답이 언어적 관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특정한 존재나 언어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서다. 저자는 언어의 연기법적 원리를 강조하는데, 이는 언어가 연기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의미이다. 선사들은 언제나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독단을 경계했다. 그러나 선사들의 선문답이나 침묵을 초월적 · 신비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문답의 세계에 대한 화두와 벽관을 이해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비판하며, 간화선 수행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편적 수행임을 강조한다. 이로서 깨달음의 내용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기존 생각을 다만 '바르게' 이해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칭명 염불 가르침과 고승 말씀 '會集'

〈회집〉



나무아미타불

정현 스님 감수
주세규 회집
비움과소통 펴냄
5만원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모든 선근(善根)을 일심으로 극락왕생에 회향하고,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제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 책은 '염불' 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이른바 '벽돌책' 이다. 염불 중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지명염불(칭명염불)에 관한 성스런 가르침과 고승 말씀들을 회집(會集) 했다.

성인(聖人)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많은 종교에서 널리 권장하는 보편적인 수행법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가장 성스러운 수행법중 하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염불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낮은 수행법으로 치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견을 깨부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수행을 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회집했다고 저자는 밝힌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염불에 관한 감로법문 중 핵심을 꿰뚫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만 엄선했다.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고 고차원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배제했다. 다만 본문 밑에 달린 주석들은 본문보다는 다소 어려운 말씀들도 과감히 실었다. 본문과 직접 관련된 말씀은 물론이고, 본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 놓은 것은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이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염불법문 원문(原文)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찾아낸 것들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Ⅰ편은 '염불' 의 개론서라고 보면 된다. 극락왕생의 정인(正因)이자 정행(正行)이라 할 수 있다. 가히 이 책의 중추이자 골간에 해당된다. 염불의 정의와 칭명의 뜻, 염불의 역사, 불가사의한 염불의 공덕과 수행법, 대승경전과 역대 조사들의 정토법문이 치밀한 주석과 함께 총망라 돼 있다.

Ⅱ편은 극락왕생의 조인이자 조행이라 할 수 있는 육식과 날이 갈수록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사음(음란)의 죄악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사음을 경계하는 글들을 모아놨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현장 등 다양한 話題 산문집

〈화제〉



월정사 탑돌이

원행 스님 지음
에세이스트 펴냄
1만5천원



오대산 월정사에서 매년 열리는 탑돌이 모습

월정사의 탑돌이는 1977년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된 제1회 태백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탑돌이 전통이 꾸준히 계승되고 있는 사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월정사 처럼 1977년의 자료가 남아 있는 사찰도 드물다. 그래서 월정사 탑돌이의 민속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월정사는 그동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과 문화올림픽으로의 자리매김, 월정사탑돌이의 무형문화재 등재 염원 등을 발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주민과 신도단체, 보존회회원 등이 모여 탑돌이를 봉행해 왔다. 탑돌이는 이제 월정사의 상징이 됐다.

현재 월정사 부주지로 있는 원행 스님이 산문집을 최근 펴냈다. 제목은 〈월정사 탑돌이〉이다. 제목만 얼핏 보면 탑돌이 내용으로 가득차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탑돌이 내용은 1부 첫머리에만 조금 등장한다. 월정사서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단 것 같다. 책에 소개된 내용은 산문집답게 다양하다. 1980년 10 · 27 불교법난, 1981년 월정사 분규사태 등 불교 역사의 현장과 대한민국 갈등, 지구촌 문제, 어머니, 선, 화두 등 의 화제로 써내려갔다.

원행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돌이켜 보면, 1980년 10 · 27 불교 법난, 1981년 월정사 주지 분규 사태, 1982년 월정사 분규로 원주교도소 복역, 1983년 6월 탄허스님 열반 등 한국불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번 자유롭지 못했고 때로는 중심에도 서야만 했으니,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시련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사태는 또 다른 수행의 경책이었음은 물론, 좁은 강에서 너른 바다로 나가는 물목이었음에 틀림없다"고 회고했다. 한편 저자인 원행 스님은 〈월정사 탑돌이〉 출판기념법회를 구랍 24일 서울 조계종 총무원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봉 불기 2558년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및 전 종도 법계고시 행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 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승단의 목표로 전 종도 법계고시를 봉행한 바 원만히 회향 하였음을 제방에 사룁니다.

■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일 : 불기 2558년 12월 14일
■ 법계고시 입재일 : 불기 2558년 12월 15일
■ 법 계 고 시 회향일 : 불기 2558년 12월 16일
■ 법 계 고 시 사 : 부산 총무원 관음정사 (부산역 건너편)

법계품수자(법계순)

■비구니 회장 – 명사 혜명 ■교육 원장 – 종사 봉덕

일봉	의광	진여	운암	서암	정무	정학	수여	용현	대일	무천	무무	법광
천희	관희	원희	참희	희천	연화	무향	묘향	조론심	연화심	범주	범운	교각
희장	청불	불모	변파	변정	청운	관음	상문	법광	몬비	덕인	도명	도진
도일	현수	청타	관우	석수	청서	도심	희곡	법정	대주	해광	천곡	청운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 전화 051-442-5658
* 종단 동참연락처 : 총무 010-4566-4504 / 홈페이지 http://jogyejong.kr / 모바일 : 호국불교조계종 / 팩스 051-442-5659 / 이메일 ok-1207@hanmail.net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성도 합장

입종업체 : 수봉전자(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선거음향, cctv, 노래방기기, 야외앰프
부산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홈페이지 http://www.kukjeav.com 전화 010-3832-8855 수봉 합장

세계불교문화교류포럼
(발기인 동참 : 종단포럼 전화 010-4566-4504)

위대한 覺者 붓다에 대한 철학적 고찰

불교로 읽는 古典

야스퍼스의 〈위대한 철인들〉



정병조
금강대 총장

〈위대한 철인들(Die Großen philosophen)〉이 출간된 것은 1957년이었다.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실존철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카알 · 야스퍼스(Karl Jaspers)의 만년에 저술한 책이다. 원래 그는 3권으로 나누어 집필할 계획이었지만 불행히도 제1권 만을 탈고한 채 타계하였다. 1권에 실린 인물은 소크라테스 · 공자 · 예수 · 플라톤 · 아우구스티누스 · 칸트 · 스피노자 · 노자(老子) 등을 비롯해서 불교의 부처님 · 용수보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제나 목차만을 보았을 때는 다분히 개론서적인 성격으로 이해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놀랄만한 객관성과 창의성을 담고 있다. 특히 동양의 성인들에 대한 기술(記述)은 그로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원전에 충실했고, 독특한 자기주장을 실으면서 전문적 소양인 못지않은 내용을 보여준다. 단편적인 한 구절만 언급해 본다.

흔히 석가의 생애를 기술할 때 출가(出家)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출가를 '집 떠남'(Homeless)이라고 보지 않는다. 세속의 영화를 벗어나서 새로운 결단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위대한 포기'(The Great Renunciation)라고 강조한다. 그는 한마디의 단어로서 붓다의 위대함을 웅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선택한 위인들에게는 각자의 독창성과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철학사의 위인들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①역사적 모습 ②사유의 체계 문제 ③발생적 모습 : 신화 · 종교 · 언어 등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봄 ④실천적 모습 ⑤역동적(力動的) 모습. 이 다섯 가지는 실제로 혼융(混融) 되어 있고, 이 성찰을 통해 우리는 그 위인의 본질,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야스퍼스의 저술 동기였다.

그가 특히 '위대하다' 고 말한 뜻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어느 위인이든지 시대정신과 무관할 수는 없다. 부처님은 질식할 듯한 캐스트의 부조리, 제사의식에 대한 맹신 등이 난무하던 시대를 살았던 분이다. 그가 캐스트를 정면 부정하고 제사의례 대신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인도사회의 시대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위인은 시대 정신의 소산이다. 그러나 '위대함' 은 동시에 그 시대의 한계점을 넘어선다. 시대정신을 초월하기 때문에 위인의 사상과 삶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철인들' 의 조건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구분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외적인 조건으로는 ①저술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단 기원전 인물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 공자나 예수, 부처님 등이 모두 그 예외에 해당한다. ②후대 사람들에 대해서 선명한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 권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내적인 조건이 있다. ①시간 속에서 시간을 초월할 것, 즉 초역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근원에 있어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것, 태어남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한다. ③정신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고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유동적인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갖춘 위인들 층에서도 붓다는 조금 더 특이한 존재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존재를 역사적으로 규명한 분이다. 구태여 따진다면 소크라테스 · 공자 · 예수 등도 포함 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다섯 번째 위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용수보살의 사상적 특징을 그는 사상의 비전이 풍부한 인물로 보고 있다. 노자(老子)나 스피노자 등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용수는 불교의 위인이면서도 초기불교가 미처 이루지 못한 무한한 상상력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대승불교의 이론과 실천은 그로 인해 꽃 피운다고 보아야 한다.

사상의 비전이란 원전을 재해석해 내는 힘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해석과 통찰로서 원래의 사상을 더욱 더 포괄적으로 가꾸는 철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용수를 기독교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Paul)에 비교하기도 한다. 예수와 바울은 100여년의 시간간격을 둔 인물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동일하였다. 신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말한다. 그 한 가지 목적에서만 보면 예수는 실패했고 바울은 성공하였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바울은 로마제국은 물론, 그 통치하에 있는 전 유럽과 팔레스타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수는 석가가 못 이룬 꿈을 완성시킨 인물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야스퍼스의 불교관

카알 · 야스퍼스는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로 분류된다. 반면 무신론적 실존철학자로는 하이데거 · 사르트르 등을 꼽는다. 사상적으로 보면 20세기는 실존철학의 시대였다. 두 차례에 걸친 참혹한 세계대전,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냉전시대, 그리고 소련의 붕괴와 국가 간의 경제적 대립 등이 지난 세기를 풍미하였다. 그때 제기된 의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물음이었다. 과연 인간은 선할까? 선하다면 어째서 인간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반복할까?

그렇다면 인간은 악한가. 자기 자식을 죽인 이를 용서할 수 있고, 김밥 팔아 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그 아름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착한 행위를 선하다고 규정하고 잘못된 형태를 악하다고 단정한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는 분명히 악한 행태이다. 그러나 권투선수는 때려야 만 산다. 전쟁은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다. 적에게 동정을 베풀면 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은 없다는 뜻이 되고 만다. 늘 선하고 악한 행위 앞에 단서를 부칠 수밖에 없다.

한 입장에서 보면 선, 혹은 악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철학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인간존재 보다 '현존(Da sein)' 하는 실존이 가장 핵심적인 테마이다.

야스퍼스 철학의 핵심은 '포괄자' (Das Umgreifende)이다. 포괄자는 각자의 경지에 있어서 관련적이다. 정신 · 초월 · 실존 등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힘이다. 철저히 인간 실존을 존중하면서 일상의 자신, 합리적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상당히 연기론적 사고방식이다. 불교의 연기론은 단순히 객관적 세계현상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다. 연기는 자기의 존재, 자신의 문제에 집중된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상호이해를 요구한다. 연기를 철저히 구명하고 내증(內證)하는 것이 곧 자신과 관계되는 세속을 초월하는 곳. 즉 해탈이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철학 한다"는 것에 있어서 '대상적으로 인식하는 사유법' 과 '초월하는 사유법'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는 과학에 의해 수행되지만, 후자야 말로 철학의 '근본 작용' 이며 그것은 대상적 사유에 있어서의 모든 대상성을 밟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불교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삶' 이라는 이상과 상통하는 논리이다.

본래의 자기는 불교적 입장에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야스퍼스의 불교관은 상당히 깊숙할뿐더러 상호의존적이기도 하다. 물론 야스퍼스의 불교관이 철저히 불교적이지만은 않다. 야스퍼스와 불교는 분명히 이질적인 면이 농후하다. 불교는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탈이란 일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분명히 비합리적이다. 마치 선어(禪語)의 화두(話頭)가 초논리적인 것과 같다. 논리를 넘어서고, 논리를 부정해야만 진실이 보인다는 그 '과정' 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이 물위로 가고' '바다 밑 제비가 알을 품는' 경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다. 야스퍼스 또한 공감한다. 그 능력을 다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비합리적이다.

동과 서의 만남

원래 야스퍼스의 철학체계는 불교, 혹은 다른 동양전통과 많은 관련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야스퍼스의 대표적 저술로는 〈현대의 정신적 상황(Die Geistige situation der Zeit, 1931)〉, 〈이성과 실존(Vernunft und Existenz, 1935)〉, 〈자유 · 진리 · 평화(Freiheit, Wahaheit, Friede, 1959)〉 등이 있다.

특히 세계 대전 이후의 최대역작으로 〈진리에 관하여(Von der wahaheit, Erster Teil der philosophischen logic, 1947)〉를 꼽는데 그 어디에도 불교사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야스퍼스가 정면으로 불교를 다룬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철인들〉에서 부처님과 용수를 쓰면서부터였다.

특히 그가 용수를 다루면서 삼제(三諦) 논리의 핵심인 공(空) 사상을 언급한 것은 인상적이다. '불교적 입장에서 논하는 공의 세계란 사유의 세계에서 비 사유에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할 수 없는 것에의 지양(止揚)이 그 궁극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야스퍼스 철학의 주류, 생(生)에의 점화(點火), 다시 말해서 천명(闡明)의 길이 불교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저술을 통해 시야의 확대, 나아가서 동과 서의 만남이라는 21세기의 사상적 필연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야스퍼스는 서양적 사유와 불교를 비교하고 있다. 무명(無明)과 원죄, 불교와 기독교의 신비주의 비교, 공의 입장과 니힐리즘(Nihilism). 용수의 팔불중도(八不中道)와 변증법 등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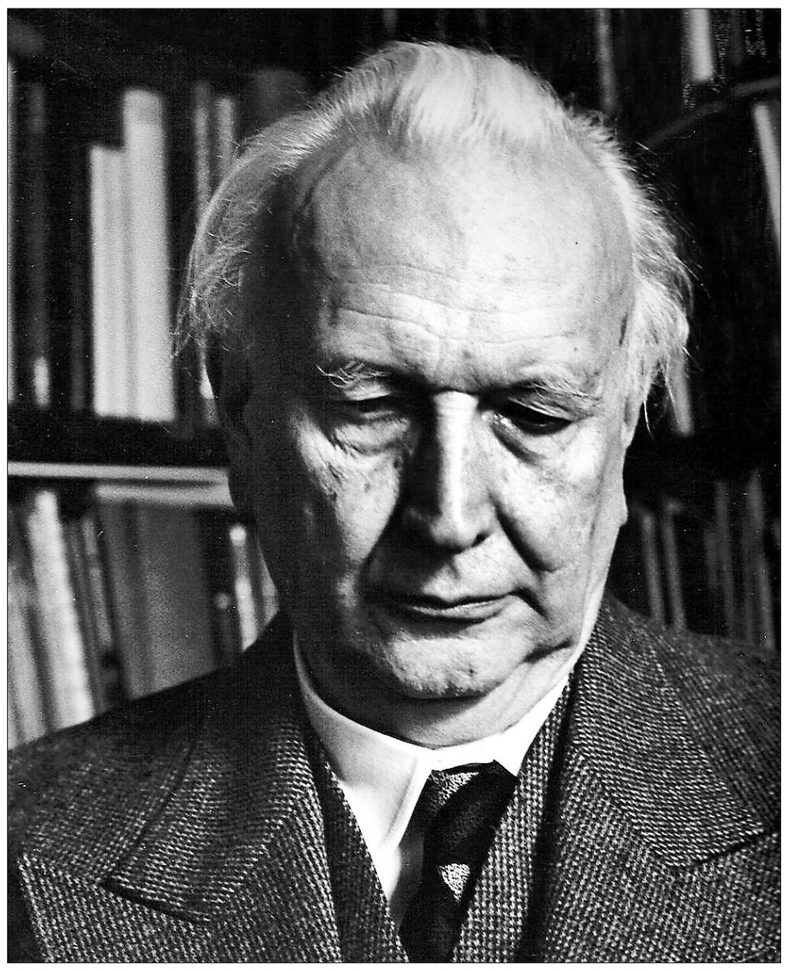
야스퍼스는 그 글에서 서양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에 한계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는 '존재와 비존재' 라는 말을 쓸 때 이와 같은 '서구적 개념이 모두 인도적인 색채를 갖는다' 라는 변명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스퍼스는 단순히 불교와 서양의 유사성을 찾아낸다거나 혹은 양자의 사유방법을 혼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한국불교의 특성을 회통성(會通性)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파적 근거를 무시하려는 태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종합함으로써 상이성과 개별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회통' 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한국불교의 특성은 '원융성' (円融性)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개별적인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 지향점을 하나로 회귀시킬 수 있는 능력, 전체로 총괄하면서도 개체적인 자율이 허용되는 사상성을 의미한다.

그가 특히 용수의 마지막 장에 '간격' (間隔)이라는 언급을 남기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양에 있어서 단서 · 계기였던 것이 동양에서는 전체가 되고, 전혀 별개의 것이 되었음' 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다. 표현은 같아도 궁극에 이르는 과정은 여럿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붓다에 의해 하나의 위대한 해결이 발견되고 실현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라는 표현은 탁견(卓見)이 아닐 수 없다.

그는 60년대 초반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교토에서 일본 국보 1호 미륵반가사유상을 친견하였다. 그때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 달관의 미소를 보여주는 다시 없는 걸작' 이다.

우리는 야스퍼스의 감격적 언사에 동의한다. 나는 6 · 25 직후에 초등학교를 다녔다. 전후의 비참한 환경속 이었지만 철저히 서구성향적 교육을 받았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최고의 조각이고, 밀레의 '만종' 보다 더 위대한 그림은 없다고 배웠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미륵반가사유상을 보았다. 그때의 감동은 야스퍼스와 다를 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든 장인(匠人)은 누구였을까? 야스퍼스는 그 일본 불상의 불모(佛母)가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돌아갔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현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카알 야스퍼스(1883~1969)의 사진. 본래 정신병리학 연구자였던 그는 정신병리적 현상 속에서, 인간의 개성에 대한 강한 탐구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만년 저작인 〈위대한 철인〉 통해 동 · 서양 위인들의 사상을 서구 철학적 사유로 살폈다.

야스퍼스가 만년에 저술한 책
동 · 서양 哲人들 사상 조명해

붓다의 출가 '위대한 포기' 표현
용수 空 사상 서구적 사유로 살펴
"붓다의 위대한 발견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과제"

세계불교가 하나로 뭉쳐야 부처님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지옥같은 어둔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불빛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법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Buddhist monk King Hinayana Buddhism
Buddhist monk King Mahayanist Buddhism
each nation(Country representatives) Buddhist monk King

推戴委員長 대승정 목탁 推戴委 副委員長 불원

세계불교법왕청 直屬 團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 총재 혜월. 회장 혜선. 수석 현덕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 총재 불원. 부총재 청광. 회장 법상. 수석 청운 高僧長老團 – 총재 성각. 회장 정오. 수석
元老長老團 – 총재 혜승. 회장 도언. 수석 대경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 총재 남륜. 회장 고산 제1수석 돈조. 제2수석 성군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 총재 박혜정. 회장 제성. 수석 도암
奉行委員長 – 조향 企劃本部長 – 현성 組織委員長 – 대붕 禮敬儀典院長 – 구암

內閣 首班 內閣 副 總理 / 女性分科委員會 特命全權 大使 在家 分科 委員會

중앙정부 각 부 장관 〈무순〉
불원 조향 혜승 대붕 혜선 진성 대풍 법상 정오 혜월 성각 도암 도경 도명 도일 도암 도언 돈조 제성 혜정 무령 무산 구암 남륜 능허 지현 도형 동월 법광 보명 원광 청운 고산 석담 선명
영각 성군 송몽 심오 혜원 법성 송운 연아 상운 청광 대연 현담 현덕 법주 법승 법지 법천 현덕2 혜상 법상2 / 기획1실장 도원 기획2실장 경덕

국내외에서 봉사할 불자 붓다 봉사단 여성분과위원 수시로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0733-5665 H.P 011-229-6061 팩스 : 02)733-5671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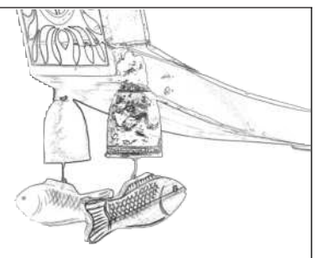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무거운 짐을 버리려고 하거든 무거운 업(業)
새로이 짓지 말라. 무거운 짐은 이 세상의 고통
이니 그것을 잘 버리면 가장 즐겁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다음검색 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병고액난 상담치유

- 간질(천병), 정신병(미친병), 귀신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
-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 무등산 불광사에 오시면 답이 있습니다
* 천도재,49재,산신재,산소로 인한 문제도 상담합니다
* 맞고장 쌍고장 전수합니다
불광사 해산 스님 010-7321-0404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기관지,천식,가래,심장,호흡 곤란하신 분. 빙의 치유하실 분

(부천 천운사)
010-6674-1356

허준의 동의보감

(100가지 해독기술)
법 제 유 황
법제유황 안정성 검사필!
문의 : 삼성당 한의원
055) 972-0043, 972-0302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태고사 자연치유 생사의 손 되어 지는 집 전생과 현생의 업장소멸로

-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
- 개인 사생활의 비밀
- 난치성 질환, 정신병, 성 마약 중독증 등...을 풀어드립니다.
010-6520-8886 법천선사
농협 302-0228-9006-71 박춘자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55세 이하)
010-4415-5780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상 ·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무속인)
-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천등산 조용한 산사에서 휴양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43-853-4741
010-4799-5699

극락행원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010-3586-6091

태양계 부처님으로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를 정립하고 신통력과 사후극락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알리고, 현재의 기도와 수행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연구하실 분이나 불교학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010-3586-6091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로단비술의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지장기도 및 천도법회 안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지장보궁 지장사에서는 선망부모 왕생극락발원 지장기도 및 천도재를 무주상 보시로 3년간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 초중고 명상수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봉행합니다. 오시는 분께는 네팔에서 가져온 당뇨, 고혈압, 비만에 좋은 차를 무료로 드립니다. 출가수행 할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지장보궁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332 / 전화 054)332-1189 www.jijangsa.net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종무소 직원 구함

○ 남녀 불문 ○ PC 가능자
○ 사찰에서 숙식조건 ○ 급여는 상담 후 결정
(충남 부여)
010-5424-5555

병 신 육 갑

1980년 4월에 출간 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주인과 예수〉의 저자 김 종성 선생이 쓴 파사현정破邪顯正과 깨달음을 위한 깜짝 놀랄 책.

병신육갑을 하면 100% 천당 가고,
병신칠갑을 하면 100% 지옥에 간다.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필독서! 민족종교와 문화를 지키는 필독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필독서! 나 한 사람의 방관傍觀을 깨달고 다른 이웃들의 방관을 깨닫게 합시다.

■ 다량 주문 시 특별할인 하여 드립니다.

주문 판매처 : 041)752-2164 ▶유명 서점에 있음◀

하느님들의 유일한 스승 석가모니불

만성(卍成) 김종성 씀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큰 스승이시며,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니라,
화생은 신들과 귀신들, 천신인 하느님도 화생이므로,
신들이나 하느님도 부처님 자식이며 제도 받을 자,
만유의 스승이며 만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니라.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주문 판매처 02)3672-7181 *유명 서점에 있음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선악의 결과는 오직 자신만이 받게 될 뿐 부모나
형제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덕스럽고
깨끗한 행동을 한다면 결과에 대해 두려워할 것은 없다.

- 출요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구사찰 양도
- 목조법당. 요사채등건물 4동
- 토지 900㎡. 건물 200㎡
- 전망좋으며 200년된사찰
- 양도금액 : 15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심속 사찰
- 57평규모에 1층 요사채, 2층 법당, 마당, 창고, 도시가스 등
- 모든 설비 완비되어 있음
- 인접 시장, 교통 편리
- 최근 개통한 부산항대교와 가까워 최상의 입지조건 갖추고 있음
- 가액 : 3억3천만원(금액협의가능)

051)412-0400

010-6768-7220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2천,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기수도권 ◎ 부지:180평 ◎ 법당:40평,전각2채 ◎ 요사:60평 ◎ 양도:5억
◎ 위치:경기수도권 ◎ 종교용지:1300평 ◎ 법당:50평,전각3 ◎ 요사:100평 ◎ 양도:1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부산시 남구 2층 건물 사찰 양도
* 2층 법당 1층 요사채660㎡. 토지약1650㎡
* 뒷편은산.바다전망.포교하기좋은사찰
* 양도금액 : 15억(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중구 동광동 사찰
- 법당 1, 요사채 1, 화장실 1
- 대지 200평, 건평 50평
- 양도금액 : 3억 5천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051)466-1004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충무동 포교하기 좋은위치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 입주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 1, 종무소, 공양실 1, 화장실 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구산면 소재
- 평수 128평, 법당 32평 (아미타, 지장, 관세음)
- 원불 500불, 인등 1,500등, 구위패 300위
- 산신 칠성 18평, 용왕 3평, 공양간, 신도방 3개(스님방 2개, 거실)
- 절입구 아파트 1만세대 조성중
- 가액 : 3억 가격절충

010-2567-136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사찰 암자 기도터 명당자리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 2길 484-3
- 면적 2,000평
- 거실, 산신각, 용왕전, 뒤산 밤나무 약 100주(매년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2억 5천만원

011-278-944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지하철 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3,300만원)

010-4142-6902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 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 직접

010-4409-13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에서 오래된 사찰 기도 많이 하는 지장도량
- 실평수 약 1,700평
- 시설 : 지장전, 산신각, 노천 지장석불, 요사채 3동 (방)10개
- 가액 : 6억 3천

010-3122-0077

사 찰 임 대

- 위치 : 경남 양산시 평산동 무지개 폭포 마을
- 1층 슬라브, 대지 84평, 건물 24평
- 삼존불, 후불탱화, 집기일체
- 비품비 총 1500만원 절충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15만원

011-862-27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법당 25평, 요사채 2개
- 공양간 2, 스님방 1
- 총평수 2,000평
- 후불탱화(중고탱화 매입함)
- 가액 : 1,000만 월30만 양도도 가능

051-468-9890

010-4741-3446

포교원,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000만원

010-4680-932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관세음, 지장, 산신, 후불, 칠성, 신중, 산신, 반야 용선 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35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766-3200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 평수 : 2200평
- 법당 25평, 산신각, 요사채 2동
- 몸만오시면 법회 즉시가능
- 종교부지300평허가확보
- 가액 : 10억

010-2939-6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271평 중 법당 22평
- 칠보 5존불(석가, 미타, 관음, 지장, 약사) 칠보 호신불 204불
- 시청, 은행 등 모든 관공서 도보 10분 거리
- 투자가치 높은 뒷산지상공원확정, 빌라지역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5천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5억 5천

010-2124-3620

포교원 안내

- 춘천 3,600평 3억 8천 전 임대지 전망좋음
- 경북 영주 3,600평 18억 사찰운영중
- 모든조건완비 대출가능 100억이상
- 수입창출가능 비교 불가한 좋은 조건 환경

010-4880-78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불사
- 주 지 : 광해 (송석만)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228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태을사
- 법 명 : 법진 (김유순)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산 34-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한국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 납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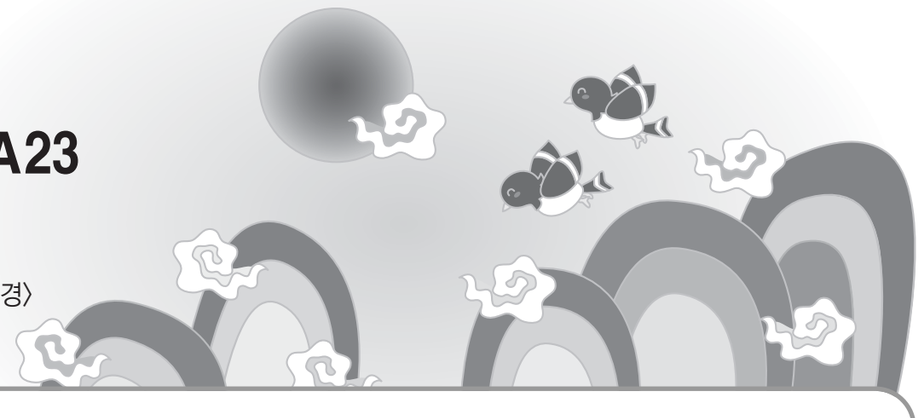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23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분노는
모든 독의 근본이지만 수행자는 분노를 없애 편안함을 얻는다. 〈출요경〉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민재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청량 범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도암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교육원장 원효 부원장 연아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민재 대광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소원 법수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원장 지현
중앙종회의원 대광 민재 연아 도하 법조 원효 도이
성화 법경 범수 혜인 혜조 혜성 도각
영암 지현 대언 지연
총무부장 혜조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성화 홍보부장 우연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충남교구종무원장 대오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남동부교구부원장 도각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총무 김임숙
신풍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사단법인정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신풍사
한국 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總務院長 華 應 中央宗會議長 大 烋

宗務處長 梁威燦

大本山 藥師寺
(약사추모관운영)
신도일동

仁川佛教新聞

發行人 華 應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理事長 韓相湖 (華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명예종정 지 산 대종사
종 정 석능인 대종사
원로의장 범 아 대종사

법계고시위원장 혜암 종회의장 법장 총무원장 대웅 사정원장 도안
중앙선원장 덕암 교육원장 무아 포교원장 용진 문도회회장 혜천

총무부장 혜광 재무부장 수연 규정부장 원담
호법부장 인연 사회부장 광명 사서실장 법연

울산종무원장 무정 경남종무원장 금조 부산종무원장 적명
충북종무원장 길상 전남종무원장 혜각 대구종무원장 법천
경기종무원장 상호 인천종무원장 진각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총본산 각황사
총무원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 담
총무원장 정 관

재무부장 행 우 포교부장 효 은 사회부장 인 호
홍보부장 행 수 호계부장 심 인 감 사 무 구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행수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054)701-0505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정신과 전문의)

〈1〉 빠져나가려면 통과해야

"고통을 받아들이면 해결의 길 열린다"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붓다에게도 아픔은 있었다. 바로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일이다.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의 저자이자 저명한 정신치료사인 마크 엡스타인에 따르면, 붓다의 출가는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결국 붓다는 수년 동안의 분투 끝에 트라우마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건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저자가 트라우마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마음챙김 명상' 과 '연기론' 이다. 이 두 방법은 트라우마에서 발생한 고통스런 감정을 초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고 세상 만물이 나와 이어져 있으며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당신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트라우마를 넘어선 완전한 자유로 인도한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독자여러분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 그 내용을 발췌 · 요약한다.

〈편집자 주〉



트라우마를 인정하라

붓다는 의사가 아니다. 물론 종종 의사로 묘사되기는 한다. 왜냐하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첫 가르침인 사성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붓다는 의사들처럼, 무엇이 질병인지 설명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처방을 내놓았다. 그런 방식으로 붓다는 당시 문화전통이 갖는 질곡에서 벗어나길 희망했다. 고대 산스크리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진실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붓다는 이런 관점을 거부했다. 붓다가 설법한 사성제 중 첫 번째, 단 한마디의 외침, "고(Dukkha)!"에는 즐거울 만한 것이 없다. 둑카(dukkha)는 흔히 '고통' 이라고 번역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을 맞대기 어려운' 이라는 뜻이다. 인간 존재의 곤경 전체를 붓다가 한 마디로 축약한 말이다. 만약 붓다에게 그가 의도한 둑카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달라고 요청한다면, 붓다는 아마도 폭포수처럼 많은 말로 설명했을 것이다. 생로병사, 슬픔, 통탄, 통증, 애도, 절망은 피할 수 없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봐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고통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유쾌하지 못한 현실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덧없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즐거운 경험을 한다 해도 결국은 불만이 스쳐 가기 마련이다. 즐거움은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 아무리 만족을 주는 것이라도 결국 끝이 있다.

붓다가 언급한 둑카는 또 다른 의미, 즉 인간의 불만족스러운 곤경을 보다 미묘하게 함축한다. 이 단어는 유래가 흥미롭다. 접두어인 '두(duh)' 는 '나쁘다, 어렵다' 는 의미다. 접미어 '카(kha)' 는 차축을 끼우는 바퀴의 중앙 구멍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뜻을 결합하면, '무엇인가 딱 맞지 않아서 곤란하다' 는 의미다. 나에게 뭔가 딱 맞지 않는 차축의 이미지는 나의 부적절한 느낌, 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느낌, 나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느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였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둑카의 어원을 생각해볼 때, 사성제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다르마의 바퀴를 굴리다"라고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붓다의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둑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았고, 부드럽게 바퀴를 굴리는 붓다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붓다가 성불하고 수년이 흘렀다. 다른 지역의 왕자가 기존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진리를 왜 선포했는지 붓다에게 물었다. 붓다는 즐겁고 바른 것만을 말해야 하는 산스크리트의 전통 원리를 이제는 따르지 않겠노라고 대답했다. 붓다는 이전과 다른 북을 치면서 나아갔다. "설사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참되고 복된" 것만을 설법하겠다고 말했다. 붓다는 이 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왕자의 무릎 위에 있는 아기를 예로 들었다. "아기가 만약 막대기나 자갈을 입에 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기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준다고 해도, 왕자는 그것을 입에서 빼지 않겠는가? 의사도 그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붓다는 주의할 점을 하나 더 언급했다. "만약 '말할 시점' 이라면 설사 찬동을 얻지 못하더라도 복된 진리를 말할 것이다." 오늘날 좋은 치료사들이 고심하는 것처럼 붓다에게도 적절한 방식과 타이밍은 중요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준비가 더 필요한 이에게, 붓다는 결코 트라우마를 직관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해탈해야 한다. 최고의 스승 붓다도,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에게 해탈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붓다는 "이 사람들은 매듭에 묶여 있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매듭' 이란 '즐거운 것' 만 듣고 '듣기 싫은 것' 은 거부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붓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소위 '정상적인 것' 을 추구했다. 우리가 발을 디딘 지반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경향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소설가 윌리엄 스타이런이 언젠가 이 사실을 완벽하게 표현한 적이 있다. 파리에 머물던 젊은 시절, 스타이런은 늘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조용히 읊조리겠지만, 스타이런은 과감하게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날리는 눈송이처럼, 나는 다시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을 거야. 내 고향 제임스 강으로 가서 땅콩 농사를 지을거야."라고 신음하듯이 말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기꺼이 인정하는 스타이런의 의지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의 덫에 매여 살아간다.

> "트라우마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붓다는 "매듭에 묶여 있다"고 말해 매듭이란 즐거운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 거부하는 태도 밝은 눈으로 고통 잘 살피면 그 고통은 사라지기 마련"

붓다의 트라우마

트라우마와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의 리듬은 마치 거대한 지하수처럼 불교의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다. 내가 지하라고 말한 이유는 불교가 보편화된 문화에서도 항상 이런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붓다 이야기의 핵심에는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가 숨어 있다. 그 트라우마는 잘 알려졌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오랜 세월 별다른 관심을 못 받았지만 한없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붓다의 어머니는 붓다를 낳은 뒤 7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붓다의 일생을 다룬 신화와 전설이 수없이 많지만, 붓다의 어머니가 일찍 숨을 거두었다는 이 사실을 명징하게 탐색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붓다 일대기를 살짝만 파고들어가도 그 안에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유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은유의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아마 마음속에서 붓다를 계속 괴롭힌 무엇일 수도 있다. 아니면 너무 어린 시절에 경험한 고통인 나머지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지 않아서, 틀림없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무엇일 것이다. 자비로운 부모의 양육, 기쁨과 부유함과 정성 어린 보살핌, 이런 것이 붓다에게 모두 주어졌다. 그럼에도 나중에 붓다가 된 젊은 남자는 무엇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어린 시절 생모를 잃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생로병사의 현실과 직시하면서 생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어린 시절의 상실에 따르는 알 수 없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이라는 주제와 틀림없이 연관된다. 매일 일어나는 트라우마는 우리를 엄마 잃은 아이처럼 만들어 버린다.

트라우마로 남은 감정의 원인을 밝혀내는 문제는 그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상이란 도전의 연속이므로 우리가 감정을 위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은밀한 감정은 자면서 꾸는 꿈쯤으로 치부돼 한쪽 구석으로 내몰린다. 우리는 모두 정상적인 삶을 원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해도 그 삶은 고되고, 할 일이 많고, 위협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상처를 받는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제멋대로고, 우리의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상실은 우리 삶에 늘 있다. 누구나 제 나름으로 고통을 겪는다. 별로 잘못된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생로병사는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넘실거리면서 다가온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는 트라우마에 직면한 붓다가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 마음의 지평을 넓혀간다는 내용이다. 불교에 입문할 무렵 내게 불교를 가르친 스승인 조셉 골드스타인은,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방법을 의미심장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빠져나가려면 통과하는 수밖에." 자각(awareness)의 대상인 정서적 고통은 매우 유익한 결과물을 낳는다. 정서적 고통은 여러 성질, 예를 들면 다양성 강도(intensity)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마음을 훈련하는 수단으로 매우 쓸모 있다. 붓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는 붓다가 이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붓다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붓다는 공감이나 적절한 반응 같은 것을 이끌어내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면 환경을 스스로 창조했다. 붓다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모범이다. 우리가 직면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감정을 이용해 우리 마음이 바로 넓은 바다가 돼야 한다.

붓다의 설법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통의 종식"이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즉 고통과 고통의 종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붓다는 조심해서 단어들을 선택했다. 밝은 눈으로 고통을 잘 살펴보면, 그 고통은 사라진다. 정신치료사로서 붓다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붓다 가르침의 위대한 약속은 고통이 단지 사성제의 첫 번째일 뿐이고 고통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사성제의 다음 순서가 열린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붓다는 다르마의 바퀴를 굴린다.

붓다는 세 번째의 진리인 고통의 종식과 거기에 이르는 팔정도의 길을 밝힌다. 붓다는 자신의 설법을 듣는 사람에게 모두 희망을 가득 불어넣는다. 트라우마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즉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로 끝나지 않는다고 붓다는 말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마크 엡스타인(Mark Epstein M.D)은…



정신과 전문의. 하버드 의대 재학 시절인 20대 초반부터 불교 수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현재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을 통합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저서로 〈붓다의 심리학(Thought without a Thinker)〉과 〈함께하며 나로 완전해지기(Going to Pieces without Falling Apart)〉 등이 있다.

이 글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謹賀新年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조 실 포산 혜인
교구장 운곡 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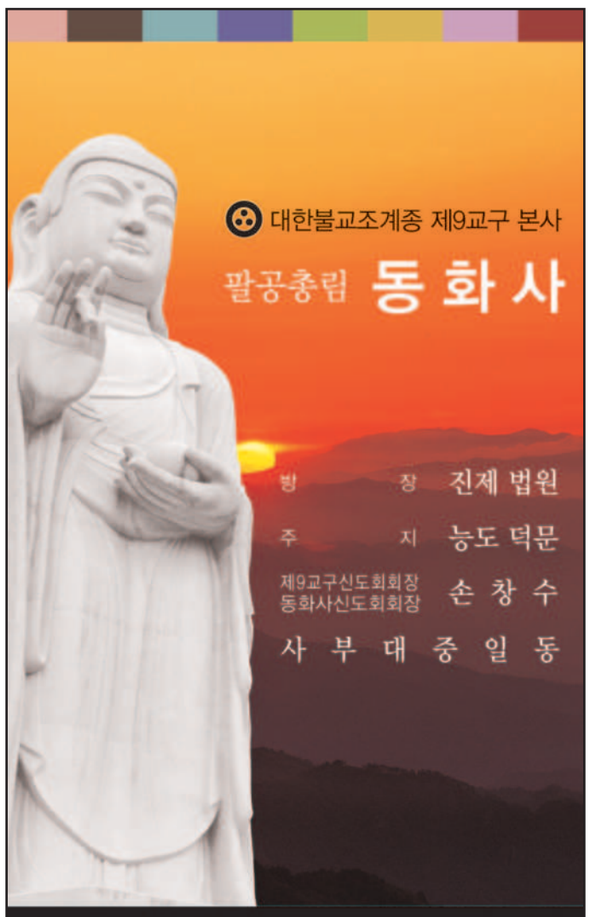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 지역의 전통 명문사학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해사 수림장
054)335-0566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홈페이지 www.eunhae-sa.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동화사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www.donghwasa.net

〈 동화복지재단 〉
동화사자비원, 동원어린이집 , 선우어린이집, 자비의 집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 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 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대행 스님

초 켜는 거와 내 마음의 불을 켜는 거와 둘이 아니다!

희망의 한 말씀 해 주세요

질문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생살이에 희망을 갖기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는 이가 많은 지금의 시기에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이나 희망의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나는 자기를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를 믿고 거기에 맡겨 놓을 줄만 안다면 윤택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 50%와 보이는 데 50%가, 100%가 한데 합쳐져서 서로 공용(共用)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공덕이, 이익이 많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수없이 수십 년을 해 왔으니까요.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데서 공해서 돌아가는 이 세계의 그 도리를 모른다면, 자기가 지금 공생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극히 어렵습니다. 믿는 것도 바깥에서 찾죠, 말을 해도 만날 음파가 바깥으로 나가죠, 만날 원망을 하죠. 그러니 자기에게 이익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자꾸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스님, 내가 지금 3년째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스러워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난 "알았습니다." 이런 거밖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 공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죽어 나를 만나고, 내가 두 번 죽어 둘이 아님을 알게 됐고, 내가 죽어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알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구경경지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이 나툰다 하는 것은 내 배 속에, 내 몸속에 있는 것만 해도 의학적으로 본다면 간단히 비유를 한대도 10억, 13억이라고도, 간단히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하나의 의식이 만 개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러한 도리를 알기 위해서, 자기 자(子)는 부(父)를 상봉하기 위해서 모든 걸 부에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믿었을 때 바로 일차적으로 죽는 겁니다. '나를 죽여 나를 발견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모두 성취를 하고 갑니다. 그래, 어느 여자 신도 말이 그렇습니다. "스님 한테 말씀을 드리니 스님은 '알았다' 고 한마디 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금방 취직을 시켜 주시고 지금은 공부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잘 되게 했습니까?"

나는 그거밖엔 없어요. "네 주인공을 네가 믿고, 한마음 주인공을 네가 믿고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준다고 믿어라. 모든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재료로 알고 믿어라. 그리고 맡겨라. 그것이 연구하는 거며 바로 실험하는 거며, 그것이 체험하는 거며 무에서 유로 나오는 법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병을 낫게 하고, 내가 잘나서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내가 잘나서 무슨 가난을 면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체 만법을, 만생을 다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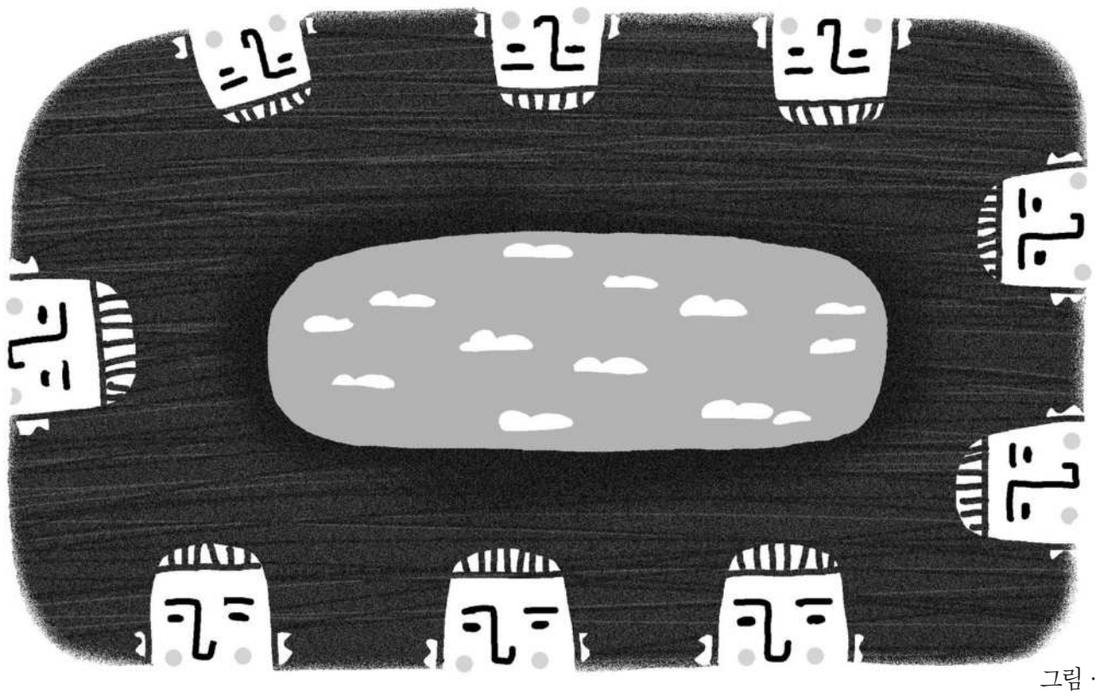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육법공양의 의미

질문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육법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스님께 그 의미에 대해서 여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려는 보살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화엄경』에도 쓰여 있다고 하시면서 제일가는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 향, 차, 꽃, 과일, 쌀은 일반 서민들도 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물건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듯 귀중한 공양물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공양을 올린다고 할 때 초공양, 향공양 이거를 제일 먼저 하죠. 그래서 초공양을 할 때 이 초에 불을 켜고 자기 모습을 태우듯이 태우고 가죠. 그렇게 자기 모습을 태우듯이 촛불을, 마음의 불을 켜기 때문에 모든 업보와 또는 인과성, 유전성 또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이 불을 켜듯이 내 몸을 태운다. 이것은 무명도 벗기고 모든 욕심, 집착, 관습 이런 것을 모두 태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초를 켜는 거와 내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을,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을 방편상 보이게끔 이렇게 초를 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 켜는 거와 내 마음의 불을 켜는 거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초를 켜서 무명을 다 사르고 나면은 향공양을 올리시죠. 향을 공양을 올려서 그게 두루 향내음이 날 때 비로소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이 모든 향내음으로써 공식을 삼는다. 즉, 양식을 삼는다. 그런데 공식이란 건 전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양식을 삼는다 하는 소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꽃공양입니다. 마음의 꽃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예뻐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마음의 꽃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서 상징이 되는 것이 꽃입니다. 가섭 존자도 꽃을 드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얼굴로서 꽃을 피웠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거와 다름없는 꽃공양. 꽃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꽃공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루 한다는 뜻이죠. 꽃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마음의 그 꽃을 피워서 이 한 단계가 넘어가면은 열매가 맺는다.

그 뒤에는 과일공양이 올라갑니다. 과일. 그래서 그 마음의 꽃이 피는 데에 그 단계가 올라가면은 열매가 맺어서, 이 모습을 나무라고 한다면 제 나무에서 스스로서 무르익은 과실은 일체 중생이 먹고도 남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갖은 각색의 과일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꽃과 과일을 공양 올리는 것은 그러한 뜻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떡공양을 올립니다. 모가 나지 않게 둥근 떡을 올릴 때는 떡이 떡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구의 공기주머니에 들어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듯이 둥글게 그냥 떡 하나입니다. 떡공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둘로 보지 말라. 너의 생명같이 생각하라. 너의 모습같이 생각하라. 너의 아픔같이 생각하라. 네가 배고픈 것같이 생각하라. 또 내 부모와 같이 생각하라.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라.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하라. 이 전부 둘 아닌 도리, 즉 말하자면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니 공식으로써 이렇게 전부 두루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다.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꾸려도 바꿀 수 없는 떡 하나다. 이 떡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도 방편이다 이겁니다. '한 점' 이라고 해도 되고 '한 떡' 이라고 해도 되고 '한 꽃' 이라고 해도 되고 '한 물' 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은 뭐, 이름은 이름이지 그거는 진실한 실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 놓는 겁니다. 떡은 표현, 방편을 여러분이 잘 알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우리 지구를 볼 때도 이게 떡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떡 안에 우리가 다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을 지금 공양 올리는 건 모두가 같이 하

☞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불법을 홍포하고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선양해 온 (사)대한불교선교종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한국불교 중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대한불교 선교종

종정 법운 총무원장 삼주 이사장 화엄

원로의장 용암
원로부의장 명종

종회부의장 보각
경기남부종회의원 도원. 일성
경기북부종회의원 지산
경북종회의원 법연
전남종회의원 자각. 지산. 지현
충남종회의원 삼규
제주종회의원 동해
부산종회의원 재성
대전종회의원 정원
사무처장 도천

총무부원장 상원
교육원장 보월
포교원장 지현
감사원장 성일
선거관리위원장 재성

총무부장 광은
교무부장 법광
재무부장 정원
포교부장 동해
규정부장 혜명
비구니회회장 보현
비구니회부장 연수
자비실천나눔회장 광명심
봉사위원장 청정심
봉사부장 수연
조직위원장 문상철
문화부장 연화

총무국장 도천
교무국장 송암
재무국장 보성
포교국장 삼규
사회국장 정수
홍보국장 도화

경기남부종무원장 일성
경기북부종무원장 지산
경북교구종무원장 법연
전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충남교구종무원장 삼규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천
제주교구종무원장 동해
대전교구종무원장 정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재성
대구교구종무원장 보각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 화 041)566-2277. 566-2278 팩 스 041)566-6141

나한테 보배와 능력이 있는데 어디서 찾는 겁니까

☞ 25면에서 계속

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기 올리죠. 맨 마지막이 다기예요. 모두들 그저 먼저 올리고 나중 올리고 그러지마는 이 뜻으로 볼 땐 그렇단 말입니다. 다기는 이 큰 바다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기, 조그마한 그릇의 물 하나지마는 큰 바다로 비유합니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다기는 그렇게 크단 얘기죠. 그래서 이 다기공양을 올린 때 이것이 바다에 구정물 흙물 고름물 송장물 뭐, 별의별 것이 바다에 다, 고기 썩는 물 다 들어가도 여여하게 아무 지탄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는. 싫다 좋다 말 없이 말입니다. 지금 시쳇말로 하면 다 받아들여서 수증기로 올린다 하죠. 그 요만한 그릇의 다기 하나가 큰 바다로, 바다가 돼서, 바닷물이 돼서 어떠한 물이든지 모두 다 바다에 한데 합쳐져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를 해서 다시 내려온다면 요만한 풀 한 포기도 안 먹여 살리는 게 없다.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수증기로 정화돼서 다시금 내려올 때는, 풀 한 포기도 물 안 먹고 못 견디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먹고 큰 건 큰 것대로 먹고 양껏 먹죠, 모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게 먹일 수 있느니라 한 뜻입니다.

그래서 다기공양을 올리고 떡공양을 올리고, 밥공양도 마찬가집니다. 밥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미로 올리는데도 한 공양입니다. 한 그릇의 공양. 떡 하나를 가지고 지구 하나다 이래도 되고,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지구 하나다, 우주 하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생명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요. 그곳에 다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허공중에 공 하나가 둥둥 떠 있는데 그 공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어요. 갇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육법공양을 올리는 원인은 '이 공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선악이 없는지요?

질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과 악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의 윤리이고 도덕인데 불교에서는, 특히 선 공부를 하는 분들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 진정 선도 없고 악도 본래 없는 것인지요? 스님께서는 선도 악도 없다고 가르치시는데, 본래 선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요, 아니면 차원이 높으신 분들의 차원에서만 그런 것인지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범부에게 선도 악도 다 놓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또한 어떤 뜻인지요?

답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수적으로 이것을 믿고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세상만사가 돼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참나' 인 자신의 뜻을 중시하고, 항시 그 뿌리를 믿으십시오. 거기에다 거름과 물을 줘서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와 잎새가 아주 싱싱하게 자라서 제 나무에서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그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따서 그런 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나무가 무성하질 않아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익지 못해서 그냥 말라 버리는 형상이니까 맛이 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공부도 역시 그러합니다. 한 치도 에누리가 없는 공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슨 판결을 내려서 1년, 2년 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법에 의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해외 지원으로 바쁘게 휘몰아치고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 내에서도 정신이 없어 합니다.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고 뭐, 거기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도 그렇고 아주 정신이 없어 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치니까요. 그래서 저기서 설법을 하고서, 비행기를 금방 타고 와서 또 여기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니까 저녁나절에는 피곤함이 좀 옵디다. 그래서 바람을 쐬려고 스님들하고 모두 산책을 하다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겁니다. 항상 알고 있고, 항상 하고 있고, 뜻으로도 항상 그렇건만 말입니다. 새카만 사람이 새카만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데 새카만 초콜릿을 손에 쥐여서 이렇게 물리고 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구나.' 하하하…. '이게 모두 철칙 같은 법이고 조금도 에누리가 없구나. 흑인이 백인 낳는 거 봤나?' 하면서, 속으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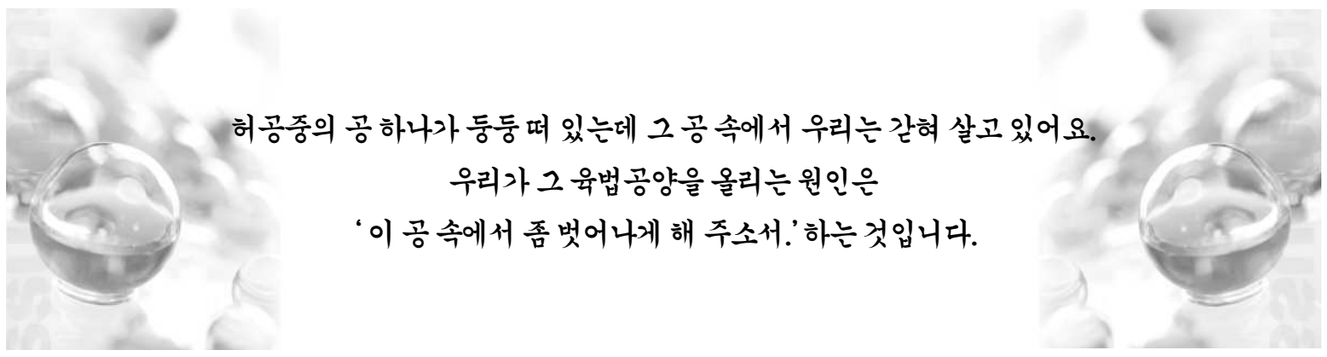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딴 사람이 모르거나 안 본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못해 보고 갑니다. 그렇게 에누리가 없건만. 요 조그마한 데서부터 끝까지, 끝에서부터 또 끝까지 돌아가면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그걸 새삼스럽게 본 건 아닌데 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혼자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허허…. 그러고는 궁둥이를 탁탁 털고 일어서서 오면서 같이 산책 나온 스님네들더러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우습다고 웃고들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세상만사,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가 그렇게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여러분은 천당 지옥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니까 천당인 거고 지옥이라니까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들 그냥 멋들어지게, 아주 유유히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에누리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을 해서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소같이 살면 소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으로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로 나올 것이고…. 하하하.

그런데 오간지옥이니 칼산지옥이니 또는 독사지옥이니, 이 모든 지옥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다' 하면은 짐작으로만 그냥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다가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의 모습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자동적으로 땅속으로 다니는 독사 소굴에, 독사의 암컷 수컷이 행하는 거기다가 그 영령이 집어넣어져서 그냥 독사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그냥 독사로 살아왔으면 별 문제인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독사로 들어가서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살듯이 어떠한 한 목어치만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고 하는 말은, 전부 헌갓쟁이 모양으로 다니며 그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땅속 깊이 뚫고 다니는 이런 것들 소굴에다 그냥 넣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넣어진다면 땅속으로 기어다니는 벌레가 될 테니까 그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진화돼서 또 인간까지 벗어나려면 얼마만큼 헤매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하고, 좋은 행동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사대 성인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쁜 일이 또 거기 끼어들게 마련이니까 나쁜 일도 놓고 좋은 일도 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 그런가. 나쁜 일 좋은 일을 막론하고, 그 생사윤회 속에서 완전히 해탈해서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 좋은 일을 해서, 그 선덕으로 인해서 좋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나쁜 일도 하게 되니까, 또 짓게 되니까 아예 '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이런 뜻에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나도 길잡이로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질문 스님! 저는요, 절에 다닌 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업을 하다 전부 실패를 해서 오고 갈 데가 없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봄날 인제 떡집에다 갖다 판다고 쑥을 뜯어 가지고 시장에 가져갔는데 토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토큰 하날 가지고 차를 탔으니까 이제 토큰이 하나도 없죠. 그래 시장 앞 떡집에 갔더니 떡집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 올 차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자 토큰이 내 발에 딱 밟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왔는데, 저도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다니는 절에 갔는데, 제가 또 벌어야 되니깐 삼 일 동안만 가서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저를 도와주려니 생각을 하고 삼 일 동안을 갔는데 마지막 회향날 오천 원을 줬어요. 아빠가요. 그랬는데 법당에 가서 절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목소리로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야, 나가라. 나가, 나가."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살 길이 없어서 삼 일 기도를 했는데, 절이라도 세 번 해야지 어떻게 한 번 했는데 저를 나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제가 이렇게 세 번을 하니깐 어떤 아이가 와서, 내 지갑을 요렇게 봤는데 지퍼를 착 열면서 그 돈을 마저 가져가요. 그래서 '아휴, 부처님이 그 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러고 불전에 가서 천 배를 했는데도 한 한 시간밖에 안 한 거 같은 기분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다가 보이지 않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그 부처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맞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귀에서 들린다고 해도 모든 것을 놔 버리셔야 됩니다. 귀에서 들리지 않고 마음에서 스스로서 그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내가 '이게 부처님이지.' 이렇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향기와 빛을 스스로 내가 바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맛을 볼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바깥으로 찾아서도 아니 되고, 바깥에서 들려도 아니 되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 됩니다. 그것은 안으로 바깥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도 안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보이기만 하고 끄달리고 돌아다닌다면 아니 되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바로 안으로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일심에서 만법을 응용하는 것이 일심으로 든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건 안에다 놓고, 안에서 나가는 거는 나가는 것대로 또 여여하게 걸림 없이 사시면서 또 안에다 놓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으로 전달하신 부처님의 뜻을, 우리 선배 부처님의 뜻을 아마 똑바로 진행하실 겁니다. 우린 그 뜻을 똑바로 받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도, 만약에 그것이 지금도 산다 그러면 살고 죽는다 그러면 죽고 그런다면 허, 이것은 타의에서 하는 소리지, 자의에서 그대로 빛이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또 맛이 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서 자기 능력이, 빛이, 지혜가, 향기가 나오면 그 맛을 스스로서 아는 것이 바로, 바깥으로 내 몸도, 승보도 그러하다 했으니, 그것도 일으키려면 일으키고 만약에 죽이려면 죽이는 거죠.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니까. 옷을 벗으려면 벗고 말려면 마는 것도 자기예요. 자기한테 다 보배가 있고 자기한테 그 무수한 능력이 있으니 자기한테 맡겨 두면, 그리고 시봉만 잘 들어 주면 혹 옷을 천천히 벗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새 아침을 열며

사홍서원이 바로 불교의 초심이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우리 불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펴고 있는가? 그런 불자로 살고 있는가? 지난 해 불교계를 돌아보면 참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수많은 내홍, 추문 등으로 얼룩져 과연 불교의 본 모습, 불자의 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케 한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그러한 근본적 물음에 답하는 한 해를 꾸려가야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물음을 애써 잊으려 하기 보다는 더더욱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고 그 해답을 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리라. 그것은 바로 불교의 근본마음, 불자의 근본마음을 묻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바로 그 초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다. 어렵고 복잡할 때일 수록 원론에 따라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스님들이 처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다. 계초심학인문(戒初心學人文),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자경문을(自警文) 합해 이르는 말이다. 바로 이 순서대로 우리 불교와 불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될 것이다. 우선 초심을 확인하고, 그 초심의 발원을 되새기며, 지금의 우리를 경계하고 앞날의 서원을 다시 세우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초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새로 태어날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태교를 하고 음식을 가리고 등등. 훌륭한 아이, 머리도 좋고 심성도 곱고 몸도 튼튼한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그러다가 정작 출산이 코 앞에 다가오면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 밖에 없다. 그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만을 바라게 된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차차 욕심이 붙는다.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늘기 마련이다.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왜 이건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며 사랑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마음이라고 강변한다.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순수한 초심의 사랑, 그것은 아이를 낳기 직전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순수한 바램을 잃지 않을 때, 부모의 사랑이 빛을 내고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 초심을 잃게 되면 사랑은 오염되고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된다. 그래서 서로를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초심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출생과 같이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초심이 조금 다른 모습을 띈다.

어떤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위해 우리는 충분히 숙고해야 하며, 여러 조건들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이루어져 일단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을 되물릴 길은 없게 된다. 우리의 선택에서 배제된 길은 '걸어보지 못한 길' 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외길이라도 빨리 포기 해야 한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중히 선택한 길이라면 그런 길일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지?" "이만하면 됐으니까 적당히 샛길로 빠질까?"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수 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 타협을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결단을 내릴 때의 초심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왜 내가 이러한 길을 걷기로 했던가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회의나, 샛길로 빠지려는 방황들이 초심의 서원을 지탱하지 못하는 게으름이나, 삿된 욕망서 오는 변명이 아닌가를 엄한 눈으로 살펴야 한다. 조금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려는 마음, 안일에 빠져 삿된 길로 가려는 탐욕서 오는 회의나 방황보다는 바른 마음에서 세운 서원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바른 마음에서 세운 서원과 건강한 정신 상태서 내린 결단 그것이 바로 초심이다. 그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전을 읽지 않고, 수행방편 하나 지니지 않는 이름만 불자인지 돌아보자"



그렇다면 불교의 초심은 무엇이며, 불자의 초심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말할 것 없다. 사홍서원이 바로 불교의 초심인 것이다.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요 불자의 초심이다. 이제 우리는 그 불자로서의 발심을 확인하고, 그 것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초심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초심이 중요하다. 그것은 위에서 아이의 출산을 빗대어 말한 것과 같다. 많은 바램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바램, 그것이 초심 가운데서도 초심이다. 또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큰 마음을 내어 너무 지켜나가기 힘든 큰 서원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그 서원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다시 말해서 초심의 초심에 해당하는 기본을 살펴야 한다. 그것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스님이 출가할 때 부귀영화를 누리려 출가했을까? 제대로 스님이 된 분이라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절실한 마음이 그 출가의 동기에 있으리라.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 불자가 된 까닭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그 초심에 부귀영화를 꿈꾸는 마음이 자리했다면 그 초심 자체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행복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불자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 궁극적인 행복, 깨달음을 통한 완성의 길이라는 지고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부처님을 향한 서원에는 보다 질 높은 삶을 향한 향상의 의지가 있다. 이 향상심을 다시 찾는 일, 이것이 바로 초심의 확인이요, 초심에 되돌아감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스님과 불자가 될 때의 마음, 그것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여건에 핑계를 대지 말자. 그저 복을 달라고 부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행태에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자. 현실적인 여건서 초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만 돌아보자. 사홍서원이라는 큰 서원, 그것이 너무도 크고 아득해 현실에 구체화하는 일은 아에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가까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장의 번뇌를 다스리지 않고, 일년에 경전 한권도 읽지 않고, 불자로서의 수행방편 하나도 지니지 않고 그럭저럭 불자라는 이름만 붙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초심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지만, 초심은 대체로 순수한 시작이기에 그것이 잘못일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하나 뿐이다. 출가자나 재가자나 지금 바로 여기서 '초심'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뿐이다.

社說

광복 70년, 한국불교의 역할

올해 2015년은 을미년이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1945년에 일본에게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 광복이 된지 70년이 된다. 경사스런 해이다.

우리 한국불교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역사와 지난한 동고동락을 했다. 격동기에는 의지처가 되기도 했으며, 사회가 암울할 때는 함께 아파했다. 부처님 가르침처럼 중생을 떠난 불교는 있을 수 없다. 중생심을 갖고 그들 속에서 우리 한국불교는 항상 숨쉬어왔다. 앞으로도 그래야 하며 그럴 것이라 믿는다. 한국 불교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국들을 돌이켜보면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두운 뉴스도 많았다. 특히 지난해가 그랬다. 한국불교는 스님들의 음주와 도박 등의 범계 행위로 끊임없이 사회면 톱을 장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 20년 후의 불교가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 를 통해 불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물론 큰 성과보다는 단순한 이벤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도 자정을 위해서, 이 사회에 큰 의지처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급변하는 IT와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 불교도 변하기 않으면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불교가 대중속으로 나와 새 길을 열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때다. 한국불교가 우리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에 발맞춰 우리 불교도 이에 맞는 포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올해와 같이 의미가 큰해 한국불교가 다시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발원한다.

협력적 '공유사회' 불교가 선도하자

'공유 사회' 는 사실 한국에서는 생경한 개념이다. 최근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사회〉가 소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유 사회의 기본은 자본이 아닌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는 부의 편중,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다. 한국사회도 벌써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돈에 의존하는 삶' 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 인간의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사람에 의존하는 것' 이다. 사람의 협력, 협동관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미래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결국 인간들이 협력과 공유를 통해 삶을 영위하겠다는 공유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과제이다.

공유 사회라는 개념과 불교 사상은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인드라망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의상대사의 법성게, 발우공양 의식에 담긴 연기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와 협력해 살아가는 공유 사회의 원리와 비슷하다. 불교가 공유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복원' 과 '생태 발자국 줄이기' 다. 애초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지금도 대중 생활을 통한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공동체 운동에 있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불교계인 만큼 몇몇 사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생태 발자국 줄이기' 에 나서고 있다.

공유와 나눔, 돌봄과 협동은 아주 중요한 미래의 가치이자 공동체적 가치이다. 수많은 천지 자연과 중생의 은혜를 입고 있는 나는, 그들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을 사는 것이 돼야 한다. '자리이타' 는 불교의 근본 가치이다.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돌려주고 쓰이도록 해야 한다.

공유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다.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행

(재)한국불교조계종 신년 하례 법회

(재)한국불교조계종 신년 하례 법회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고자 원로대덕스님,
본 종단의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께 서면으로 공지하오니 부디 參席하시어 法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보 현

사서실장 청묵

종회의장 용주 포교원장 지웅 교 육 원 장 석천 호계위원장 대화
호법국장 경오 사무총장 청호 비구니회장 혜양 총 무 부 장 대명
경기종무원장 성문 부산종무원장 해강 대구종무원장 효상
강원종무원장 혜성 경남종무원장 청강

(재) 한국불교조계종 신년하례 법회
■ 일시 : 불기 2559년 을미년 1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 문의 : 총무원 (불광사) 010-8524-8080

입 종 안 내
① 입 종 서 류
사찰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이력서
② 발급증명서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전화 : 010-8524-8080
(재)한국불교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본종단과의 소중한 법연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도로써 널리 불법을 홍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 중흥교원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2015 乙未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망을 발견해서 불을 밝히라

대행선사법어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 031-470-3100 F) 031-470-3116**

그림 전정구

무소유 삶 '공유 사회'로 가는 지름길

왜 '공유사회'인가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조계종환경위원

지금 우리는 '공유, 나눔, 협력, 협동'이 화두인 사회로 나가고 있다.

대전의 한밭레츠(Lets)는 이미 15년 넘게 지역통화(Local Currency)를 실시해온 곳이다. 700여가구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건을 '두루'라는 자기들만의 화폐로 상호품앗이하며 공유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지역통화는 은평의 'e품앗이', 성남지역화폐 '누리' 등 전국에 4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로 공유되고 나누는 것이 많아지면 실제의 현금사용은 줄어든다.

홍대앞 성미산마을공동체는 1994년 육아공동체로 시작하여 19년간 지역공동체를 안착시켜 너무도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은 인문학 독서클럽, 연극 · 사진 동아리, 합창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무말랭이' 극단, 주민 노래패 '진동', 성미산풍물패, 울림두레생협 합창단 주민 밴드로 '아마(아빠 · 엄마의 준말)밴드'와 '7013B', 사진 동아리인 '동네사진관', 아빠들의 독서모임 '이런저런' 등 가히 전국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표본이 된 곳이다.

여기에 최근 시도되고 있는 것은 코하우징(Co-Housing 공동주거)이다. 9-10가구가 협력하여 작은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이름하여 '수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다. 입주민들이 1~2년 전 설계부터 참여해 직접 만든 '공동주택'이다. 이들은 함께 모여 밥을 해먹고, 영화를 보고 함께 기타를 배우기도 한다. 건물실내 전체가 마루가 깔려 복도를 맨발로 걸어서 이웃집 문을 두들길 수도 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온 아이가 공용공간에 가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도 안정감을 느낀다. 성미산에는 현재 소행주 3호까지 건축되었다.

최근 셰어하우스 (Share House)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집을 같이 사용하면서 비용도 줄이면서 서로 협력하며 사는 공동체이다. 김포공항 가까이 검단역 근처에 20여명의 청년들이 '우동사(우리동네 사람들)'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다. 대부분이 불교단체인 정토회의 대학생과 청년회출신으로 인도와 필리핀 등 국제구호활동과 사회활동을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로 서로 각별한 관계라 함께 집을 얻어 살며, 농사도 함께 짓고, 협동조합식 카페도 3곳을 운영한다. 이들은 공유사회 만들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도시, 나눔 문화가 확대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아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캠핑용 텐트나 집수리용 장비 등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빈방을 외국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도시민박,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나눔카(카셰어링),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남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주차장 공유, 일주일에 낮 시간이나 저녁시간 일부만 사용하는 강당이나 사무실 회의실을 필요한 사람에게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공유문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운동과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을 정도이다.

2013년 8월 30일과 3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2014 공유서울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25개 공유단체 · 기업,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였다. 이곳에는 책을 공유하는 공유 서가 만들기, 공구를 공유하는 공구도서관 만들기, 자꾸 커가는 아이 옷 공유하기, 쉽게 질려하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공유하기, 자주 입지 않는 정장을 서로 공유해 입기도 하고, 중고물품, 공연에 사용하는 의상과 물품 등을 공유한다. 또한 카풀의 활용 등을 통해 서로 공유하며, 여행경험을 공유하고, 개인재능 경험 지혜, 지식을 공유한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먼라이브러리, 교회, 독서실, 텃밭 등을 공유하는 활동이 이미 시작되어 활성화되었거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진행되고 있는 수 백개의 마을만들기 운동, 풀뿌리공동체운동의 본질이 바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공동체로 사는 운동들이다.



그림 · 강병호

세계는 공유사회로 진화 중
리프킨, 협력적 공유사회 강조
공동주거 · 카쉐어 · 협동조합 등
'공유' 개념 사회화 관심 높아져

공생 · 협력 · 나눔은 미래의 가치
호혜적 경제기반 '관계 회복'
지구 생태계 등 환경문제 해결

한계비용제로의 사회가 온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한계비용제로사회〉에서 사물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발달로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료수준의 사회(한계비용제로의 사회)로 이동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는 다음 반세기에 걸쳐 쇠퇴하여 '협력적 공유사회'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지배적 모델로 자리 잡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과거 1, 2차 산업은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여 파헤치고 이용함으로써, 열역학 제2법칙에 의거, 무질서도가 높아지고, 사용가능한 자원이 사용불가능한 자원으로 전환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환경위기 기후변화라는 '엔트로피 청구서'의 과보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이제 직선적인 성장이 아니라 순환경제를 토대로 한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이며, 1차 및 2차 산업혁명의 기술플랫폼이 상의하달식 명령과 통제방식을 갖춘 수직적 중앙집권형으로 설계된 것이라면 이제 3차 산업혁명의 결과 협력적 공유사회 시대는 분산과 공유로 나가게 된다고 말한다. 경제적 성과만을 척도로 한 GDP 중심의 생산은 줄어들 것이고, 더 이상 의미있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시장과 경제의 교환가치중심의 사회에서 협력적공유사회로 가는 것은 사물인터넷의 분산성과 상호연결적 특징으로 의도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이반 일리치(Ivan Illich)는 우리 사회의 노동이 대부분 〈임금노동 (지불노동)〉만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사, 보육, 협력, 나눔의 가사노동 등 〈그림자노동 (무불노동)〉은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근본활동이라고 말한다. 현대사회는 훨씬 더 많은 무불노동을 기반으로 임금노동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노동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그는 나눔과 공유, 베품과 돌봄노동 등 임금으로 매매되지 않는 노동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이며 자립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고유한(vernacular) 노동'을 즐기는 공생(conviviality)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한 칼 폴라니 (Karl Polanyi) 는 노동,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므로 시장의 매커니즘에 의해 포섭될 경우 악마의 맷돌에 의해 인간사회가 '갈려지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전에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 (Herbert Spencer)는 다윈의 자연인식을 사회에 잘못 적용하여 적자생존, 약육강식, 생존경쟁으로 규정,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계급사회를 지지했지만, 자연은 상호부조와 공생과 협력이 근본이며 협력한 종이 진화과정에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을 밝힌 크로포트킨 (P. A.Kropotkin)은 결국 인간과 인간간의 협동과 협력을 중심으로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돈 아닌 사람에 의존하는 사회

앞서 말했듯이, 마을 주민들의 모임 공간을 위해 건물을 지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쓰지 않는 시청, 구청, 자치센터 회의실과 강당을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모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간 교류가 늘어나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되면서 끈끈한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하게 도니다. 또한 이러한 공유는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과잉소비로 인해 자원이 과다 사용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는 하나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을 사용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적게 사용하게 된다.

갈수록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파트타임노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때 결국 돈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모두에게 행복을 줄수 없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발전으로 생각하는 인간에게 지금같은 무한한 수직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한 성장주의로 인해 지구생태계는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도 벌써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돈에 의존하는 삶'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 인간의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람의 협력, 협동관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미래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이치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끼리의 결합, 협력, 상호부조와 협동밖에 없다. 약한 사람들도 결국 약자들끼리 협력이 살길이다. 청빈과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온 것은 불교 오랜 수행의 전통이며, 무소유의 삶은 이제 불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인류가 이루어야 할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종교는 결국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의 종교로 전락한다. 돈이 우상이며 중심이다. 대학도 결국 고급 직업훈련소로 전락했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하는 것도 결국 계층상승의 욕망이 투영되어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비틀어진다.

공유와 나눔, 돌봄과 협동은 아주 중요한 미래의 가치이자 공동체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들 공유와 협력은 "내 것이 있다"는 소유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이치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는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나의 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수많은 천지자연과 중생의 은혜를 입고 있는 나는, 그들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을 사는 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돌려주고 쓰이도록 해야 하고 자신도 잘 쓰이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부인도, 내 아들 딸, 집도 나무도, 토지와 땅도 내 것이 아니다. 만일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명확하다면, 이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을 가장 잘 쓸 사람은 누구일까를 찾아야 한다. '나는 누구에게 가장 잘 쓰일까, 누구에게 잘 이용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불자된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환경 운동, 불교가 선도할 명제

〈한계비용제로사회〉서 찾은 협력적 공유 사회로 가는 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한계비용제로사회〉저자

인류 역사서 행복은 공감적 참여서 비롯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 〈한계비용제로사회〉를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를 강조한다. 공유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의 저서의 일부를 발췌했다. 〈편집자주〉

협력적 공유사회가 그 어떤 영역에서든 경제활동의 10~30퍼센트만 점유하게 되면 2차 산업혁명의 수직 통합형 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히 소멸할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제로 수준 한계비용이 경제활동의 보다 많은 부분을 협력적 공유사회로 옮겨 놓음에 따라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은 글로벌 상거래 및 교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점점 더 상실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413p.)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정도이다. 사회적 자본이 핵심 자산이며, 이는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만들어 내는 결속과 신뢰를 반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비영리 부문 사회적 기업가들이 영리 부문 사회적 기업가들에 비해 이점을 누린다. 전자의 주요 동기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사회적 선(善)을 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433p.)

풍요는 보는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구의 지속가능성은 그렇지 않다. 풍요와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찾는 데 있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진 않는다" 라는 간디의 말은 여전히 황금률로 작용한다.(443p.)

인류 여정의 역사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공감적 참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자신의 삶이 끝나 갈 때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물질적인 이득이나 명성, 행운에 관한 경험이 기억 속에서 두드러지는 경우는 드물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순간들은 공감적 조우이다. (485p.)

협력적 감성은 개개인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개인의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더 큰 집단의 행복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협력 정신이 이제는 생물권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모든 생물이 생물권 전역에 존재하는 여러 생태계의 무수한 공생 관계와 협동 관계에 내포된다는 사실과 전체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이 각 부분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이다. 젊은 세대는 생물권이 지구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488p.)

공유사회, 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듯이 미래 사회는 협력적 공유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공유사회와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 운동의 붐이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표방한 협동조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잇달아 출범했다. 주요 계간지들의 의제와 담론을 연결했던 말 역시 '연대'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이다.

이 같은 바탕에는 2012년 12월 통과된 협동조합법이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부터 강조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본 궤도에 올랐다. 실제로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미 다른 지방 도시들도 서울시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목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앞에 놓은 발우. 불교사상에 담긴 생태적 삶의 실천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공유사회로 가는 원동력이다.

인간의 협력 의존하는 공유사회
서로 비추는 '인드라망'과 닮아
발우공양도 공유의 가치를 보여줘

신행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공동체 운동에 천혜의 조건
빈부 · 외로움 극복에 도움
생태 발자국 줄이기에 나서야

불교 사상으로 본 공유사회

공유 사회의 기본은 자본이 아닌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는 부의 편중,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진 않는다"라는 간디의 명제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계에 달했다.

결국 인간들이 협력과 공유를 통해 삶을 영위하겠다는 공유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과제이다. 특히 인간을 포함해 나아가 생물권까지 포괄한 관계를 중요시 하는 공유사회의 원리는 불교 사상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화엄경〉에는 제석천이 수지한 '인드라망'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사실 '인드라망'은 불교에서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드라'라는 그물은 한없이 넓고 그 그물의 이음새마다,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은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주는 관계다. 그 구슬들은 서로를 비출뿐만 아니라 그물로서 서로 연결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비추고 있는 밀접한 관계라는 의미다.

〈화엄경〉을 압축한 의상대사 '법성게'의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모두 안에 하나가 있다(一中一切多中一)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다(一卽一切多卽一)' 는 구절도 촘촘한 인간관계로 이뤄진 공유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

기실 자연의 삶은 탄생과 죽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굴레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불교의 공양게송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오관게(五觀偈)라고도 하는 공양게는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에 담긴 다섯 가지 의미를 관찰하는 것으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나의 곡물을 수확하기 까지 태양은 자신을 태워 빛과 열을 내고, 대지는 이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자리와 양분을 내놓는다. 그래서 공양게는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여기에 투여된 은혜와 노고를 상기시키는 연기적인 통찰이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불교의 정신은 발우공양에서도 잘 나타난다. 공동체의 대중이 발우 안에서 극히 절제된 음식을 나누는 것도 공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유의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불교사상은 빈부 격차와 현대인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다.

공동체를 기반에 둔 불교

불교가 공유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복원이다. 공유 사회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요구되고 있어서다. 실제 제리미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에서 "만약 공유사회의 필수적인 주체가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 자신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공동체 운동은 공유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운동을 실행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애초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지금도 대중 생활을 통한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역사 안에서도 이 같은 공동체적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신라시대 이후 신앙공동체인 향도(香徒)는 불교신앙을 목적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결사조직이다. 이곳은 길흉경조, 재난구조 등의 역할도 하면서 이후 점차 마을 공동체로 변화된 대표적인 불교 공동체이다.

신라 후기와 고려 전기의 향도는 전국적으로 분포했고, 불상, 종, 석탑, 사찰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 매향 등 대규모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불교 신앙활동이 주된 활동이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에는 사찰의 세력이 커지면서 사찰의 일을 담당하는 승도(僧徒)들도 나타났으며, 이들은 지역의 민정기능을 수행하기도 했고, 국가가 위급할 때에는 예비군 기능을 했다고 전해진다.

현대적 불교 공동체의 지향점

현재 한국불교에서 현대적 공동체 운동은 시작 단계이다. 종단 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일련의 불교운동들이 불교와 사회개혁에서 문명적 대안의 그 궤적을 넓힌 사례가 많다. 선우도량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법 스님이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출범하고 실상사에서 귀농운동을 시작했으며, 법륜 스님은 제도권 밖에서 정토회를 이끌며 청년 불자들을 불교로 이끌었고, 생태 · 통일 운동으로 지평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면서 조계사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불교계가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기업도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공동체 운동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제레미 리프킨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정도"라면서 "사회적 자본이 핵심 자산이며, 이는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만들어 내는 결속과 신뢰를 반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익보다는 '사회적 선(善)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도 불교 사회적 기업이 확산돼야 할 이유이다.

불교, '생태 발자국'을 생각하라

공유 사회의 도래가 시급한 것은 전지구적 문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적 개념은 '생태 발자국'이다. 이는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 · 식 · 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를 말한다.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면적 기준은 1인당 1.8㏊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을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3.0㏊에 이르렀다.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한다.

당장 불교계가 실천할 수 있는 사찰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도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바이오 매스 등이다. 특히 바이오 매스와 지열, 태양광 등은 상당 수의 사찰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불교계가 주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종교 · 시민 협력 단체도 출범했다.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는 10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조직위원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로터스월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를 비롯해 원불교 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푸른아시아, 피스빌리지네트워크 등 종교 ·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謹賀新年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불교가 고리타분 하다구요? … 불금에 만나요”

佛金

새로운 모임이 생겼다. ‘불자인 듯 불자아닌 불자같은 청년’ 들이 모여 매월 불교를 소재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사찰투어를 다닌다. 이들의 말을 빌면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하기 전 잠시 들르는, 모두가 지나다닐 수 있는 ‘로비’ 같은 곳이다. 사경도 절도 염불도 안 하지만 불교에 관심있어 모였다는 이들을 통해 청년포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가늠해본다.

〈편집자 주〉



절오빠 절언니 멤버들.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이패드를 통해 주로 팟캐스트 녹음을 한다. 사진 왼쪽부터 방글, 지혜순, 구희철, 강민지 법우. 사진=노덕현 기자

절오빠 절언니는?

친불교적 성향을 지닌 2~30대 젊은층들이 모여 불교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는 모임이다. 때로는 친목도모에서, 스님과의 대화에서, 사찰 탐방서 재미를 발견한다.

첫 모임은 2014년 4월 18일 소셜 다이닝(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관관계를 맺는 것을 뜻함) 홈페이지 ‘집밥’을 통해 모집한 9명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불금(불교와 함께하는 금요일)이라 칭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벌인다. 일상 생활 속 불교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팟캐스트 방송도 월 2회씩 하고 있다.

블로그 : http://templebrothersister.com
페이스북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templebrothersister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7540

그러니까 몇 년전이다. 교회오빠가 인기남의 대명사로 급부상한 것은. 지금이야 매력도가 감소하긴했지만 당시만해도 교회오빠는 깔끔한 외모, 자상함, 지적임, 젠틀함, 성실함을 대변하는 단어였다. 교회오빠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항간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교회오빠만 있냐. 여기 절오빠도 있다’ . 그 말을 들은 이들은 한참 자지러지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떠올렸다. 절에 파릇파릇한 오빠들이 있었던가? 그랬다. 정작 절에 절오빠는 없었다.

불교로 수다떠는 커뮤니티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죠. 절에 스님들만 있는게 아니라 또래 언니, 오빠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지난해 4월 ‘절오빠 절언니’가 꾸려졌다. 청년 불자들은 찾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있다해도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절마다 드문드문 있는 청년회에는 4, 50대 거사님들과 보살님들이 태반이었다. 절에 다닌다는 20대가 희귀생물로 여겨질 만큼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아웃오브안중(안중에 없다는 뜻)’ 이었다.

영붓다월드 출신 30대 회사원 세 명은 이런 현실을 개탄하던 중 ‘절망은 금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란 생각에 젊은 청년들을 하나 둘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불금(불교와 함께하는 금요일)데이로 정하고 소셜 다이닝 집밥 그룹에 모임 공고를 내면서 젊은층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눈꼽만큼이라도 불교에 관심있는 잠재적 불자도, 기복적 불교 가풍에만 친숙한 모태불자도 환영이었다. 관심은 있으나 사찰에 가면 당장 목탁에 맞춰 절을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신앙생활이 시작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끼는 젊은이들 역시 주 공략층이었다. 골수 불자보다는 긴가민가한 불자들, 절에 기웃대본 적이 있는 친불교적 일반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때문에 믿음이나 교리공부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들 불교하면 고리타분하다 생각해요. 신중단에 걸린 탱화나 불상을 보고도 무당집같다며 무섭다는 친구들도 많죠. 불교에 조금 친숙하다 싶은 젊은이들도 기껏 절에 가봤자 삼배하고 절밥만 먹고 나오는 게 다라고 하더군요. 절에서 뭘하지? 할게 있나? 라는 반응을 절에도 뭔가 재미있는게 있구나하고 바꿔주고 싶었어요.”

지난해 4월, 청년불자 9명 시작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마다 모임
사찰투어, 절미팅 등 다양한 시도

이들의 말을 빌린다면 절오빠 절언니는 불교를 콘텐츠로 사람들과 만나 ‘노닥’거리는 모임이다. 콘셉도 ‘최대한 가볍게’ 가 목적이다. 젊은이들이 모여 불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서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소통은 충분했던 것이다.

때때로 모임은 팟캐스트 방송을 위한 공개방송 자리가 되기도 한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자 간증코너’ 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사이트 ‘팟빵’을 통해 절오빠 절언니는 벌써 14개의 방송을 했다. 팟캐스트는 운영진 중 구희철(33)씨가,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은 강민지(35)씨가, 모임 홍보 등은 지혜순(34)씨가 맡는다.

4월 18일 서울 관악구 성불암에서 열린 첫 모임에는 9명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언제 주무시나요부터 불자들한테는 3천배가 껌인 줄 알았다는 의견까지 불교 ‘생초짜’ 들의 맹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 후로 서울 불광사에서 주지 본공 스님과 함께 사찰투어도 하고 채식음식점에 모여 사찰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본공 스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 관해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다 극소수만 안다는 스님의 출가동기까지 털어놨다. 절오빠 절언니의 풋풋한 매력에 본공 스님도 무장해제된 것이다.

2개월 전에는 절오빠 언니의 첫 번째 미팅도 있었다. 오빠 언니의 비율이 3대 1로 언니들의 극심한 가뭄속에 비록 커플맺기는 불발됐지만 향후에는 실제 커플 성사를 목표로 좀 더 홍보에 나서 볼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정에도 없던 연말 번개도 열었다. 서로 음식들을 조금씩 싸와서 먹고 즐기는 소박한 포틀럭 파티였다.

9개월 가량 되다 보니 참가자들도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모임에 참여했던 누적 인원은 4~50명에 달한다. 개중에는 불교에 관심있는 가톨릭 신자도, 한국에 유학온 외국학생도 있었다. 보통은 대학생들과 직장인이 다수다.

“반응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오빠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들 이색적이라고 재미있다고들 해요. 불교에도 이런 게 있었냐면서요.”

그렇다. 교회오빠는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절오빠는 아직 신선하다.

포교법? 그런거 없어요. 우리가 콘텐츠죠.

“젊은층에게 불교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를 꼽아요. 우리 모임 역시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도 나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입이라는 개념도 없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왔건 집밥사이트에서 보고 왔건 올 수 있는 통로도 많죠. 마찬가지로 언제든 그만와도 되요.”

실제로 매번 모일때마다 멤버 구성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명색이 단체인데 결속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하고 물었더니 “붙잡는다고 붙잡힐까”란 답이 돌아왔다.

“우리가 재미있어지면 사람들이 더 머무르겠죠. 설사 한번 나오고 그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불교를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불교적으로 커 나갈 수 있었으면 해요.”

포교라면 포교지만 기존 룰은 따르지 않는다. 그보다는 불교에 대한 재미를 찾아가는 모임이니 매번 만남 주제가 달라지는 것도, 이렇다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당연지사다.



2014년 4월 18일 서울 관악구 성불암서 열린 첫모임 당시. ‘절오빠 절언니’는 다과를 곁들이며 ‘최대한 가볍게’ 불교관련 이야기를 풀어간다.

내년에는 회원들과 함께 사람들을 자주 만나러갈 계획이다. 만만한 만화로 다음에서 활동중인 불교만화가들도 찾아가고 요술당나귀라마라는 밴드 콘서트에도 가볼까 생각하고 있다. 수행에 전념하면서 지덕이 풍부한 스님들도 뵙고 싶다.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을 가는 것만으로 이미 1년이 풍성하다.

페이스북, 블로그 통해 홍보활동
팟캐스트 월 2회… 생활불교 소재
사찰 청년포교 한계 극복에 한몫

회원들끼리의 재능기부 강좌를 통해 콘텐츠를 넓힐 생각도 하고 있다. 꽃꽂이 명상이 될 수 도 있고 불교와 전혀 상관없는 배움장이 열릴 수도 있다. 간단한 자기 성찰 프로그램 등도 도입할 생각도 있다. 내년 불교 박람회 참가도 희망사항중 하나다.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수도, 법문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매번 어디서 모이느냐 하는 것도 고민이기는 하지만 젊은 불자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취미생활 하듯 불교를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불교적 생각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사실 불교가 요즘 젊은이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요즘은 25살 복학생이랑 20살 새내기가 서로 이야기해도 세대차이 난다고들 해요. 그런데 청년회 모임이 20~50대까지 뭉뚱그려 운영되면 초보 불자들은 당연히 모임에 참석할 흥이 안나죠. 설사 어떻게서든 운영하려고 해도 요즘은 대학생들이 스펙전쟁에 휩싸여 있다 보니 시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그렇다고 불교에서 청년포교에 대한 전략을 내놓고 있지도 못하구요. 불교가 매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뒷 받침도 안되니 점점 더 관심을 얻는게 힘들어질 수 밖에요.”

그것이 절오빠 모임이 생겨난 진짜이유였다. 이들은 기회가된다면 청년포럼형식을 빌려 청년 포교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도 싶다.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안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직은 기회도 창구도 마련돼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모임을 꾸려나가는 진짜 이유는 불자양성에 있지 않다. 소설가 최인호가 스스로를 일컬어 ‘불교적 가톨릭교도’ 라고 칭했듯 불교에 공감하는 이들이 두터워졌으면 한다.

“불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가 불교라서 퍼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불교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졌으면 해요. 불교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둘 다를 포용할 수 있는 중도적 가치를 설파하잖아요. 서로 이어져있고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는 연기론도 마찬가지구요. 이처럼 불교적 가치에 기반해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절오빠 절언니의 팟캐스트가 시작된 후, 붓다로 살자와 불교 인터넷 언론에서도 팟캐스트가 생겼다. 원조 멤버들은 규모가 큰 집단이 되기보다 제2의 절오빠 절언니가 여기저기서 생겨났으면 한다고 말한다. 불자냐 아니냐를 넘어 앞으로 포교 범위와 방법에도 새 시즌이 시작될 듯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마하연 겨울 추천상품
• 매주 출발가능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미얀마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 (호텔, 식당, 불자가이드 등)

since1994 마하연투어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초특급 + 3대옵션 포함) 방콕/파타야 5일
• (사찰순례) 대만 5일
• (초특급 3대성지 + 타지마할 + 자이푸르) 인도 8일
매주 일/금요일 출발가능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매주 출발가능 1,490,000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6일 출발일 : 2월16,27,3월17 1,990,000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 2월10,25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해/항주 6일 출발일:3월11,26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5월27일
[문수도량] 태원/오대산 5일 출발일: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출발일:2월12일
하와이 5일 매주 출발가능
동유럽 3개국 9일 매주 출발가능
서유럽 4개국 8일 매주 출발가능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4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한다.. 〈출요경〉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비봉4길 213(구기동)
TEL 02)379-2996 / FAX 02)391-9975

보 광 암

주지 일월

소원성취 기도도량
관음성지 미타산 보광암
관세음보살, 천불전 조성 불사중

■ 경남 합천구 적중면 두방길 75번지
H·P 010-5757-5474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사)대한불교무량종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 일동

■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대한불교조계종
관 촉 사

사부대중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TEL 041)736-5700
FAX 041)733-4169

세계무형문화 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 원 사

회 주 조석봉
주 지 석선암
부주지 이기봉
총 무 조혜산
교 무 김태호
재 무 조효광
사 회 이석천

봉원사 대중일동

관음회 일동, 화엄회 일동, 합창단 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번지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자비실천 수행도량
미 룡 사

부산불교대학
시민선원(위빠사나)개원

회 주 법담 정각
지도법사 정명
위말라난다
신도회장 광운 김동열

■ 부산 영도구 동삼남로 11
TEL 051)404-2100, 404-4300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부산교구

교구청장 효원 정사
종무국장 법연정사
신도회장 문연주(대원)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수정동)
TEL 051)464-0668 / FAX 051)557-0668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회주 성직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길 150
TEL 031)471-2300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운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4층
TEL 02)3391-8523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주지 심산
(深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
템플스테이사무국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고 문 : 송월. 심산. 대광. 강선태. 신풍. 법민
명예회장 : 효신
자 문 : 고담. 보당. 지엄. 광진. 손승열
회 장 : 법안
수석부회장 : 최상곤
상임부회장 : 대각
부회장 : 안도. 진일. 지원. 진각. 지우. 이춘열. 정문탁. 정호석. 조원규. 박연수. 김광호. 김성익
감 사 : 정오. 이원겸
사무총장 : 박동범
기획부장 : 한정석 문화부장 : 오인숙
재무부장 : 김광자
홍보부장 : 임금옥 복지부장 : 이정혜

■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02
삼환 2차상가 208동 304호 동국사
전화 051)543-0099/051)701-1437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회주 성직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길 150
TEL 031)471-2300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운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4층
TEL 02)3391-8523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청계사 부설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http://www.chungkei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템플스테이사찰 · 신흥사 불교대학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사)세계불교조계종 총무원
불 광 사

신도회 일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7번길 29 (주교동)
H · P 010-5330-5238

100세 살려면… 부처님처럼 절제된 자연적 삶을

100세 건강, 불교로 지키자

불교에서 부처님은 의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약으로, 중생을 환자로 비유한다. 부처님을 '의왕(醫王)'에 비유한 것은 마음의 병을 부처님은 능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에서는 몸의 병에 관한 다양한 의학적인 지식이 발견된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사는 법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을미년을 맞아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건강 비법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고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이 찾아왔다. 왕이 부처님에게 절하고 물러나 앉아있었는데 땀을 흘리면서 숨이 차 씩씩 거렸다. 부처님은 파세나디왕에게 이르시길 "항상 음식을 대할 때 절제해 양을 조절하시오. 그러면 소화하기도 편하고, 목숨을 오래 보존할 것이며, 고통 또한 적어질 것이오"라고 했다. 왕이 부처님 말씀대로 음식을 줄이자 얼마되지 않아 살이 빠지고 용모도 단정하게 됐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해졌다.' 〈잡아함경 천식경〉으로 전해지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전하는 절제하는 삶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광대 김종인 교수 연구팀이 1963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11개 직업군별 평균수명을 비교분석한 결과 1위는 종교인으로 평균 80세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신체적으로 규칙적인 활동과 수양, 정신적으로 과욕이 없음과 절식, 금주의 실천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건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인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없을 당시 부처님은 자연적인 삶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설했다.

부처님은 〈의경(醫經)〉에서 "사람이 병이 드는 데는 열가지 원인이 있다"며 △오래 앉아 눕지 않는 일 △먹는 데 절제가 없는 일 △근심하는 일 △몹시 지치는 일 △애욕에 빠지는 일 △성내는 일 △대변을 참는 일 △소변을 참는 일 △내쉬는 숨을 참는 일 △들이쉬는 숨을 참는 일이라고 말한다.

다른 경전에서도 음식을 잘 조절 못한다든지, 대소변을 제때보지 않고, 계행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일찍 목숨을 여의는 원인이 된다고 이른다.

특히 부처님은 마음수행과 몸의 건강을 함께 챙겨야 함을 강조했다. 〈불설칠처삼관경(佛說七處三觀經)〉에서 부처님은 수행자들이 마음수행에만 몰두하며 몸의 건강을 지키지 않자 몸의 건강도 수행자가 지녀야할 미덕이라고 강조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법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선 불교의술이 개발된 상태다. 특히 인도의 '재야의술'인 아유로베다 의학과 일본의 전통 서식(西式) 건강법이 대표적이다.

종교인 평균수명 80세, 직업군 1위
규칙적 활동, 절식, 수행 요인
일본, 불교수행담은 서식 건강법 창안
한국, 채식, 명상 등 건강 열풍

일본에서는 니시 가쓰조(1884~1959)는 불교수행을 담은 경전과 의서 7만여 권, 세계 각국의 건강법 360여종을 비교연구해 서식건강법을 창안했다. 서식건강법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과 식생활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토피, 당뇨, 고혈압 등에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힌두경전 베다에 의해 전승된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요법은 인체의 균형과 정신의 수련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요가를 비롯해 틱낫한 스님이 즐겨한 오일풀링 등이 대표적인 아류르베다 요법이다.

한국에서는 불교전통의 건강법 외에도 인도불교에서 유래한 요가 같은 자가 건강증진법과 연계한 새로운 방법이 발달하고 있다. 호흡과 몸의 구석구석의 동작을 따라 살펴보는 관행수행법인 선무도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아유르베다 요법은 사찰음식과 선식, 차 등 불교 식문화와 연계한 요법이 진해진다. 최근에는 채식, 명상, 오후불식과 같은 불교적인 생활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성낙진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불교의 건강법과 수행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대안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장수한 스님들 비결은… 석주 · 서옹 스님 등

① 적게, 그리고 천천히 먹자
②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자
③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④ 절제의 습관을 들이자

건강의 비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고승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계종 대종사 중 최고연장자였던 석주 스님의 열반 당시 세수는 95세였다. 스님은 입적 직전의 고령의 나이에도 백두산 천지를 오르고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도 했다고 한다.

석주 스님의 건강법 중 첫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이었다. 고령의 나이에도 오전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새벽예불에 참석했으며, 오후 9시에는 꼭 잠자리에 들었다. 오전 6시에는 어김없이 신문을 보았으며 저녁 예불 후에는 1시간 가량 포행을 했다. 식사시간도 항상 일정했는데, 적게 그리고 천천히 먹는 식습관은 여느 장수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스님은 특히 밥공기 $\frac{1}{3}$ 정도의 소식을 했고, 식사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아침에 죽을 들고, 점심과 저녁에는 밥을 든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스님은 항상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붓글씨에 조예가 깊었던 스님은 하루에 1~3시간씩 글씨를 썼다. 입적 한 달 전에 봉은사 개산대제에 참석하는 등 아흔이 넘은 연세에도 포교활동을 펼쳤다. 화를 내거나 크게 웃는 일 없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 것도 스님의 장수 비결가운데 하나다. 혼자 있을 때면 편안한 자세로 좌선을 했다.

세수 92세로 열반하기 전까지 법문을 하고 후학을 지도한 조계종 前종정 서옹스님은 특히 빨래도 손수하고,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정진에 요가를 1시간씩 빠뜨리지 않고 했다. 세수 90세로 최근 열반한 법전 스님도 새벽2시에 일어나 예불과 좌선, 산책의 일과로 수행했다. 스님들의 공통점은 매일 일어나 108배를 하고, 규칙적인 포행을 했으며, 평소 소식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인원 불교의학연구소장(동국대 교수)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폭식과 과식, 스트레스 등을 억제하는 것이 건강 · 수명과 직결되는 요인"이라며 "건강을 위해서는 큰 스님들의 삶에서 보이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한 자기 절제의 모습을 일반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00세 건강법〉펴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3분 호흡, 108배로 삶에 활력을"



스님은 왜 장수하는 걸까? 물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최근 〈100세 건강법〉 책을 펴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은 "5계를 실천하는데 건강법이 다있다"며 "일반인들에게도 계율은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스님들의 건강비결에 대해 "가장 큰 요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스님에 따르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생체리듬을 총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습관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건강의 첫번째 요건이다. 스님은 이어 호흡습관과 식습관을 바로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데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호흡법에 있는 것도 몸과 마음의 건강이 호흡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각종 기능이 쇠락하고, 이는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승가에서 특히 장수한 이들이 많은 것은 이런 호흡법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긴 호흡 3분하면 신체리듬 살아나
노년 건강, 108배로 하체 유지 도움
소식 · 단식 등으로 몸안 독소 배출

스님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3분 호흡 건강명상을 제시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분이면 됩니다. 우선 자신의 생명에너지를 느끼고, 호흡이 느껴지면 길게 숨을 들이마쉰 후 내뱉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몸에서 에너지가 생생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와 함께 오후불식 · 단식을 비롯한 절제된 식습관과 108배를 통한 근력 유지도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유지 비결이라고 말했다.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음식에는 각종 화학첨가물, 농약, 중금속 등이 가득 들어 있는데, 우리 몸은 이런 물질들을 분해하거나 배설하지 못합니다. 고스란히 몸속에 쌓여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식과 단식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삶은 소식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일견 몸이 상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단식을 끝내면 몸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피로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또 108배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허리와 다리 등을 구부리며 각종 장기를 자극하는 근력운동이라는 점에서 젊어서부터 꾸준히 하면 노년기 하체근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절을 하면 위와 장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며 "이는 비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근육 측면에서 보면 노년기에도 건강하려면 엉덩이와 종아리 등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108배는 몸을 바르게 하는 동시에 척추와 하체의 미세한 근육까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 강화시킵니다. 또한 체온을 올려 몸에 좋지 않은 기운을 내보냅니다."

스님은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복을 짓는 것은 간병이 첫째라하고, 팔복전 중에도 병든 이를 잘 간호하라고도 하신다. 이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불가의 건강 지혜를 통해 새해에는 불자들이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일승 근일 조실
성성 혜각 회주
성운 각호 동당
봉암조전 주지
현송원남 부주지 등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승봉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선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걸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 · 넷째주 토 ~ 일 (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 화엄문화템플관 ☎ 054)833-6934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禪雲寺

주지 등운법만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선운사 성보박물관
백파사상연구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몸 튼튼 마음 튼튼… 생활습관이 '비법'

전문가 추천 일반인도 쉽게 따라하는 불교건강법

명상으로 푸는 스트레스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명상이 주는 선물은 집중력 강화, 두뇌 안정, 산소 공급 외에도 여러 가지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고까지 이야기한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꺼워지고 주름이 많아지며 활성화되는 것이다.

혜거 스님은 명상과 화는 호흡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화나면 호흡이 짧아지고 불규칙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렇게 되면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부족이 초래되고 스트레스 뇌파인 베타파로 인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되면서 흥분상태는 더 강해지고 고함과 거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때 심호흡을 하게 되면 심박수를 정상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명상은 안정적으로 호흡, 생각 흘려버리기, 생각 멈추기 같은 훈련을 통해 분노조절에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

호흡 명상법

1. 반가부좌 자세로 앉기
2. 시선 한곳에 모으기 시선을 약간 아래로 응시한다. 눈에 '힘을 주지도 말고 완전히 빼지도 않는 것을 반복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3. 혀를 입천장에 살짝 닿게 하면 입안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아 호흡이 안정된다. 혓바닥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기운이 잘 통하는 기운을 느껴야한다.

호흡 관리

온몸으로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많은 양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셔야 한다. 이어 1~2초 가량 멈췄다 다시 천천히 내뱉는다. 한번 숨쉬기에 15초 이상이 걸려야 한다. 의식적으로 아랫배를 볼록하게 내밀면서 배 밑바닥까지 공기를 빵빵하게 채운다는 생각으로 숨을 들이키고, 내쉴 때는 몸 안에 있는 한 줌의 공기까지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야 한다.

간경화를 이긴 사찰밥상



선재 스님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불교에서 음식은 약으로 통한다. 좋은 음식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든다. 소박하고 정갈한 사찰 음식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 비결로 손꼽힌다. 선재 스님은 일반적 음식이 생명이라면 채식은 생명에다 건강을 더한 것이고, 사찰음식은 생명과 건강에 지혜까지 더한 것이라고 말한다.

유전적인 영향과 무리한 활동으로 간경화를 앓았던 선재 스님은 20여년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선재 스님이 꼽은 사찰음식 중 명약은 바로 천연 발효장.

좋은 재료와 좋은 소금, 좋은 물로 오랜 기간 발효시킨 간장, 된장, 고추장은 간경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역시 발효장은 독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하나 간에 좋은 음식은 냉이다. 냉이는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콜린성분의 함유로 간장 쇠약, 간염, 간경화 등 간에 관련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

된장표고버섯튀김

1.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물기를 짠다.
2. 된장에 물을 조금 넣어서 거른 후 표고버섯에 넣고 무친다.
3. 들기름, 통깨, 녹말가루를 2에 넣고 무친다.
4. 기름에 두 번 바삭하게 튀긴다.

냉이단호박수제비

1. 단호박은 씨만 털어내고 찐 뒤 곱게 으깨 물과 소금을 넣고 풀어준다.
2. 단호박 푼 것을 밀가루에 넣고 오래 치대면서 반죽한다.
3. 다시마물이 끓으면 된장, 고추장, 표고버섯가루를 넣어 풀어준다.
4. 국물이 끓으면 센불에서 수제비 반죽을 얇게 떠넣는다.
5. 수제비가 익으면 송송 썬 냉이를 적당량 넣어준다.

108배로 하는 절운동



청견 스님
법왕정사 주지

절수행으로 유명한 청견 스님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 판정을 받고 다른 스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절을 해 나갔다. 온 몸이 무너져내리는 고통을 참으며 엎어지다시피 시작한 절이었지만 꾸준히 3년간 절 수행을 하면서 몸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절운동은 신체 전반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 지방을 빼고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물론, 안으로는 장기를 튼튼히 하고 척추를 바르게 하며 신체를 균형있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108배를 하면 100kcal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시킨다.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노폐물 배출, 장운동 촉진, 혈액을 맑히는 효과가 있다.

1. 두 손을 심장 앞에 가지런히 모은다. 코, 합장한 손끝, 배꼽, 발뒤꿈치를 붙인 곳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2. 허리를 반듯이 펴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지 않게 구부린다.
3. 손으로 바닥을 짚은 뒤 왼발이 오른발 위에 놓이게 포갠다.
4. 이마와 코끝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입으로 휘파람을 불듯이 숨을 내쉰다.
5. 엉덩이를 들며 상체를 앞쪽으로 움직여 팔과 손바닥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6. 무릎을 펴며 기마자세로 일어나 선다.

Tip—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에 있다. 호흡이 불규칙하면 피로가 쉽게 오고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몸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장하고 일어서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기마자세로 무릎 꿇으며 코로 또 숨을 들이마신다. 이어 이마가 바닥에 닿기 직전부터 입으로 숨을 내쉬기 시작하여, 접족례를 하고 합장할 때까지 숨을 길게 내쉬어야 한다. 들숨은 코로 짧고 간명하게, 날숨은 입으로 길고 가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차에서 찾는 건강



박동춘 소장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차의 효능은 광범위할 정도로 넓다. 노화 · 산화방지, 풍부한 비타민 섭취, 피로회복, 암 예방,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고혈압 강하, 식중독 · 충치 예방 등의 효능을 인정받아 인류 10대 건강식품에 손꼽힐 정도다.

차에는 카테킨, 비타민, 카페인, 아미노산, 테아닌 등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들어가면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 카테킨은 노화와 암, 심장병의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작용이 뛰어나다. 또 테아닌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차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도 이 덕분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은 좋은 차는 먼저 보기에 맑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 덖은 차는 풋내가 없고 마셨을 때 정갈하고 시원한 느낌을 줘야하며 구수하면서도 뒤끝이 상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는 어떤 물과 온도에, 어떤 다기에 우려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낸다.

일반적으로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거품이 올라올 때 바로 차를 우려내야 한다. 오래 끓인 물은 생기가 빠져 차맛을 밍밍하게 하며 물도 떠온 지 4~6시간 사이에 쓰는 것이 최상이다. 일반인들이 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찻물은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놨다 끓여 사용하거나 생수를 이용한다. 이때 수돗물은 물이 끓기 시작한 뒤 2분 정도 더 끓여 염소 성분을 휘발시킨다.
2. 외부온도에 따라 차 맛도 변한다. 겨울에는 찻잎을 먼저 넣고 물을 붓고 반대로 여름에는 물을 먼저 넣은 다음 찻잎을 넣는다. 또 봄과 가을에는 물을 반쯤 넣고 찻잎을 넣은 다음 다시 물을 넣는다.
3. 차는 1~2분 정도 우린다. 떫은맛이 강하면 추출시간이 길었다는 것이고 쓴맛이 강하면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클릭 이곳에 가면 '건강'이 보인다



평일 점심시간, 발우공양 콩은 늘 사람들로 가득하다.

직장인들의 자연점심

발우공양 콩

조계종 산하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우공양 콩은 제철 건강한 채소와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해 만든 사찰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청정한 정신과 몸을 위한 사찰식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한 'Soul Food'를 담아낸다는 것이 발우공양의 콘셉이다.

단품요리부터 코스요리까지 입맛대로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매일 달라지는 식단과 건강한 맛으로 직장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점심시간이면 늘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다.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

강남 한복판 힐링문화체험장

총지종 어울림 힐링센터

지난해 5월 개원한 총지종 어울림 힐링센터에서는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균형있고 조화로운 몸을 위해 기공, 태극권, 요가, 숲치유부터 비움여행, 건강 음식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과 감정정화를 위한 치유예술 관련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건강과 템플스테이가 만났다

진관사 · 동국대일산병원

동국대일산한방병원에서는 진관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진관사에서 사찰문화와 음식을 체험하고 병원에서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육지장사 건강템플스테이

산사의 건강비전을 건강체험, 단식형 등의 템플스테이로 구체화했다. 단식과 풍욕, 걷기명상 등을 통해 몸의 이완을 돕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짜증이 많은 사람이나 수험생, 업무 효율이 떨어진 직장인들에게 추천한다. 또한 쑥뜸, 게르마늄 찜질 등을 하며 각종 성인병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육지장사에서 뜸을 뜨고 있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謹賀新年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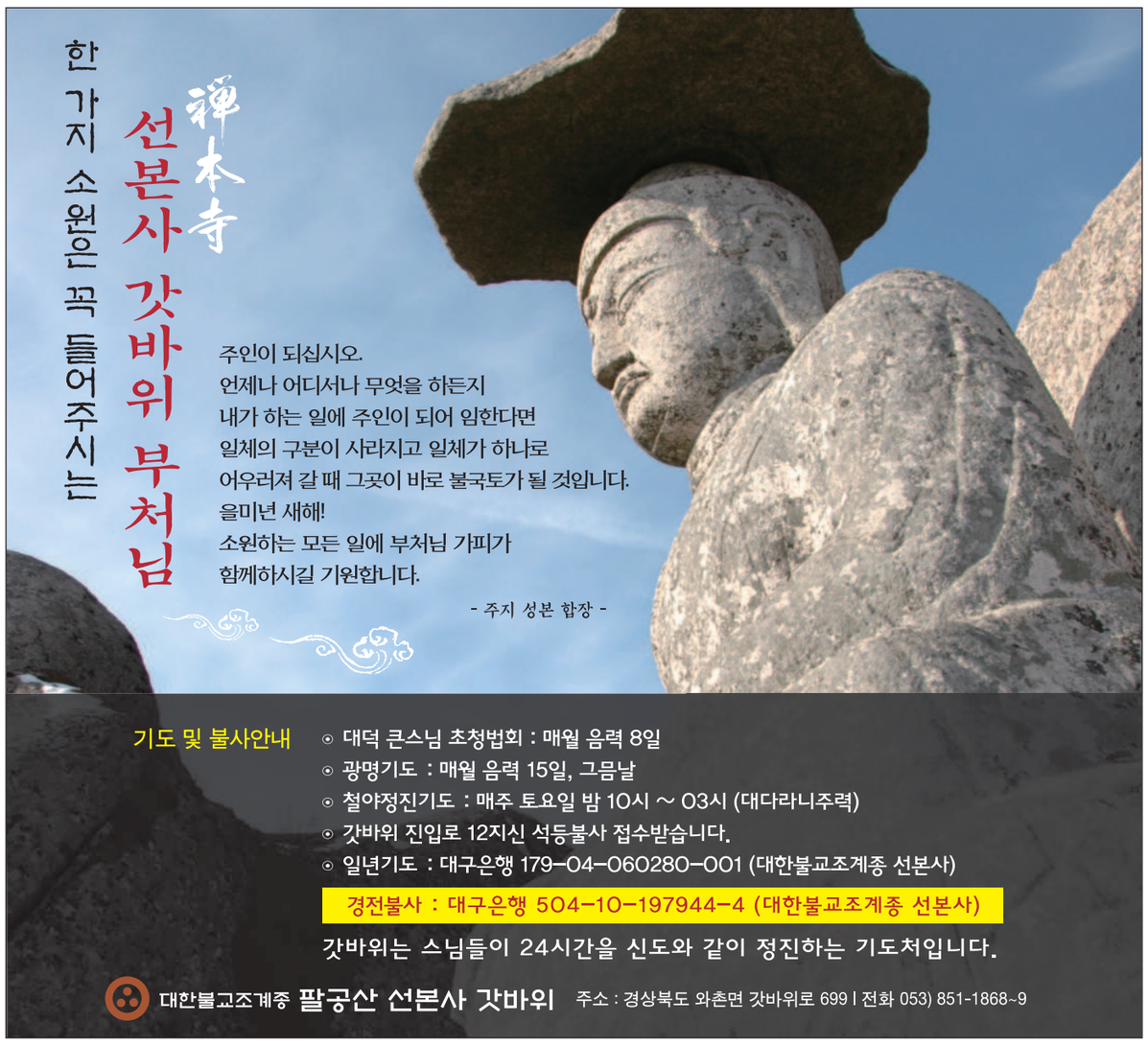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禪本寺
선본사 갓바위 부처님

주인이 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주인이 되어 임한다면
일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일체가 하나로
어우러져 갈 때 그곳이 바로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을미년 새해!
소원하는 모든 일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지 성본 합장 -

기도 및 불사안내
- 대덕 큰스님 초청법회 : 매월 음력 8일
- 광명기도 : 매월 음력 15일, 그믐날
- 철야정진기도 : 매주 토요일 밤 10시 ~ 03시 (대다라니주력)
- 갓바위 진입로 12지신 석등불사 접수받습니다.
- 일년기도 : 대구은행 179-04-060280-001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경전불사 : 대구은행 504-10-197944-4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갓바위는 스님들이 24시간을 신도와 같이 정진하는 기도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주소 : 경상북도 와촌면 갓바위로 699 | 전화 053) 851-1868~9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울릉 성인사·삼도사

주 지 정비룡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남서리 19 TEL 054)791-5011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태하리 562 TEL 054)791-5457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흥륜
운문사승가대학 주지 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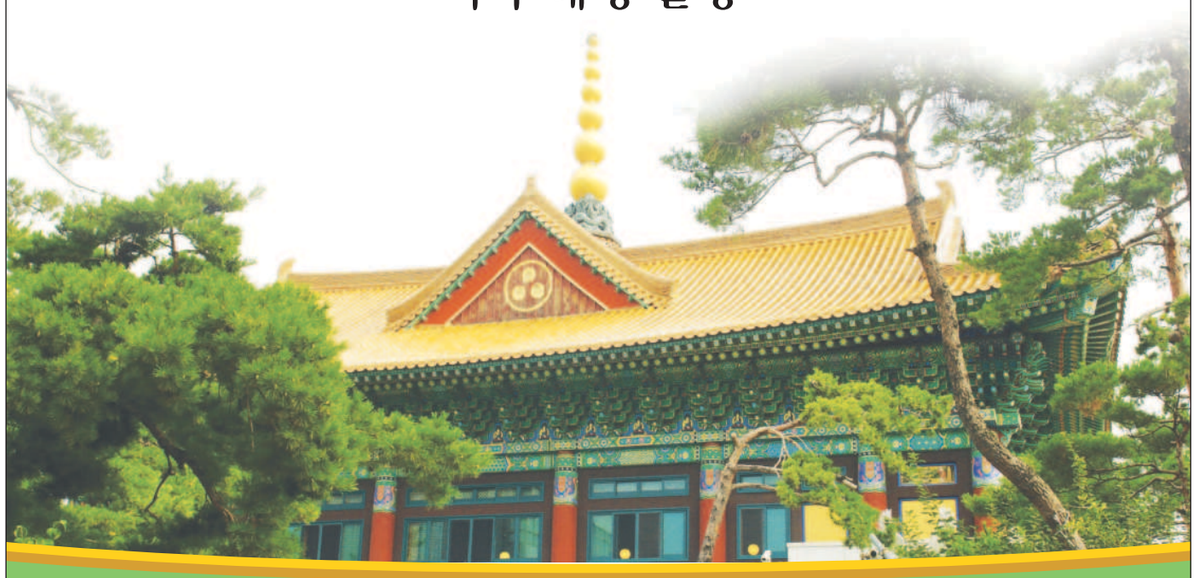
대 중 일 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053)767-3100 팩스 053)765-1600

KBB 한국불교방송

- 전국 지사 및 취재본부 모집 -

(주)한국불교신문방송은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지역뉴스,사찰행사 등의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한국불교신문방송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회사업,문화사업,해외사업에 동참하여 함께 성장해 나갈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전국 지사장 모집
전국, 시, 군 단위

모집부문	인 원	구 분
프리랜서 기자	0 명	
텔레마케터(女)	0 명	기본급 외 영업수당 지급
리포터 (女)	0 명	
카메라 기자	0 명	
홍보기획팀	0 명	영상편집 가능자 우대
광고팀	0 명	문서작성 및 웹디자인 가능자 우대
총무과(女)	0 명	

(주)한국불교신문방송
www.koreabb.co.kr www.한국불교방송.kr 대표전화 1688-9097 총괄본부장 010-9106-0089

- 업체 및 사찰 홍보용 영상광고 무료게재 -

(주)한국불교신문방송 홈페이지에 업체 및 사찰 홍보용 광고를 무료로 2개월동안 게재하여 드립니다. (광고 문의전화 : 1688-9097)

(주)한국불교신문방송 영상사업부 사업분야

사찰행사 (산사음악회 등 사찰행사) /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업체 및 사찰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기타 모든 영상물 맞춤제작

명품 동국 잘 가르치는 ACE 명품ACE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종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명품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인재불사에 매진하겠습니다.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역 사립대학 중 전국 6위
국제화 부문 전국 16위
장학금 지급률 전국 20위
교육부 선정 잘 가르치는 ACE 대학 (2011~)



“남도불교, 서민 불교 문화의 寶庫”

〈보고〉

구랍 19일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개원 세미나서



남도불교문화센터가 12월 19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대회의실에서 남도불교문화의 특성을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종수 “결사 등 자정 운동 중심지”
김용태 “유학과 소통, 민초들과 동락”
효광 스님 “순례길 · 괘불재 활용 필요”

“지리산을 비롯한 남도의 불교는 왕과 귀족을 위한 불교가 아닌 민초들과 함께 한 살아있는 불교였습니다. 이러한 서민불교에 대한 모습을 이 지역에서 다시금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센터장 이종수)가 12월 19일 순천대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민초들과 함께한 남도불교 문화의 특성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이종수 순천대 HK교수는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의 설립배경과 연구방향’을 통해 한국불교 연구에서 남도불교는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분야의 연구활동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 교수는 “삼국시대 호남지역은 백제, 영남지역은 신라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도 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다”며 “고려시대에는 정혜결사와 백련결사, 대장경 판각 등 주요 불교활동은 남도에서 이뤄졌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서 불교 활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지역민들과 밀착한 전법이 이뤄졌다. 남도불교 연구는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남도불교문화연구의 방향 발표를 통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진행할 수 없는 분야를 개척할 것을 밝혔다.

이어 김용태 동국대HK교수는 ‘조선후기 지리산권 불교와 부휴계’ 발표를 통해 조선불교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부휴계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부휴계는 청허 휴정의 동문인 부휴 선수의 법맥을 계승한 계파로 17세기 전반 벽암 각성이 활약하며 계파로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며 “그 손제자 백암 성총 때에 이르러 보조 지눌의 유풍을 내세우며 송광사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시 불교계는 유학자들과 소통하고, 민초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한 특징이 있다”며 “화엄교학과 조사선의 양대 흐름이 교차하며 공존한 이 전통은 근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부휴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불교의 과거와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거울이며, 유교와 민속을 아우른 한국적 전통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화엄사의 불교문화와 연구과제’에서 화엄사 총무국장 효광 스님은 “지리산의 불교문화의 재창조를 위해 화엄사는 현재 구층암, 금정암, 연기암, 사성암 등 인근 암자순례길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선재동자를 모티브로 하는 선재순례길, 선재동자길 등 테마로 지리산 지역을 순례 문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효광 스님은 이어 “화엄사, 천은사, 도림사의 괘불을 활용한 괘불재에 남북분단의 비극을 치유하는 위령재 성격을 섞고, 세월호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행사로 키워나간다면 예로부터 민초들과 함께한 지리산 권역의 불교문화를 다시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는 영호남 화합 및 불교문화 탐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건반없는 피아노 소리는 주인공 화두”

불교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 설산 암자 배경 2월 크랭크인



(주)씨네프렌드가 12월 22일 조계사 찻집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 소재의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법공 스님 역의 배우 배건식 씨,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김행수 감독, 묘선 스님 역의 신유주 씨.

씨네프렌드, 구랍 22일 제작 발표
은사 묵계 스님 입적 배경으로
법공 · 묘선 구도 과정 묘사해

“자신의 눈을 실명하면서까지 탐욕이라는 괴물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려는 은사 묵계 스님, 또한 은사스님의 열반 후 비로소 ‘건반 없는 피아노’라는 화두를 타파하는 제자 법공과 묘선을 통해 진정 우리가 한 세상 살며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의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은 김행수 씨는 자신의 영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주)씨네프렌드가 12월 22일 조계사 찻집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 소재의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김행수 감독, 법공 스님 역의 배건식, 묘선 스님 역의 신유주 씨 등이 참석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비구 법공 스님과 비구니 묘선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묵계 스님의 손에서 길러졌다. 어렸을 적 애틋한 감정이 있었지만 수행자가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후 두 사람은 은사 법공 스님의 입적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다. 은사스님은 자신의 법구를 다비하는 대신 들짐승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긴다. 스승의 유훈을 따르고자 하는 대중 스님들과 유훈을 거스를 수 없다는 법공 스님 사이에 갈등이 인다. 결국, 법공 스님은 대중들 몰래 은사 스님의 유언을 따르게 되면서 그의 화두였던 ‘건반 없는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다.

시나리오를 작업한 김행수 감독은 “건반없는 피아노는 주인공의 화두이자 나의 화두이다. 영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불교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사실, 지금까지 불교 영화는 많았지만 불교를 이야기하는 영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본질적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의지를 전했다.

남자 주인공 법공 역을 맡은 배우 배건식 씨는 10여년 배우 생활 동안 스님 역할은 처음이라 설렌다며 소감을 전한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스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시나리오를 읽어 보고 주저 없이 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인생의 길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씨는 영화 신기전, 드라마 세븐데이즈 등에 출연했으며 약수터 부르스 등 다수의 독립영화에 출연했다.

묘선 역을 맡은 여자 주인공 신유주 씨는 삭발을 앞두고 다양한 마음이 교차한다며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삭발할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작업임을 절감합니다. 한 명의 스님이 온전하게 탄생하기까지 수행해나가는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 씨는 영화 식객과 미인도, 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솔 약국집 아들들 등에 출연했다.

김 감독은 설산의 암자를 배경으로 2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겨울 배경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을 돌며 영화와 어울릴 법한 암자를 물색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김 감독은 영화가 완성 되면 5월 칸영화제나 8월 베를린 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BS 불교방송, 모바일 SNS 계정 개설

두 달만에 사연 1만 여건 신청



카카오톡 불교방송 라디오 메인 페이지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카카오톡 옐로아이디’(BBS 불교방송 · 불교방송라디오 · 불교방송 법당 · 불교방송 뉴스)와 불교계의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BBS NEWS 카카오 스토리 등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개설해 청취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BS 불교방송’은 불교방송 대표 아이디로 방송국 개편 소식 및 공지사항을 알리고, ‘불교방송라디오’는 라디오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계정으로 실시간 문자 사연 및 음악 신청을 받는다.

‘불교방송법당’은 불교방송에서 열리는 불교 강좌와 법회 소식을 알려주며 ‘불교방송뉴스’는 불자들이 직접 불교방송 보도국으로 불교계 뉴스를 제보할 수 있다. 텍스트와 사진은 물론 음성메시지와 동영상 등 여러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BBS 카카오톡 개설 이후로 청취자들은 지금까지 1만여 건이 넘는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왔으며, 청취자들이 SNS로 전송한 사진도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한 청취자는 “SNS로 불교방송 진행자 스님에게 신행생활에 대해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매일 아침 불교방송에 대해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방송은 지난해에 페이스 북 계정(www.facebook.com/BBSNEWS01)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불교계 뉴스를 제공해왔다. 이미 많은 불자들이 불교방송 뉴스를 공유하고 많은 ‘좋아요’를 남겼다.

정혜숙 기자

국립박물관… ‘서예의 길잡이 중국 법첩’ 展

안진경의 다보탑비 등 중요 서예가 작품 한자리에



안진경의 ‘다보탑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3월 15일까지 테마전 ‘서예의 길잡이 중국 법첩’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서예의 발전을 이끈 역대 중국 서예가들의 글씨를 담은 법첩 3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중국 역대 서가들의 필적이 담긴 ‘순화각첩’을 비롯해 왕희지(303~361년)의 행서를 집자한 ‘대당삼장성교서’, 구양순(557~641년)의 ‘황보탄비’, 안진경(709~785년)의 ‘다보탑비’ 등 중요 서예가의 법첩이 소개된다.

법첩은 옛 명필들의 글씨를 모사하거나 탑본하여 만든 서첩이다. 모사와 탑본은 전통 복제 방식이다.

법첩은 명필의 글씨를 안전하게 보존하며 감상하기 위해 글씨를 모사하여 부본(副本)으로 만든 것으로, 보다 편리하게 감상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책 모양으로 만들면서 발전하였다. 법첩을 통해 옛 명필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이 없어졌을 때는 진품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어 옛날에 만든 법첩일수록 특히 소장 가치가 높다.

특히, 안진경(709~785)의 다보탑비(당, 752년)는 그의 초기 비석 글씨로, 단정한 자형에 정밀하고 변화가 큰 필획을 보여주고 있다.

안진경은 당의 충신으로 당 현종(685~762) 시대의 관료였으며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것으로 유명하다. 안진경은 평원(平原) 태수로 부임하기 전인 752년 44세 때 장안 천복사에서 건립된 다보탑비의 글씨를 썼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근하신년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지 도 후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변 춘 광

부 주 지 김월도
총 무 김진철
교 무 허자룡
재 무 손무성
부 전 정회명
거사부전 강근영
신도회장 문광진
사부대중 일동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 옥불보전
■ (우137-900)서울 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111 /TEL 3460-5300. FAX 3460-5200

싱가포르에 대규모 불교랜드마크 세워져

2017년 불교사회 BW 사원 증·개축 공사… 2017년 완공

2017년 싱가포르에 불교 랜드마크가 세워진다.

〈Straits Times〉 지는 "싱가포르 불교사회 BW 사원이 2년간의 증 · 개축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싱가포르 랜드마크로 우뚝 설 전망"이라며 "증 · 개축 이후 사원은 4층 불교복합건물로 탈바꿈되며, 예불 · 법회공간은 물론 도서관 · 병원 · 기숙사 · 레스토랑 등의 부속시설도 갖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traits Times〉 지는 "지난 2002년 150여 명의 재적신도로 개원한 불교사회 BW 사원은 현재 3500여 명의 재적신도를 보유한 매머드 사원으로 급성장했다"고 주목하고, "이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계 개별 시설과 비교해 가장 앞선다"고 덧붙였다.

불교사회 BW 사원 증 · 개축에는 총 2천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2017년 축구장 규모의 3만 4천 평방미터의 규모로 싱가포르 북쪽 우드가(Wood Avenue)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불교사회 BW 사원에는 2천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에 마련하고 1,500여 명이 동시에 예불을 올릴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련된다.

림 티옹 분(Lim Tiong Boon) 사무국장은 "최근 도시 재개발 기관으로부터 증 · 개축에 필요한 토지를 구매했다"며 "이로써 3,500여 명에 달하는 신도들의 바람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고, 2년 후 '베삭 데이(Vesak Day)' 불교축제를 통해 싱가포르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당찬 각오를 보였다.


싱가포르 불교사회 BW 사원이 2년간의 증 · 개축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싱가포르 랜드마크로 우뚝 설 전망이다.

증 · 개축에 2천만 달러 소요 전망
도서관 · 병원 · 기숙사 등 부속시설
"재가불자 수행 · 신행 요람 될 것"

림 티옹 분 사무국장에 따르면, 불교사회 BW 사원은 당초 2013년 토지를 구입하고 증 · 개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사회, 특히 종교계의 공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땅이 부족한 나라"라고 전제한 〈Straits Times〉 지는 "현재 130여 개의 사원과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사원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라며 불교사회 BW 사원이 2013년 토지를 구입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불교사회 BW 사원의 공청회 외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 사원 및 단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전했다.

"대중법회나 불교축제 때마다 공간이 부족해, 정부와 개인에게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데만 매번 5만달러를 추가 지불해야만 했다"고 전한 림 티옹 분 사무국장은 "이번 증 · 개축이 끝나면 그런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오로지 부처님 일에만 모든 정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raits Times〉 지에 따르면, 불교사회 BW 사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인 씨티라야(Citiraya)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100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변 건물을 임대해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씨티라야 센터 교육생의 기대감도 크다"고 말한 림 티옹 분 사무국장은 "2017년부터 이들의 수업은 물론 불교학계의 세미나, 포럼 등도 새롭게 단장한 불교사회 BW 사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육 과정을 좀 더 전문화해 재가불자를 위한 '학위 과정(diploma program)' 고신설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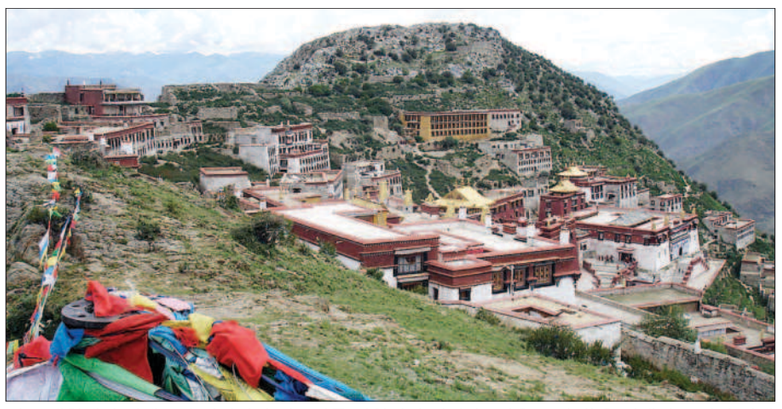
현재 싱가포르에서 불교학 관련 학사 · 석사 과정이 개설된 곳은 싱가포르대학이 유일하다. 따라서 불교사회 BW 사원의 '학위 과정'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싱가포르대학을 뒤이은 두 번째 교육 기관으로 상장한다는 의미다.

"현재 1천만달러의 증 · 개축 기금이 조정됐다"고 전한 〈Straits Times〉 지는 불교사원 BW 사원의 징 유안(Jing Yuan) 스님의 말을 인용, "싱가포르는 국민의 절반이 불교를 믿고 있지만, 그들의 심신을 다질 교육 기관이 부족하다"며 "불교사회 BW 사원은 그들의 마음공부에 반석이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크라우드 펀딩, 티베트 · 히말라야 불교연구

英 울프슨대학 10월 6일부터…현재 5만파운드 조성


영국 대학에서 티베트와 히말라야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은 티베트 라싸.

영국의 대학에서 티베트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Oxford Student〉지는 "영국의 울프슨(Wolfson) 대학이 지난 10월 6일부터 '티베트 · 히말라야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사 과정 이수자'의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현재 5만파운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 기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드물다. 더욱이 학계에서는 더욱 생소할 따름이다.

"울프슨 대학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도입할 당시 우려가 앞섰다"고 전한 울리크 로즈럴(Ulrike Roeser) 교수는 "지난 12주 동안 손톱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티베트 · 히말라야 연구'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프슨대학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에는 옥스포드대학의 참여도 뒤따라,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 옥스포드대학은 티베트 · 히말라야 연구 분야에서 석 · 박사 과정을 개설한 영국의 유일한 대학이다.

한편 부탄의 불교지도자 갈왕 드룩파(Gyalwang Drukpa) 스님은 1,000파운드 이상을 약정한 편딩 참여자에게 부탄의 불교유적 순례길을 함께 걷자는 내용을 담은 초대장을 보냈다. 갈왕 드룩파 스님은 울프슨대학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1,000파운드를 기부했다.

울리크 로즈럴(Ulrike Roeser) 교수는 "히말라야 인접국은 모두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국의 색깔을 입히고 있다"며 "따라서 티베트불교의 원형을 보존하고, 히말라야 인접국에서의 변화를 짚어내는 연구가 절실하다"며 "이는 티베트 · 히말라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청소년 바른 가치관, 불교 윤리서 찾자"

달라이 라마 21일 印 툼쿠르대 국제회의에서 강조

"윤리 교육에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1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에 있는 툼쿠르(Tumkur)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Tibet Post〉 지가 보도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툼쿠르(Tumkur) 대학과 빌라꾸피(Bylakuppe)의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불교 윤리의 가치를 재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종교적 정치적 '폭력'에 몰살을 앓고 있다"고 전제한 달라이 라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에게 연민과 자비라는 불교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불교적 윤리를 강조한 교육은 동시대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폭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작은 세계' 그 자체"라는 데 주목한 〈The Times of India〉지는 "이번 국제회의는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의를 얻는 자리였다"며 "이는 인도 교육계가 달라이 라마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Tumkur)대학과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최해 21일 개최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 전경.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처음 열린 국제회의에는 자야찬드라(T.B.Jayachnadra) 법무장관, 안자네야(H.Anjaneya) 사회복지장관 등 정 ·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12년 쿰쿠르 대학에서 요가를 주제한 국제회의에서 인간성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교수'에 임명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하이난서 방생활동 상업주의에 빠져

물고기 떼죽음 당해…물고기 구입에 천만원 넘게 사용

방생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공양물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중국 하이난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방생이라는 종교행위가 상업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상해 인터넷 신문인 상하이스트닷컴(shanghaiist.com)은 "하이난에서는 불법적인 동물사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곳은 방생도 불자들의 호주머니 속 동전까지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의 비뚤어진 벤처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한 난샨 문화관광지구에서 이뤄지는 방생에서 물고기나 거북이는 한화 6800원에서부터 35만원까지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가장 비싼 것은 바다거북이로 거의 900만원까지 값이 올라간다. 더 나아가 물고기 구입에 천 만원 넘게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상하이스트닷컴은 "방생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허가받은 양식장에서 거북이를 구입하고 방생 후 다시 잡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의 어부들은 방생된 바다거북이들을 다시 잡아 팔아 돈을 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생은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문제를 사고 있다. 지난 해 송지앙 지역 인공호수인 시징호에 수많은 물고기가 죽은 채 떠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해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의 물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훗날 이 재난이 방생으로 인한 물고기들의 떼죽음이었음이 밝혀졌다.


거북이 방생을 하고 있는 중국 불자들.

무분별한 방생에 대해 상하이이스트닷컴은 "2013년 12월에는 사람들이 800마리의 잉어를 풀어주었는데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다시 모두 어획되는 일이 일어나 방생이라는 종교적 행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나은 기자

해운정사 금모선원

주 지 지성
신도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 www.seon.or.kr

www.worldsangha.org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라

싯달타 태자가 부처되신 수행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세계승가회 회원이 되십시오.

세계승가회는 "출생을 묻지 말고 다만 그 행을 물어라"라는
평등무차 가르침에 따라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붓다수행법 공개특강 : 매월 첫 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 견불선원(분당선 태평역 2번출구에서 750m 직진. 070-7717-2276)

마하 상가라자 : 뿐냐싼또 승왕비서실장 : 싯달라
회 장 : 수완나(光越禪師) 한국대표단장 : 수밋다
의전국장 : 설원 포교국장 : 능견 복지국장 : 능화
인권국장 : 태연 환경국장 : 능현 국제국장 : 의연

세 계 승 가 회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0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숫타니파타〉



문화포교전문도량
동 림 사
문빈정사 포교당
주지 효산 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051)508-2917 / H·P 010-6609-8011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우담바라합창단
참선반. 목욕봉사단
주지 만 제 혜 수
사 부 대 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지 능후 효선
사부대중일동
http ://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 FAX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7848/624-3754

대한불교조계종
사 리 암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55번길 15(괴정동)
TEL 051)201-2255

대한불교조계종
앵림산 안 적 사
주지 법 안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길 461-16
TEL 051)543-9408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정진호
회 원 일 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사부대중 일동
www.hanmaum.org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23-26(동삼동)
TEL 051)403-7077 FAX 403-1077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051)294-9300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부대중 합장
마음편한절 · 관음기도도량
"미타선원의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선공부 · 명상상담 전문교육도량
행복禪수행학교
명상상담센터 희망과 사랑
■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켈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051)253-8687~8 / www.mitazen.net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선원
홍 제 사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 일동
· 매월(음) 초하루 - 초사흘 신중기도
· 음력 보름 인등 기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대한불교조계종
백 양 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합동천도재
· 설, 추석, 백중 합동제사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부암동)
TEL 051)803-7573 / FAX 803-7521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 산 지 역 본 부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이경순. 문수용
감 사 심산, 박분희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이승표
자살예방위원 이사 하림, 백영선
이 사 일 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 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7, 3층 (수정동 대성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범어사금정불교대학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
바로알고 바로믿어 바로행하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
학 장 수 불
담임법사 지 장
총 동 문 회
재 학 생
일 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16번길 27(거제동)
TEL 051)866-7277 / FAX 051)864-7290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6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고 문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김영주
직전회장(고문) 허인구
회 장 박순곤
신임회문 박수관
부 회 장 김종백 김수현 이상수
박영근 신재철 장인화
최삼섭 양재생 이시영
권청길 장남인
감 사 노종헌 박형주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박차수
총무이사 정연식
기획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공정근
조직이사 이헌호
홍보이사 이현수
이사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1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다. 〈증일아함경〉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대한불교 조계종

연 화 사

주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 유치원 227-0173

녹 야 선 원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종교법인 녹야선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77-3번지
TEL062)365-0108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아 주 미 디 어

대 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TEL 062)381-8052
FAX 062)381-8056
010-3624-2321

대한불교 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 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지장도량 미륵사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주지 혜 법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말사

주흘산 혜 국 사

주지 보 천

사부대중일동

꿈나무아동센터 운영

문경읍 상초리 주흘산에있는 사찰로 부속암자·안적암·은선암·용화암이있다. 신라말에 보국사가 창건.임진왜란 대 이 절에서 의승이 많이 나와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절 이름을 혜국사로 지었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
전화 054)571-0341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 송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제로 824-35
(덕현리 산176)
TEL 063)222-2555~6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 계 명 암

주지 선 재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TEL 051)508-4345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감 원 **원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전화 055)932-7308

참선과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안 흥 사

주 지 **대 웅**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전화 053)815-4030 FAX 053)814-5142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 교구

종무원장 강 관 정(칠곡비룡사)

행정부원장 **임법운**
(대구 관음사)

재정부원장 **김도법**
(김천 칠장사)

지방종회의원 종회의장 **김만허**
(대구 대원사)

종회부의장 **추원진**
(대구 죽림사)

종회부의장 **권금륜**
(칠곡 광명사)

총무국장 **홍영범**
(창녕 우포정사)

교무국장 **이성우**
(성주 임정사)

지무국장 **이명심**
(봉화 봉선사)

사회국장 **서지산**
(김천 월정사)

규정국장 **김지형**
(성주 자은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45 (구. 송학리 235-3)
전화 054)975-4339 전송 054)975-0206

온화·온순 상징… 羊처럼 화합 정진하자

양띠해 불교소사

▲623년 백제승려관륵(觀勒), 일본에서 첫 승정(僧正)의 자리에 올랐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승려 혜자(惠慈) 입적하다.

▲923년(고려 태조 6) 화엄종을 통합한 원통(圓通)수좌 균여(均如)가 태어나다. 윤질(尹質)이 후량(後梁)에서 오백나한 화상(畵像)을 가지고 귀국해 왕에게 바치니 왕건은 이를 해주 숭산사에 봉안토록 지시.

▲1163년(고려 의종 17) 백련사 결사운동을 일으키고 천태종을 크게 중흥시킨 원묘요세(圓妙了世)가 태어났다. 의종은 명인전에 장경도량을 베풀어 분향하고 흥원사에서 화엄도량을 크게 열었다.

▲1223년(고려 고종 10) 최우가 황금으로 13층탑과 꽃병을 만들어 흥왕사에 봉안했는데 무게가 2백 근이나 나갔다고 한다. 고종은 내전에서 담론법석(談論法席)을 베풀고, 수문전에서 불정도량, 제석도량, 소재도량을 베풀었다.

▲1283년(고려 충렬왕 9)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국존(國尊)에 책봉. 왕이 염승익 · 공유에게 명하여 현화사를 보수하고 남계원과 왕륜사의 석탑을 수리하게 했다.

균여 · 원묘 스님 양띠해 출생
영조 때 스님들 한양서 쫓겨나기도
조선 때 사찰에 위패 봉안 금지도

▲1343년(고려 충혜왕 복위 4년) 오교양종 일곱 절의 토지와 선대의 공신전을 내고(內庫)에 귀속시켰다.

▲1403년(조선 태종 3) 의정부의 건의로 절에 속한 노비의 수를 대폭 감축했다.

▲1463년(조선 세조 9) 간경도감에서 〈묘법연화경언해〉 7권을 간행하여 왕에게 바침.

12월에는 승니(僧尼)가 죄를 범하면 먼저 보고한 뒤에 형을 가하게 하고, 관리가 출가자를 능멸하면 죄가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1763년(조선 영조 39) 한양에 있는 승려들을 내쫓고 각 도의 절에 위패 봉안을 금지했다.

▲1883년(조선 고종 20)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여 초대 종정에 취임한 법운 박대련 스님이 태어났다.

▲1943년 범어사 금정불교전문강원이 원장이던 김법린이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 폐원 당함.

▲1955년 현오 · 이종익 등,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창립.

▲1967년 동국대, 달라이라마 기증 서장대장경 봉수식 거행.

▲1979년 쌍룡사서 중앙승가학원 설립 발기

▲2003년 조계종 총무원 비구니 스님 첫 임명. 공무원 불자회 창립

을미(乙未)년인 올해는 양의 해다. 양(未)은 12지의 여덟 번째 동물로서 시각으로는 오후 1시에서 3시, 달(月)로는 6월에 해당하는 시간신이며, 방향으로는 남남서를 지키는 방위신이다.

양의 성격이 순박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양띠도 온화하고 온순하여 이 해에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는 식의 속설이 많이 있다. 양하면 곧 평화를 연상하듯 성격이 순박하고 온화하여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다. 양은 무리를 지어 군집생활을 하면서도 동료 간의 우위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갖지 않는다. 또,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습성도 있다. 성격이 부드러워 좀체 싸우는 일이 없으나 일단 성질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多血質)이기도 하다.

불교와 양이야기

십이지신장(十二支神將)이 언제부터 불교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십이지라는 개념은 중국 은대에서 시작됐으나 이를 방위나 시간에 대응시킨 것은 대체로 중국 한대 중기의 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12가지 동물과 대응시킨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불교 전래 이후로 알려져 있다.

즉 부처님이 약사여래의 본원공덕에 대해 설할 때 12야차대장이 크게 감명을 받아 12대원을 행할 것을 서원하였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설명이다. 말이 아미타불의 좌측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의 6현신 중 하나라면 양은 아미타불의 우측 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의 화신이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보살로, 이 넓은 우주의 모든 별들과 인간 세상을 빠짐없이 살펴서 모든 중생들의 선악을 아미타불에게 보고한다. 보고하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별마다 중생들의 마음과 생활이 다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달라서 그 일은 여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별들 가운데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일이 많았기에 직접 내려와 가까이서 관찰하고 파악하기로 하였다. 잠시도 쉴 새 없는 바쁜 몸이어서 항상 분주하였고, 잠시도 한곳에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대세지보살의 지혜와 한량없는 권위는 그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경전 속에 등장하는 양

경전 속에 양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승불교 경전인 〈법화경〉이나 초기불교의 〈장아함경〉 정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인 '화택의 비유'에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등장한다. 양거 · 녹거 · 우거는 각각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菩薩)의 3승(三乘)을 비유한 것이다.

〈장아함경〉 '세기경(世紀經) 지옥품'에는 지옥의 10가지 종류를 설하면서 양명(羊鳴)지옥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지옥에서 죄를 받는 중생은 고통이 몸을 끊을 때 소리를 내어 말하고자 하나 혀가 돌아가지 않아서 마치 염소가 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양명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에는 '영양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아흔여덟 가지 우화를 모은 〈백유경〉에서는 '양 치는 사람의 어리석음'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에는 조계종 제18교구본사인 백양사에 양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온다. 백제 무왕때 창건된 백양사는 1034년 중연(中延) 스님이 중창하면서 '정토사'라고 이름을 고쳤다. 조선 선조때 환성(喚醒)스님이 중건하면서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흰양이몰려와서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갔다고 해서 절 이름을 백양사(白羊寺)라 바꾸고 스님의 법명도 환양(喚羊)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아미타불 우측 '대세지보살' 양의 화신
모든 중생 선악 다스리고 격려 '상징'
양과 관련된 설화… 백양사 대표적



돌로 만든 양 모양의 조각상으로 무덤 · 사찰 및 신성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악한 기운을 막고 복을 기원한다. (양석 1900년대작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가리키도록 제작 된 시계. 돌로 된 나침반 둘레에 12지가 새겨져 있다. 양을 의미하는 미(未)의 시각은 오후 1시~3시 이다. 십이지가 새겨진 해시계(仰釜日晷). 고려시대 유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리나라의 12지신은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불교를 수호하는 신장(神將)으로 표현되어 불교행사에서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십이지신도 미신발이라대장(十二支神圖 未神跋伊羅大將) 1977년, 만봉 스님 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한국인과 양

한자 羊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상형문자들(善,美,義) 상형문자인 양(羊)은 맛있음(味), 아름다움(美), 상서로움(祥), 착함(善), 좋음 등으로 이어진다. 즉, 큰 양이란 '大羊' 두 글자가 붙어서 아름답다는 뜻의 미(美)자가 되고, 나아(我)의 좋은 점(羊)이 옳을 의(義)자가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양의 습성과 특징에서 착하고(善), 의롭고(義), 아름다움(美)을 상징하는 동물로 양을 인식했다. 즉 양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념은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 무릎을 꿇고 젖을 먹는 은혜를 아는 동물로 수렴된다.

또한 양이 등장하는 일화로 태조 이성계의 꿈이 있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이성계가 양을 잡으려는데 양의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양이라는 한자에서 양의 뿔과 꼬리가 떨어지면 '왕' 자만 남게 되니 임금이 되리라 해몽했다. 후에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되었고, 양 꿈은 길몽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양의 글자 자체에서도 좋은 의미만 담고 있다. 착할 '선', 아름다울 '미', 의로울 '의' 이와 같은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은 유순하고 상서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긍정적 동물인 것이다.

양은 또한 정직과 정의의 상징이다. 양은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정직성이 있다. 속담에 '양띠는 부자가 못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처럼 양띠 사람은 너무 정직하여 부정을 못보고 너무 맑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천성이 착한 탓에 해로움을 끼칠 줄도 모르면서 오직 희생돼야 하는 양들을 어떤 이는 우리 민족사에 비견하기도 한다. 구한말 지사(志士) 김종학 선생은 양의 슬픈 운명을 우리 민족사에 찾는 듯이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흰빛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은 심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산양 떼를 빼어 닮아 오직 인내와 순종으로 주어진 운명에 거역할 줄 모르고 남으로, 남으로 강자에게 쫓기여 더 갈 수 없는 곳까지 밀려왔건만 동서의 강자들은 또다시 이빨을 가니 슬프다 양 떼들이어! 또다시 얼마만한 곤욕을 치러야하고 못 참을 치욕을 사위어야한다는 말이냐! 뿔을 갈자. 그리고 행진을 멈추자 끝간 데까지 왔으니 예서 더 갈 곳도 없지 않는가. 군장(群長)만 따라 가며 허약한 뒤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군장을 중심으로 좀더 둥글게 뭉쳐 날카로운 뿔로 울타리를 치자. 아무리 사나운 이리떼라도 어찌 감히 넘볼 수 있겠는가!" 물론 개화기 우리나라의 무력함과 열강국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통탄을 토로한 울분이었지만 양과 우리 민족사를 비유한 한 면을 살필 수 있다. 양(羊)은 글자 형태로는 '상(祥)'과 음(音)으로는 '양(陽)'과 서로 통하여 길상의 의미로 일찍부터 한국 문화 속에서 등장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謹賀新年

새해 복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3

입을 조심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러운 말,
고운 말만 하라. 〈숫타니파타〉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복혜쌍수의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광주포교당

원각사

주 지 도 요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7 (구.금남로 4가 51번지)
종무소 062)223-3168 불일서점 062)232-7542
www. wonga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길 상 사

주 지 도 제

- 새 벽 예 불 – 매일 오전 5시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목련합창단 연습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불교기초교리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유식학 강의 – 매일 오전 5시 30분
-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사찰요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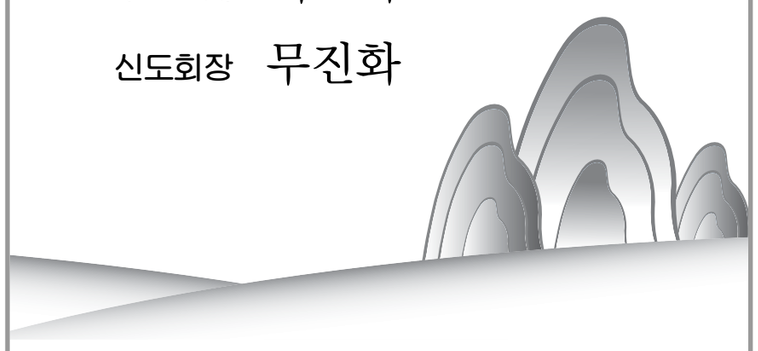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 각

신도회장 무진화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TEL 062)652-492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갑오년 한해 아낌없이 보살펴 주심에
저희 제11대 총동림동문회 임원 모두 대덕스님들께 깊은 감사 올리며,
을미년 새해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 장	광혜 무문
명예회장	벽담 학명
고 문	자용. 법운
수석부회장	혜정. 혜진
부 회 장	귀영. 원행
사 무 총 장	지담

총무부장 지련 재무부장 지선 기획실장 법정
수석감사 덕성 감사 종산 상임이사 동월 상임이사 승현. 성일
자문위원 진우. 청암. 덕인.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혜성 학술분과위원장 성담 포교분과위원장 보덕
연화분과위원장 광덕 기획분과위원장 혜인스님 문화분과위원장 혜진
의례분과위원장 명원 인권분과위원장 지행

■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14호 / 02)735-1053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 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행복 나눔 도량

금 선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TEL 062)942-3260

대한불교 조계종

완도 신흥사

주 지 법 일

사) 완도문화21
청소년교육문화단체 장보고 아카데미
완도불교문화대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TEL 061)554-2634
홈페이지 www.sinheungsa.net

대한불교 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대한불교 조계종

대 광 사

주지 정 선

[부설]
사단법인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35번지
TEL 062)222-4613
다음카페 ttp://cafe.daum.net/rs211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4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수행자는 마음의 동요를 버리고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정진해야 한다. 〈숫타니파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관음사 성지순례단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 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백화도량
종남산송광사

회 주 금산도영
주 지 백강법진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
TEL 063) 243-8091
홈페이지 :http://songgw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걸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462-5366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남 고 사

주지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TEL 063)284-9640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월은 종명

명예회장 : 진여심
신도회장 : 정각행
거사회장 : 성문수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홈페이지 : http://seungbul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참좋은 우리절

참좋은 우리절 불교대학
2015년 신입생 모집안내

▣ 일 시 : 2014년 12월 23일 ~ 2015년 2월 28일
▣ 대 상 :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일구고자 하는 모든 이
▣ 인 원 : 50명(선착순모집)
▣ 교육과목 : 부처님생애, 불교문화, 금강경, 대승불교, 한국불교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063)236-6633으로 문의하시거나 cafe.daum.net/urijel을 참고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청량산문수사

주지 태효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48
TEL 063)562-0502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 선 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주정기
수석부단장 고태용
부 단 장 이택익
감 사 이의식, 구강식
군포교총괄팀장 이성강
어린이청소년1팀장 이미옥 어린이청소년2팀장 이정상
군포교1팀장 여영만 군포교2팀장 박갑기
군포교3팀장 박운성
교정교화1팀장 이재홍 교정교화2팀장 김진구
염불봉사1팀장 강석춘 염불봉사2팀장 송동기
사찰문화해설1팀장 권대택 사찰문화해설2팀장 이택회
지역봉사팀장 이연자
자원봉사1팀장 황화기 자원봉사2팀장 이용순
자원봉사3팀장 김생곤
홍 보 팀 장 백덕기
호스피스팀장 박미숙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 법회안내 : 초하루법회 매월(음) 1일 오전 10시 30분
- 적멸보궁기도 : 매월(음) 1일 ~ 3일
- 철야참선법회 : 매월(양)셋째주 토요일 오후 8시
- 템플스테이 : 휴식형 · 수행형 · 상시운영
- 문수선원. 보궁기도.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사부대중일동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번지
전화 054)672-7579. 7535(사무실)
전화 054)673-9962 (템플스테이)
팩스 054)672-7567
http://www.chooksersa.org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일동

예천용문사에는 국내유일한보물 대장전의 윤장대와 목조삼존불 · 목각탱보물이있다.

- 대장전안에 설치되어있는것으로 내부에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돌리는데 윤장대는 유일한 중요한문화재이다. 회전식장경각이다.
-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1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스님은 저만치에 계실뿐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성철스님 (上)



성철스님 진영 (1994년, 253×183cm, 수묵채색, 해인사 백련암 소장). 진영은 표현대상자의 외모는 물론 삶과 정신까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 한다는 것이 화가의 인생을 걸 만큼 즐거운 멍에였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1994년, 185×95cm, 수묵, 해인사 백련암 소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 물 위로 간다. 스님은 백련암 앞마당에 머물다 가는 노을 속에 서서 함께 물들었다.



성철스님(1994년, 164×125cm, 수묵, 해인사 백련암 소장). 스님은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는 스님을 무서워했다. 스님은 아이의 낯가리는 모습조차 사랑스러워했다.

처음 성철 스님의 그림을 부탁 받은 것이 1994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그 자리엔 성철스님의 상좌이신 원택 스님과 원영스님 그리고 사진작가이신 주명덕 선생님이 함께 계셨다. 나는 성철 스님의 다비식에 다녀온 경험이 있던 터라 자연스레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와 분위기에 동화 되었고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었다. 나를 부른 이유는 "성철 스님의 진영을 모셔야겠는데 그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원택 스님께서는 "노장님의 참 모습을 보고 싶다. 이를 모실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며 "스님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하든 화가의 몫이다. 다만 김호석이라는 화가가 작업한 작품 중 최고의 득의작(得意作)을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도 원택 스님의 작가에 대한 신뢰에 감사드린다. 나는 그 말씀 덕에 성철 스님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성철 스님이 수행 공간으로 삼았던 모든 장소를 답사하며 스님의 체취를 느껴 보고자 했다. 그리고 스님께서 영향을 받거나 말씀하셨던 글을 찾아 연구하듯 읽어 나가며 스님과의 눈높이를 맞추어가려 노력했다.

해인사 등 답사 스님 체취 느끼려 했지만

천학비재 화가에겐 멀게만 느껴져

외형보다 '얼' 스민 선화 장르 확장 계기

이렇듯 성철 스님의 진영을 그리기에 앞서 많은 공간과 시간을 쏟아 부은 것은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 얼과 마음이 스며있는 존상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스님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30여점을 그렸고 동시에 초상화 작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의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시대의 선화로 작업을 확장시켜 새로운 장르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선화라 명명할 수 있는 수묵화 작업들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러 미술 평론가들로부터 의미 있는 전시로 평가 받았다.

나는 성철 스님을 주제로 한 수묵 인물화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작업에 대한 감회를 남겨 두었다.

〈이제 다 왔다. 아니 다 온 것 같다. 그런데도 전혀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참으로 무모한 경험이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 물 위로 간다. 둥근 수레바퀴 붉음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답답한 일이었다. 돈오점수는 좀 알겠는데 돈오돈수는 또 무엇인가. 깨우침과 깨침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 눈을 떠야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그 파격과 역설의 진실이, 먹물만 다루고 살아 온 이 천학비재(淺學菲才)의 화가에게는 너무도 어려웠다.

나는 불자도 아니고 스님을 뵌 적도 없었다. 집착하면 할수록 얼굴로는 오지 않고 말씀으로만 오는 분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분의 영상이 잡힌단 말인가. 번번이 좌절하고 뉘우치며 드는 생각이란, 스님의 영정과 구도 행적을 내 붓에 가두어 보겠다고 덤빈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막막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발길이었다.

일단 붓을 놓았다. 그리고 큰 스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또 그분의 체취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욕심에 기회가 닿는 대로 해인사를 찾았다. 스님께서 바위처럼 여여부동한 모습으로 스스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되고자 한 그 곳에서 노을 속에서 함께 물들면 잡힐 듯 말 듯 한 느낌이 살아나곤 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다가서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착각이었다. 다가설수록 큰 스님은 더 저만치 물러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끝내 스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

지금 와서 작업을 끝냈다는 뿌듯함은 찾을 수 없다. 오직 그 자리엔 큰 스님 가신 길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만이 있을 뿐이다.

이 어려운 일을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늘 서슬이 퍼래져 있는 나의 칼 끝 같은 긴장을 말없이 견뎌준 아내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합장하고 싶다.



성철 스님(1994년, 184×96cm, 수묵, 해인사 백련암 소장). 이 먹물 한두 점만으로 스님의 정신세계를 담는다는 것이 무모한 일이었다.

작가 소개

김호석은 195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홍익대 동양화과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한국암각화의 도상과 조형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중앙미술대전에서 〈아파트〉로 장려상을 수상(1979)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화, 농촌 풍경화, 역사 인물화, 서민 인물화, 가족화, 성철 스님화, 선화, 군중화, 동물화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시대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형상화 하는데 몰두해 왔다.

특히 조선 시대 초상화 기법으로 현대 서민들의 얼굴을 그려 동시대의 표정을 생생히 살려낸 점은 잊혀진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모범이라 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김호석 전'을 비롯해 21회의 초대 개인전을 가졌으며 뉴욕 퀸즈미술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에서 개최한 300여차례의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에 참가했다. 여러권의 화집을 펴냈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제 10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2월 7일(토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금·토) 오후 2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6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 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 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TEL 054)285-8516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 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 굴 사

주지 덕 조

신 도 일 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 주 법 달

주 지 철 산

재 무 지 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 현 사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FAX 053)255-5629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회주 경 희

주 지 명 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태실기도도량

선 석 사

주 지 선견
부주지 선오
총 무 도갑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 자태
실로 616-33
TEL 054)933-9800
www.seon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 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파 계 사
팔공산

관음기도도량

봉 축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 실 청운 도원
회 주 무봉 성우
주 지 남명 허운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TEL 053)984-4550
FAX 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임 휴 사

주 지 보성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1321
TEL 053)632-4844,641-4844
FAX 053)639-5033

謹賀新年

새해 빛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7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생활 건강 상담' 도량

지 수 암

주지 명성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88
H.P 010-4809-745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천태종

대구 동대사

주 지 김도산

신도회장 임응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7-1
TEL 053)795-1357,795-1733
FAX 053)795-173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류화산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수행, 지혜, 자비, 교육의 복지실천도량'

팔공총림 동화사 관오사

회주 자광 대표이사 지도
선원장 명언 주 지 지우

■ 교육 및 수행
· 초기 경전반 : 매주 월요일 저녁7시/ 화요일 오전11시
· 불교아카데미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간화선 경전 : 매일 새벽, 오전, 오후 (2,4주 토,철야정진)
· 지관선(사마타 위빠사나)정진 : 매일 새벽, 오전,오후,저녁 토요일 저녁7시 수행지도
· 염불선 정진 : 매일 법당에서 염불정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예불 4시30분/사시예불 10시/저녁예불 6시)

'어둠이 없는 밝은 사회'를 향하는

불교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17-10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법인 사무국 053)476-6631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26길 9
TEL 053)471-6640

한국불교태고종

지 안 사

주지 지안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TEL 054)932-8443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무진 · 무운스님
사무국장 이홍순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장정익
교 감 이희명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 (구.신암동)
TEL 053)945-0007 / 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謹賀新年

새해 복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8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수행자는 마음의 동요를 버리고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정진해야 한다. 〈숫타니파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한국 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회)

회 장 성승길

■ 대구광역시동구 용계동 763-11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 아 유 치 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중학교장 아 용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능인중학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FAX 053)763-1807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 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암

주 지 지 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번지
TEL 054)372-1433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 지 부 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일동
사 부 대 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 지 덕 현
신 도 일 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약사여래대불
주 지 법 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 도 일 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주 무 공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가야산 심 원 사

주 지 응 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1
종무소 : 054)931-6886
팩 스 : 054)932-3838
www.simwonsa.kr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 지 정 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한국불교대각종 총본산

동천강 대 각 사

관음기도 참회도량
주 지 무연 대각
해수관음회
불교문화대학 일동

■ 울산시 중구 대황 13길 37-9
TEL 052)296-0908

선농약사도량

삼성산 성 불 사

주 지 일각 해동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165
TEL 054)373-5830
H·P 010-6786-5830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 선 혜
신 도 일 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H·P 010-5506-9448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청 수 유 치 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TEL 053)753-2561
[청 수 유 치 원] TEL 053)753-2563

불 종 사

주 지 현 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본산

성 불 사

종무원장 법 성

■ 대구광역시 북구 직원길 9(팔달동)
TEL 053)322-0567
H·P 010-6537-0567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종무원장 지 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해 운 정 사

주 지 청 명
관음회 신도일동
청명노인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 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 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 明 錫

■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 석 사

주 지 근 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 지 성 련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TEL 02)701-7488

신촌고려만물사

불교용품전문점.도.소매
탱화.부처님
불사상담 문의

■ 서울 마포구 신수동 86-4호
TEL 02)714-8985

2015년 을미년 양띠 해가 밝았다. 온순해서 화합을 잘하는 양은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던 2014년을 고이 보내고 2015년을 맞는 오늘, 양처럼 대한민국에도 평화와 화합이 깃들기를 발원해 본다. 그렇다면 2015년 양띠해를 맞이하는 사부대중들은 어떤 다짐으로 새해의 문을 열까? 그들의 새해 희망을 들었다. <편집자 주>

수행하고 나누며 '행복' 바이러스 전파



1943년생

김주필 주필거미박물관 관장

"지방에 자연체험학습장 건립추진이 올해 큰 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필거미박물관 김주필 관장(73 · 前 동국대 교수)은 1943년생 양띠다. 지난해 박물관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5년 양띠 해를 맞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중인 그의 신년 계획을 들어봤다.

"지난해 초 박물관에 불이 났어요. 화재를 진압하다 팔을 다쳐 한동안 무척이나 고생을 했는데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화위복으로 박물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두 배로 넓혀 전시시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대학교수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주필거미박물관의 한국거미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꾸준히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김주필 교수. 특히 2014년도에는 고등학생 회원 중 한 명이 순수 거미 연구만으로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수시합격을 해 경사가 났다.

그만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한다는 김 관장은 2015년도에는 지방에도 박물관을 포함한 자연생태학습장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2013년도 하반기에 부산에서 45일간 박물관의 전시품들을 전시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이후 지방에도 이런 학습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대구 경주 울산 부산 등 지역 답사를 통해 자연합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건립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매일 아침 참선하는 수행자로서 또 나눔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김 관장. 그는 장기적으로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도 매진해 나갈 생각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955년생

박영재 서강대 교수

"방황하는 젊은이들 위해 〈성찰지침서 〉출간예정"

그동안 꾸준히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참선수행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려온 박영재 교수(61 · 서강대 물리학과)는 올해 환갑을 맞았다.

2014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온 그는 올해에도 젊은이들을 위해 다양한 삶의 지침이 되는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 낼 계획이다.

"2014년은 제가 담당했던 교양과목에 온힘을 쏟았습니다. 자기성찰의 입문과정에 해당하는 '우주와 인생' 이란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동 · 서양 영적 스승의 삶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지도를 그려 자신의 꿈을 찾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보급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긴다. 박 교수는 "수업 5분 전에 강의실에 들어오면 수식관을 시킨다. 일단 집중력이 좋아지고, 수식관 요령과 성찰에 대한 목록도 시험문제로 제출하는데 이렇게 한 학기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달라져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 시작과 마지막에 인생지도를 그려보게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난후 학생들의 인생관이 달라진다. 이때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온 박 교수는 마침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연구학기를 맞는다. 그는 그동안 교양강의 진행과정에서 모여진 수년간의 자료들을 수집해 〈성찰지침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종교를 초월해 지속적 자기성찰을 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책을 출간해 두루 널리 활용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1967년생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

"주지 맡고 있는 정혜사 새 포교 계획 수립할 터"

"매년 맞는 새해인만큼 양띠 해를 맞는다고 해서 특별한 소회는 없어요. 하지만 한해 부족했던 나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는 다집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양띠 해를 맞이하는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은 누구보다도 바쁜 한해를 보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 소임 5년차를 맞아 종무 행정에 매진했고, 서울 창동에 있는 도심 사찰 정혜사 주지와 불교TV의 '즉문즉설' 프로그램을 통한 전법 활동에도 여념이 없었다.

특히 남전 스님은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중요한 해이다.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창동 정혜사가 도심 포교 사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원(原)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역에 맞는 도심 사찰로 정혜사를 변모시키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는 사찰 발전 방향과 지역 포교 전략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인 2016년에는 포교 불사를 제대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전 스님은 을미년 새해를 맞는 불자들에게 '심청정 신청정 다신청정(心淸淨 身淸淨 多身淸淨)' 이라는 덕담을 전했다. 이는 '마음이 청정해지고 몸이 청정해지면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 는 뜻이다.

"우리가 기도와 수행을 하는 것은 청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과 병폐는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변화시켜 주위 인연에게도 긍정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락과 지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79년생

차종호 불자배우

"목표에 얽매이기 보다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충무로의 떠오르는 신스틸러로 주목 받고 있는 불자 배우 차종호(37) 씨는 1979년생 양띠다. 지난해 그가 오서방으로 출연한 영화 '봄' 은 밀라노 국제영화제 등 유수 해외 영화제에서 8관왕을 수상하면서 주목 받았다.

그는 현재 영화와 드라마 각종 광고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려나가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차씨는 정토회 청년부 행정팀장으로 신행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불자이기도 하다. "요즘은 청년불교대학 회원들을 관리하는 자원활동가로 봉사하고 있어요. 한 학기당 400여 명이 입학하다 보니 일년이면 관리 인원이 800여 명이 돼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정토회의 모토에 맞게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새해 목표는 목표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뭘까?

"2014년도에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마음공부를 많이 했죠(웃음) 2015년도에는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일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잘되면 잘되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며 평상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5년 동안 매일 108배 수행을 하며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차 씨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행과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그는 내년 영화 '경찰가족' 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정혜숙 기자



1991년생

신경선 前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청년 불자 양성방안 도반들과 만들고파"

前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장 신경선(25) 씨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대불련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새해에는 학교로 복귀한다. 휴학을 하면서까지 회장직을 완수했던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성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전주(전북대)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휴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1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전국 대학의 불교학생회를 지원해 주며 지난 1년 동안 제 인성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영부디스트 캠프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이고, 새롭게 추진했던 불교학생회 매뉴얼 사업은 임기 내에 마무리 못해 아쉬웠습니다."

전북대 산업공학과 4학년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 씨는 취업준비와 동시에 대불련 전북지부와 함께 불교계 일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예전에는 전북 지역 대학교 대부분에 대학생 불교회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세 곳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 대학들의 불교회 활동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신 씨는 청년불자 양성에도 이바지 하고 싶다고. "전북불교네트워크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생명평화실천단이 있어요. 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대불련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이들을 잘 이끌어 주었을 때 불자 대학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전북불교네트워크 보조교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불심을 길러주고 대불련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

원 로 회
원로의장 은파
원 로 동파 농파 근파 정봉 영파 진파 한파 영산 자관 묵암

종 무 원
종문회장 근파 부 회 장 농파
총무부장 능산 재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묵암
문화부장 자관 의전부장 덕산 기획부장 등암

교 육 원
불곡사 승가교육원장 영파 불모산 영산재보존회장 한파 본사 불곡사 주지 서암

감 사 원
감사원장 영산

법인이사회
이 사 장 근파 이사 은파. 원파. 농파. 정봉. 영파 감사 서암. 능산

우담 종문회 종도 일동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 전화 055)282-7402

乙未年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